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EDUCATION MINISTRY FOR A HEALTHY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HALOM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MYUNG HA PAR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Yong Soo Koh

Moon Sang Kwon

Seyoon Kim

May 19, 2005

**EDUCATION MINISTRY FOR A HEALTH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HALOM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MYUNG HA PARK

MAY 2005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

- 샬롬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고 용 수 교수

박 명 하

2005년 5월

Abstract

Education Ministry for a Healthy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halom Presbyterian Church

Myung Ha Park

Doctor of Ministry

200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order for a church to keep up with the social change,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society, and there by actualize the kingdom of God in the world, a new paradigm of pastoral ministry, particularly of education ministry, is strongly demanded. Henc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new paradigm of education ministry based on the theory and praxis of incarnation and explore its practical applications in a local church.

This study is comprised of the seven chapters. In Chapter 1 we will discuss the necessity of a new paradigm of education ministry. In Chapter 2 we will survey the biblical principles on the church and how the concept of the church has been modified through the Christian Church history. In this way we will be able to articulate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what the healthy church with is like. In Chapter 3 we will attempt to analyz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various paradigms of pastoral ministry which can be found in the Korean churches. Among others, a special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education ministry. We will discuss the necessity of education ministry from the perspective of its essence, and clearly state the problems and tasks arising from our analysis of the existing models of education ministry. In Chapter 4 we will observe the education ministry which has been practiced by God Jesus, and Paul the apostle, respectively, and discuss what kind of education ministry can build a health church. In Chapter 5 we will suggest a new paradigm of education ministry which is firmly based on the theory and praxis of incarnation. In Chapter 6, it will be

discussed how this paradigm has been applied to Shalom Church for which the present writer has been serving. Finally in Chapter 7 we will sum up what we have discussed in the previous chapters and makes several concluding suggestions for the Korean churches.

Theological Mentors: Yong Soo Koh, Ed.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기독교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본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고용수 교수님과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이로 인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 김세운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유와 사랑으로 논문 작성 과정을 지도해 주신 권문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과 더불어 지난 14여 년 동안 개척의 길을 같이 걸으며 교육목회의 발을 함께 일구었던 길원교회와 샬롬교회 식구들은 이 논문을 실제로 작성한 분들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실천적 사랑의 목회를 몸소 보여 주심으로 늘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심령을 적시도록 이끄시는 부모님과 목회 사역의 힘든 과정들을 묵묵히 기도로 이겨내면서 주님 앞에서 참 모습을 잃지 않도록 지팡이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샬롬교회를 개척하여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참원교회와 늘 물심양면으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귀한 권사님과 모든 분들께 사랑을 전합니다.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어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 성육신적 삶을 사시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존경하는 어머니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5년 5월 박명하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건강한 교회의 신학적 성경적 기초	6
제 1 절 교회의 본질과 개념 정의(신학적 기초)	6
1. 부활의 생명체로서의 교회	7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7
3.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8
4. 사건과 제도로서의 교회	9
5.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10
6.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	11
7. 요약 : 교회의 본질과 개념 정의	12
제 2 절 건강한 교회란? (성경적 기초)	13
1.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13
2. 신약성경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15
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16
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19
다.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22
라.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24
마. 요약 : 건강한 교회의 개념 정의	28
제 3 장 한국교회 교육목회 현장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과 과제	30
제 1 절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과 과제	30
1.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과 문제점	30
2.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교육목회	33

제 2 절 한국교회의 교육목회 용어 사용의 문제점과 개념 정의	35
1. 한국교회와 교육목회	35
2. 교육목회 개념 이해	37
가. 교육	37
나. 목회	39
다. 교육목회	42
(1) 프락시스	43
(2) 기독교 프락시스	46
(3) 교육목회란 무엇인가?	48
제 3 절 기존의 교육목회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과 과제	51
1. 학교-교수형 패러다임	51
2. 제자화 패러다임	52
3. 신앙-문화화 패러다임	53
4. 회중화 패러다임	55
5. 선교 패러다임	57
6. 성육화 패러다임	58
7. 요약과 과제	60
제 4 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 이해(성경적 기초)	62
제 1 절 하나님의 교육목회와 목회원리	62
1. 모세 5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교육	62
2. 하나님의 교육목회 원리	66
제 2 절 예수님의 교육목회와 목회원리	68
1. 제자 사역을 통한 예수님의 교육목회	68
가. 제자로 부르심	68
나. 부르심에로의 응답	69
다. 주님의 제자학교	71
라. 제 2의 결단	73

2 예수님의 교육목회 원리	74
제 3 절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와 목회원리	77
1. 예수님의 교육목회의 실천적 모범을 따른 사도 바울	77
가. 그리스도의 현현	77
나. 바울의 사도직	79
다. 바울의 목회 내용	79
라. 바울의 선교비전	80
마. 바울의 교육목회 실천 원리	81
바. 바울의 교육목회 방법	81
2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 원리	81
제 5 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 패러다임	86
제 1 절 기독교 프락시스로서의 성육신	86
1. 교육목회의 전형인 성육신	86
2. 성육신의 특성들	87
제 2 절 성육신적 삶의 내용(성육신 교육과정)	91
1. 케리그마(말씀 선포와 전도) 교육과정	93
2. 레이투르기아(예배와 예전) 교육과정	94
3. 디다케(가르침과 훈련) 교육과정	96
4. 코이노니아(교제와 친교) 교육과정	97
5. 디아코니아(봉사와 섬김) 교육과정	99
제 3 절 성육신적 삶의 과정과 원리	101
1. 성육신적 삶의 과정	101
2. 성육신적 삶의 원리	102
가. 순환의 원리	102
나. 성령 충만의 원리	104
다. 기도의 원리	103
라. 성육화 원리	104

제 4 절 성육신적 삶의 장과 참가자	110
1. 성육신적 삶의 장(場)	110
2. 성육신적 삶의 참가자	105
제 6 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의 실제(살롬교회를 중심으로)	108
제 1 절 흐르는 물처럼	108
1.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108
2. 흐르는 물처럼	109
제 2 절 비움으로 시작되는 성육신적 삶	110
1. 잘못된 시작들	111
가. 크고자 하는 마음	111
나. 보상심리	112
다. 자만심	112
라. 내적 자아	113
마. 경험들	113
2. 비움을 위한 실제적인 훈련들	114
3. 목적을 세움	115
가. 살롬교회 교회론	116
나. 살롬교회 목적	117
다. 살롬교회 5대 목표	117
라. 살롬교회 성육신적 목회원리	119
마. 살롬교회 목회철학	120
바. 살롬교회 10대 목회 원칙	122
제 3 절 처음으로 총만하게 되는 성육신적 삶	124
1. 살롬교회 성육신 교육과정	125
가. 케리그마(말씀 선포와 전도) 교육과정 : 복음화	125
나. 레이투르기아(예배와 예전) 교육과정 : 신앙화	127
다. 디다케(가르침과 훈련) 교육과정 : 제자화	130

라. 코이노니아(교제와 친교) 교육과정 : 문화화	132
마. 디아코니아(봉사와 섬김) 교육과정 : 역사화	135
2. 살롬교회 소그룹 개발계획	141
가. 살롬교회 소그룹의 개념	141
나. 살롬교회 소그룹의 목적	141
다. 살롬교회 소그룹 서약	142
라. 살롬교회 소그룹 영역	142
마. 살롬교회 소그룹 훈련 커리큘럼	143
바. 살롬교회 평신도 소그룹 사역자 훈련	145
사. 소그룹 사역의 적용 원리	145
제 4 절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성육신적 삶	146
1. 성만찬	146
2. 생명을 낳는 성육신 사역	147
 제 6 장 결론	 150
 참고 문헌	 154
 Vita	 162

표 목 차

<표 1> 모세 5경의 구속사 요약	65
<표 2>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회원리 비교	84
<표 3> 성육신적 삶의 내용(성육신 교육과정)	100
<표 4> 샬롬교회 교회론	116
<표 5> 샬롬교회 목적 진술	117
<표 6> 샬롬교회 성육신 목회 원리	120
<표 7> 샬롬교회 실천적 훈련 커리큘럼	130
<표 8> 샬롬교회 성육신 교육과정	139
<표 9> 샬롬교회 소그룹 훈련 및 사역 구조	14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말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됨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변화된 존재를 의미하며, 변화된 존재는 한번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계속 변화되어 가는 존재라는 의미이다.¹⁾ 그러므로 변화하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삶이다. 그리스도인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명체의 의미는 성장에 있고 성장은 곧 변화를 의미한다. 변화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다.²⁾ 이것은 교회가 생명체로서 유기적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체인 교회 역시 계속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는 교회 역시 죽은 교회임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변화는 곧 생존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 1960년대의 100대 기업 가운데 1990년대 말까지 생존하고 있는 기업은 29개뿐이라고 한다.³⁾ 지금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용단을 내렸고, 변화를 두려워한 기업들은 도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1) 박선희, *생명으로의 길* (서울: 계몽문화사, 2000), 220-232. 여기서 변화는 창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의미한다.

2)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다(엡1:23).

3)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12.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흥회, 심방,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설교중심의 목회 등이 전통적인 목회 형태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목회 형태들은 한국교회의 경험에서 나온 한국적 목회의 소산으로 1980년 후반까지 지난 30여 년 간 교회사적으로 놀랄만한 교회성장에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장기적 침체기 또는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다.⁴⁾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전통적인 목회 형태가 점점 그 적응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변화를 요청하는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는 교회의 목회 형태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성희는 우리의 교회가 목회 형태를 과감하게 변혁해 나가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미래 현상인 가속적 사회변동에 교회가 적응해야 한다. (2) 한국교회의 성장이 이미 둔화되어 기존 패러다임의 변혁을 요구받는다. (3) 미래 사회는 유토피아의 반대개념인 디스토피아(dystopia)로 접근해 갈 것인데,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가 있다. (4)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unity in diversity)을 추구해야 한다. (5) 신세대의 문화와 사고구조는 전통문화나 기성세대의 사고구조와는 다르다. (6) 컴퓨터 등의 발달로 기술개발과 정보교환 능력이 교회에도 절실히 요청된다. (7) 임시성과 대여개념의 발달로 교회의 소유개념보다 대여개념이 발달한다. (8) 과학의 발달로 생명보호라는 심각한 과제가 교회에 주어질 것이다. (9) 이동성의 발달로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이 무력화될 것이다. (10) 교회의 구조가 성직 패러다임에서 평신도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11) 여성 성직자가 증가되고 여성의 기능이 증대될 것이다. (12) 정보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영성이 발달한다. (13) 교회의 관심이 교회자체의 성장보다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높여가는 쪽으로 이동한다. (14) 교회 마케팅 이론이 발달한다. (15) 민족 통일 이후 세계 중심 국가시대를 대비하여 한국 교회의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⁵⁾

사회변혁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응력 상실과 이상과 같은 교회의 목회 형태 변혁의 당위성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목회 형태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사회를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4)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11.

5) Ibid, 14-15.

를 위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⁶⁾은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겨준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는 본 연구자로 하여금 한국교회 목회 형태에 대한 관심과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했다. 본 연구자가 얻은 결론은 근본적인 문제점은 말씀과 삶의 괴리문제요 그 원인은 바로 교육의 부재라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이런 결론을 내린 데는 우선적으로 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태어나 교회와 함께 삶을 같이하고 목회자로서 직접 목회를 해 나오면서 느낀 뼈저린 경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1990년대에 들어와 질적 양육의 뒷받침이 없는 양적 성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교육보다 더 긴급한 것이 없다는 교회의 건강성(성숙)에 대한 관심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국내외의 학계의 반응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 실천신학 학회의 창립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신학 운동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⁷⁾ 이러한 움직임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인 다원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신학의 컨텍스트가 다극화, 다원화 되면서 기독교 프락시스가 다형식적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더 이상 기존의 교육목회 패러다임이 현실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처럼 계속 새로운 교육목회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을 넘어서 이제는 그 능력을 상실해

6) '패러다임'이란 헬라어 파라디그마(paradigma)에서 기원하며, 실재의 어떤 측면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패턴 또는 지도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패러다임'이란 말의 개념은 한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각의 틀이요 실천적 접근 방법(패턴)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교육목회 패러다임이란 말의 개념은 교육목회 공동체가 교육목회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실천적 틀이요 교육목회를 실행해 가는 접근 방법(패턴)이라 할 수 있다.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에듀민, 2004), 153.

7) 1993년에 국제 실천신학 학회(International Academy of Practical Theology)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창립되었다. 이 국제 실천신학 학회가 추구하는 연구 방향은 첫째, 실천신학은 더 이상 단순한 이론을 응용하거나 실제 기술과 연관된 학문 분야로 간주하지 않는다. 둘째, 실천신학은 단순히 교회의 실천 기능의 차원을 지원하는 '목회를 돕기 위한 신학(목회신학)'이라는 좁은 안목을 넘어서야 한다. 셋째, 실천신학이 지니고 있는 실천적 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학적 성찰을 촉구한다. 넷째, 실천신학은 경험적이며 해석학적인 방법론을 추구한다. 즉 교회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종교적 문화라고 하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교회의 역사 현존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교육목회가 선택해야 할 자기비판과 자기개혁의 소중한 근거와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관해서는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253-262,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61-168을 참고하라.

점점 더 세속화 되어가는 현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일수록 오히려 본 연구자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위해 교육목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최선의 경주를 다해 본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노력 속에서 건강한 교회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그리고 한계

본 논문은 연구자가 기독교교육을 전공하며 10년 동안 섬긴 교육현장의 경험과 교육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직접 개척하여 섬긴 14년 동안의 교육목회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연구자 나름대로의 확신을 기초로 하여 능력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 패러다임의 한 모델로서 새로운 교육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육적 시각에서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을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기존의 교육목회 패러다임을 프락시스 개념을 중심한 교육이론의 관점에서 목회 현장을 분석하고 그 과제가 바로 교육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임을 밝히면서, 교육목회의 이론적 근거를 찾아 새로운 교육목회 패러다임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교육목회의 실재를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살롬교회를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 1장의 서론에 이어 제 2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개념 이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즉, 교회라는 말의 그 의미의 변천과정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개념을 정리하고, 이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교회상을 고찰하면서 신학적으로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을 분석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교육목회의 필요성을 본질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교육목회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해를 정리한 후 한국교회의 기존의 교육목회 패러다임을 프락시스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교육목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육목회와 예수님의 교육목회,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를 고찰하면서 교육목회의 원리를 찾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새로운 교육목회 패러다임으로써 ‘성육신 패러다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목회의 원형으

로서의 성육신의 의미와 특성을 고찰하고 그것을 구조화하여 구체적인 교육목회 패러다임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제 6장에서는 5장에서 제시한 성육신 패러다임 모델을 가지고 본 연구자가 그동안 섬겨왔던 교육목회 현장을 중심으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의 실재를 다루려고 한다.

교육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교육대상, 교육시기 등 교육을 가능케 하는 교육의 기본 틀이 구비가 될 때이다.⁸⁾ 본 연구자는 교육목적과 교육대상, 교육환경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만을 가지고 열정만 앞세워 시작한 불완전한 교육목회를 하려다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경험을 해야만 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목회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그 대상과 환경에 맞는 교육목회 커리큘럼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 그렇다고 목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과 내용(복음)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정석은 “문화는 하나의 형식이지 본질이 아니다. 따라서 본질과 형식을 분리해야 한다. 문화는 계속 성장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 여기서 문화가 본질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본질을 부정하면 문화는 오히려 성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화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성화해야 한다.”라고 했다.⁹⁾

따라서 본 논문은 특정한 장소와 시기에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교육목회를 한 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기에 다양한 환경과 대상을 위한 교육목회 전략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24년 동안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대상과 환경에서 교육목회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얻은 결론은 어떤 대상과 교육환경에서도 이 원리의 적용은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교육목회 원리 가운데 본 연구자가 목회 현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전제하면서 보다 더 폭넓은 교육목회 패러다임의 연구를 계속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8) 손승희, *기독교교육학* (서울: 기독교방송, 1983), 39-42

9) 이정석, “문화와 목회” (강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nter 2002).

제 2 장

건강한 교회의 신학적 성경적 기초

앞장 서론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회의 목회 형태의 변화는 필연적임을 말하면서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사회를 책임질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바로 교육목회임을 밝혔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곧 건강한 교회 개념 이해에 대한 문제이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알자면 교회가 본래 무엇이었느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교회의 원형은 곧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단 하나 자신의 몸인 교회를 남기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개념 이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즉, 교회라는 말의 그 의미의 변천과정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개념을 정리하고, 이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교회상을 고찰하면서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찾아볼 것이다.

제 1 절 교회의 본질과 개념 정의(신학적 기초)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의 일반적인 번역이다.¹⁰⁾ 이 말은 본래 그리스의 시의회를 가리키는 말로 정당하게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의 단어였다.¹¹⁾ 히브리 경전에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에다(עדה)와 카할(קה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히브리 경전의 그리스어 역인 칠십인역(Septuagint, LXX)에서 에다는 주로 쉼나고게(συναγωγή)로 번역되고, 카할은 쉼

10) Eric G. Jay, *교회론의 역사*,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1.

11) ἐκκλησία는 그리스의 시의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말은 그리스어 동사 부른다는 뜻인 καλέω와 불러낸다(소집하다)는 뜻인 ἐκκαλέω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말로서 그리스 문학에서 정당하게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Ibid, 13-14.

나고게(συναγωγή)와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두 단어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²⁾ 이 두 단어의 주된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는 쥘나고게는 장소적인 의미로서 유대인 공동체가 집회를 가졌던 장소인 회당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고, 에클레시아는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¹³⁾ 에클레시아란 단어가 신약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 단어가 한가지의 특정한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교회의 개념을 온전히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회(ἐκκλησία)라는 말의 그 의미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그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찾아 교회라는 용어의 개념을 하나로 정의하고자 한다.

1. 부활의 생명체로서의 교회

예수님께서서는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명령하시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다(요 2:19-22).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음에서 부활하실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교회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삶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엡 1:23; 골 1:18)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 됨이다.¹⁴⁾ 칼빈(John Calvin)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단

12) 예다(πῶς)는 쥘나고게(συναγωγή 회당, 함께 모으다)로 번역되고, 카할(קהל)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예언서들에서는 쥘나고게(συναγωγή)로 번역되고, 신명기, 사사기에서 느헤미야에 이르는 역사서들과 시편에서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로 번역되어 있다. Gerhard Kittle, "ekklesia,"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2), 528-529.

13) Kevin Giles, *신약성경의 교회론*, 홍성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337-352.

14)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한 몸으로 표현한다(엡 1:23; 골 1:18; 고전 12:12-13). 여기서 몸이라는 개념의 두드러진 특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Giles, *신약성경의 교회론*, 161.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의 중요한 특징, 즉 교회의 일치성(엡4:1-16)을 강조한다. John R. W. Stott, *성도들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 전영근 역 (서울: 기독교지혜사, 1986), 179-236.

일성(하나 됨)과 보편성, 그리고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한다.¹⁵⁾ 케빈 길레스(Kevin Giles)는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크리스천끼리도 서로 하나이고, 지상에서의 교회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현임을 당당하게 천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¹⁶⁾ 몸 안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주어진 하나 됨을 강화시키는 각 지체들에 의한 다양한 사역들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하나 됨은 선물인 동시에 계속 성취해야(지켜야) 할 하나의 목표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이다(엡4:3-6).

3.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루터는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으로 정의했다. 이 루터의 정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신교 교회론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¹⁷⁾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로 정의하는 것은 우선 일차적으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도 혹은 조직체와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교회를 제도와 일치시켜 제도적인 카톨릭교회 밖에서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구원이 없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¹⁸⁾ 제 2차 바티칸공의회(1962-65년)에서 이를 수정하여 카톨릭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인정했고 교회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의 백성(성도들의 공동체)으로 정의했다.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정의는 도로테 쾰레(D. Sölle)의 익명의 교회 개념에 의해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¹⁹⁾ 즉, 가난한 형제들이 영접함을 받고 형제간에 사랑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 곳에는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익명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공동체 밖에 존재하는 선한 모임들이 아무리 선하고 귀하다 해도 그 모임을 교회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성경은

15)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하), 이종성 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7-13.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 한 머리에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같이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 Ibid, 10.

16) Giles, *신약성경의 교회론*, 163.

17)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8), 13.

18) 카톨릭 신학자 로버트 벨라르민(R. Bellarmine)은 교회를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카톨릭교회와 일치시켰다. 그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규정했으며, 바로 이 교황에 의해 통치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에만 교회가 있음을 역설했다. Ibid, 13-14.

19) 익명의 교회 개념은 칼 라너(K. Rahner)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과 맥을 같이하는 개념이다. 심상태, *익명의 그리스도인*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5), 129-171.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4 사건과 제도로서의 교회

칼 바르트(K. Barth)는 교회의 본질은 제도나 조직이 아니고 말씀의 사건이라고 정의했다.²¹⁾ 여기 말씀의 사건이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이 만나는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응답하는 그곳에 참 교회가 있다는 의미이다. 에밀 브룬너(E. Brunner)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제도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요 수평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간의 인격적 만남 곧 형제간의 사랑의 사귄다고 했다.²²⁾ 이와 같은 사건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교회를 조직체로 생각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공헌을 남겼으나 무교회주의가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무교회주의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상이라기보다는 제도적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건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호켄다이크(J. C. Hoekendijk)에 의해서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교회는 고정된 장소가 없고 나그네로 존재한다는 의미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²³⁾ 그러나 이러한 사건으로서의 교회 개념은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야기시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신학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건과 제도로서의 교회 개념이다. 사건과 제도로서의 교회 개념이란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사건²⁴⁾인 동시에 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²⁵⁾ 교회의 본질은 분명 성령의 사건이지만 이 성령의 사건으로서의 교회는 신약성서 시대 때부터 제도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행 20:28).²⁶⁾ 이 교회의 제도성은 성령의 사건으로서의

20) 로마 카톨릭교회는 마 16:16-19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를 베드로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교회의 기초요 반석이라는 말이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을 기초로 한다.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69.

21) Ibid, 20.

22) Ibid, 20-21.

23) 호켄다이크는 교회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행위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 도처에 떠돌아다닌다고 보았다. Ibid.

24) 한스 쿵은 교회는 제도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 만들어지는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말했다.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7), 128.

25)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22.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교회의 제도성은 성령의 사건으로서의 교회를 도와주는 구체적인 도구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성령의 필요에 따라 변천되어야 함을 내포한다.²⁷⁾

5.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 제 25조에는 보이는 교회(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무형교회)가 언급되어 있다.²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다수의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가? 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 교회는 보이는 기관이나 조직체로서의 현실적인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임으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상과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택된 무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속에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혼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참 교회에는 거짓 신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부패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²⁹⁾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별은 제도적 교회의 신성화를 방지하고, 제도적 교회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계속 따르는 일에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³⁰⁾ 김명용은 결국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

26) 바울서신 중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의 일치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고, 목회서신에서는 제도화된 교회의 구도와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Giles, *신약성경의 교회론*, 191.

27)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23-24. 칼빈(J. Calvin)은 불가시적 교회를 강조하면서도 점차 가시적 교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가시적 교회로서 참 교회는 말씀과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곳으로 보았다. 그리고 가시적 교회를 신앙의 산출과 성장의 장이요, 성령의 역사의 장이며, 계시의 장으로 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다. 현요한, “칼뱅의 교회론”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1986), 130-134.

28) G. I. Williamson,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신학협회, 1987), 304.

29)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16-17.

30) 멜랑히톤(Melanchton)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보이는 교회인 부름 받은 자의 모임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이 보이는 모임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 선택된 자들이 있으리라는 어떠한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본회퍼(D. Bonhoeffer)는 보이는 교회를 특히 강조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려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고

별은 두 개의 교회라기보다는 동일한 하나의 교회의 두 양태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보이는 교회는 현존하는 구체적 교회를 의미하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이상적 모습 혹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구체적 교회의 개혁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6.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

주후 381년에 제정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³¹⁾ 여기서 먼저 하나 된 교회를 강조한다. 이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위에서 언급한 사도 바울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이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구별하여 선택된 무리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무리이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³²⁾ 또한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는 만민의 교회라는 의미이다. 교회가 만민의 교회라는 것은 구원의 보편성과 만민을 향한 선교의 요청,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³³⁾ 그리고 사도적 교회의 의미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통치하고, 사도들의 정신이 지배하며, 나아가 복음을 위한 사도적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³⁴⁾

특히, 사도적 교회의 의미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은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했다. 로흐만(J. M. Lochman)은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플라톤적 사상 때문에 교회의 세상적 사회 윤리적, 사회 정치적 실존이 하찮은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탄식했다.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18-20.

31) “콘스탄티노플 신조,” 감리넷 검색, 2005년 2월 인용. Online: <http://gamly.net/methodist/381.html>

32)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61-65.

33) Ibid, 65-67.

34) Ibid, 68-72.

예수님은 행위와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³⁵⁾ 교회는 예수님께서 선언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계속하는 성육신 된 몸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의해 건설되어 왔고, 또 건설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육화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다.³⁶⁾

7. 요약 (교회의 본질적 개념과 정의)

이상과 같이 살펴 본 교회의 의미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회의 몇 가지 중요한 본질적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의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성육신 개념이다. 둘째는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발견하게 되는 공동체 개념이다. 셋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 됨의 개념, 그리고 넷째는 교회가 부활의 생명체라는 의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성장의 개념³⁷⁾,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적 교회와 교회의 궁극적 목표의 관점에서 발견하게 되는 선교(종교)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교회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란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이다.”³⁸⁾

35) 고용수,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 *기독교 교육과정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42.

36)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300.

37) 고용수는 성장의 개념을 교육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았다. 더 자세한 것은 본 논문 3장을 참고하라. 고용수, “교육목회의 이론적 기초,” *교육교회*, 1982년 11-12월호, 448. 본 연구자는 성장의 개념은 칼빈(J. Calvin)이 강조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 신앙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38) 이 정의에서 “그리스도적 삶”은 성육신 개념을, “공동체적으로”는 하나 됨의 개념을, “세상

제 2 절 건강한 교회란? (성서적 기초)

본 절에서 다루려는 주제인 건강한 교회의 '건강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교회상'을 의미한다. 앞의 1 절에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 개념 다섯 가지를 언급하면서 교회의 정의를 나름대로 정리해 제시했다. 바른 교회상은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개념들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는 이러한 본질적 개념을 담고 있는 바른 교회상을 제시하는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³⁹⁾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담고 있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본문들을 중심으로 바른 교회상을 고찰하고 나아가 건강한 교회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구약성서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개념의 말을 찾아본다면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중심한 사람들의 모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작은 가족 규모의 모임을 구약 히브리어로는 '벵 아비'(= 아무개의 아비의 집, 보기: 창 12:1)라고 한다. 이 모임보다 조금 큰 규모의 모임으로 '족속'(미쉴파하)을 들 수 있고(창 24:38), 이보다 좀 더 큰 규모의 부족이라는 개념의 집단이 '지파'(셰벵, 말테)로서 사사기 18:19, 여호수아 7:1절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지파들이 모여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민족공동체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은 그 처음 출발이 혈연적이거나 지연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 한데 묶여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다.⁴⁰⁾ 이 밖에도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카할'(회중, 대회)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또한 오늘날의 '국제 사회'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이스라엘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을 통틀어 '고임'(열방 또는 이방)이라고 한다.⁴¹⁾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은 신약성서의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의 의미를 가진 '교회'(에클레시아)에 적

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는 선교의 개념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은 성장의 개념을, 그리고 "삶의 공동체이다"는 공동체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39) 아래에서 소개하는 본문들을 참고하라.

40) 박동현, *예언과 묵회 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12-214.

41) Ibid.

용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한 ‘고임’(열방, 이방)은 신약성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세상’이라는 말과 대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의 기초 위에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을 찾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고임’과의 관계를 구약성경이 어떻게 교훈하는가를 통해서 바른 교회상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제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제사)하는 예배 공동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훈련받는 훈련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오직 순종하는 신중심적 공동체(Theocentric Community)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고임’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은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다.⁴²⁾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온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데 있었고(창 12:3),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감을 보게 된다(창 30:27; 41:37-38; 47:13-26). 특히 창세기 16장과 21장의 하갈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한다.⁴³⁾

이러한 사실은 요나서에서도 볼 수 있다. 이방 백성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명령하신다.⁴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본문은 예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사야 42:1절 이하에는 ‘주의 종’을 이방에 공의를 베풀고, 세상에 공의를 세울 사람으로 소개하고 마침내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42) 박동현, *예언과 묵회 I*, 217-218.

43) 창세기 16장과 21장의 하갈의 이야기에서 사래의 학대로부터 도망한 하갈이 사막의 샘 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16:13).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 브엘세바의 빈들에서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이의 통곡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축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Ibid, 218.

44)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항거하며 죽기를 간구하기까지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 넉줄 비유를 말씀하시며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 이 식물을 네가 것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이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을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욥4:11-12)을 하셨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의식 속에 사로잡혀 이방 사회에 무관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하겠다. Ibid.

예레미야 48:31-39절 말씀은 이방 백성 모압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괴로움에 가슴 아파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모습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히브리말로 이들을 ‘겔’이라 부름)을 잘 돌보며 우대하는 사실이 나타나는데,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 까닭을 지난 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로 이 같은 떠돌이였기 때문이라고 밝힌다(출 22:21; 레 19:34; 신 10:19). 이런 말씀들은 교회가 고임(세상)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임(세상) 안의 교회라는 뜻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하겠다.⁴⁵⁾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구약에 나타난 바른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신앙과 삶을 일치하는 모습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순결성)을 잃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의미이다. 예언자들은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이 일치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사 1:10-17; 렘 7:1-15; 암 5:21-24).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강조한다.

둘째는 강한 연대감으로 하나 됨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여기 강한 연대감이란 ‘나는 곧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곧 나’라는 의식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방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세상을 이루는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을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언제나 개인은 전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박혀있다. 이러한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 이방 세상을 모두 참된 세상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셋째는 약한 사람을 섬기며 돕는 모습이다. 출애굽기 20:24-23:12절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이나 십일조 제도, 그리고 안식일 제도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⁴⁶⁾ 특히 십일조와 안식일 제도는 원래 종교적인 의미를 지녔던 제도들이었으나 점점 사회복지제도로 발전하고 있음은 주지할 사실이라고 하겠다(신 26:12-15; 5:12-15).

2 신약성경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45) 박동현, *예언과 묵회 I*, 218-219.

46) 출 20:24-23:12절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한 내용을 집약한 것이다. 여기에는 종에 대한 자유와 생계보장, 결혼문제, 떠돌이 나그네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돌봄, 그리고 약자들의 권리보호 등 법률적이고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힘없는 약자들을 잘 받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담고 있는 바른 교회상을 제시하는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공동체), 고린도전서 12장(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4장(성장), 사도행전 11장(선교)이 그것이다.

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 사건을 기록한 말씀으로 교회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본문이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과 교회가 중심주제로 성령강림 사건과 그 사건 뒤에 일어난 일들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다.⁴⁷⁾ 본문은 독특한 표현양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각 단락 또는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 성령, 예수, 주님이라는 사실이다.⁴⁸⁾ 이 사실은 성령강림과 그에 이은 모든 사건들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성령 자체라는 사실을 증거 하는 중요한 의미를 말해준다.

본문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도록 하신 일, 둘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게 하여 예수를 믿게 하신 일, 그리고 셋째는 믿는 사람들의 모범적이고도 특징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하신 일이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사실은 성령강림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강림은 곧 교회의 탄생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⁴⁹⁾ 본문을 이렇게 교회의 탄생

47) 박동현은 성령의 오심(1-4), 주변사람들의 반응(5-13), 베드로의 설교(14-36), 베드로 설교의 결과(37-42), 믿는 사람들의 첫 공동체(42-47)로 구분하고 있다. 박동현, *예언과 묵회*, 107-108.

48) 예를 들어 4절: “그러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말하도록 시키는 대로 다른 말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형식상으로는 ‘그들’, 즉 사람들이 주어가 되어 있지만, 그 흐름을 관찰해보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수동태 문장으로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bid, 113-114를 참조하라.

49) 박동현은 성령강림사건을 하나님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자 태어난 사건이라고 말한다. 즉, 교회를 주님의 부탁하신 바를 수행하고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의 관점으로 보고, 오순절 성령강림은 곧 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이라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내리신 사실과 맞먹는 의미를 지니며, 구약에서 성령강림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내리도록 하신 사실과 통한다고 보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막 19-10, 사 3:10, 6:34, 겔11:5, 2:2 말씀을 예로 들고 있다. Ibid, 122-124.

적 관점으로 볼 때,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적 삶을 같이 하는 삶의 공동체라는 것이다.⁵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있고, 같이 쓰고,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아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삶이 초기 교회의 첫 모습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적인 삶이란, 나 혼자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서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모두, 함께, 같이, 한 가지로 단단히 묶여 있음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⁵¹⁾ 이러한 그리스도적 삶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과 같은 분열의 시대에 공동체적인 삶을 자극하고 유도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교훈한다.

둘째는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만을 받는 모습이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각 단락 또는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시라는 독특한 표현 양식을 볼 수 있다.⁵²⁾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도록 시키시는 대로 말했고, 이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와 수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등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주어

50) 공동체(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 됨의 선물이다. 즉, 공동체는 인간의 고안물이나 사회적 회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이다. 이 공동체의 건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꿈이셨다. 그리하여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개인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 됨의 공동체가 하나 됨을 상실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공동체의 창시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공동체(교회)를 세우시기까지 역사를 통해 추구해 오셨고, 그리고 시간의 마지막까지 이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공동체의 본질과 정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 Gilbert Bilezikien, *공동체 101*,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17-56.

51) 박동현, *예언과 묵회* 1, 129.

52) 좀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22절: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36절: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9절: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47절: “주께서 날마다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등이다.

로 하여 설명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교회를 주도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다.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만 주도된다는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이다.⁵³⁾ 이것은 목회가 주님의 목회가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교훈한다.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만 주도된다고 할 때, 성령님 혼자서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러한 성령님의 이끄심만을 받는 교회의 모습은 사람의 수단이 판을 치는 시대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피부로 느끼며 주를 경외함으로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만을 받아 주님의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교훈한다.

셋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선포하는 모습이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었다(행 2:11).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말하기 시작한 베드로의 설교⁵⁴⁾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는 말씀이었다. 사도행전 2:11절의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역사 가운데서 인간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로우신 일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는 내용을 밝히고, 알리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말이다.⁵⁵⁾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결코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내세우거나 사람을 선전하거나 조직을 선전하거나 업적을 선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자랑하며 내세우며 알릴 뿐이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자면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다(행 2:42). 이것은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사람과 조직과 업적이 선전되는 시대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53) 박동현, *예언과 목회 I*, 129.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표현하였다(엡 3:20). 이것은 또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담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이다(대하 20:15-17; 시 46:8-11).

54)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생애, 수난, 죽으심, 다시 사심,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었다(행 2:14-36).

55) 박동현, *예언과 목회 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260.

들을 드러내 보여주며 선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교훈한다.

넷째는 교회가 계속 좋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크게 뉘우치며 세례를 받고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점점 좋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교회가 계속 좋게 달라지는 이 모습은 교회는 늘 개혁해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개혁하는 삶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굳어지고 낡아지는 시대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바른 교회임을 깨닫게 된다.

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고린도전서 12:12-27절 말씀은 고린도교회가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직분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내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다.⁵⁶⁾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위치를 제대로 잘 알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이며 각기 고유한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서로 존중하고 보충하고 돌봐주고, 특히 약한 형제자매들을 보다 귀히 여기는 정신으로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를 추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것을 교훈하고 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할 때, 본문은 앞에서 언급한 교회의 본질적 개념 중 하나 됨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고전 12:12). 왜냐하면 본문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하나 됨, 성도와 성도와의 하나 됨, 그리고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 됨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여 지는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앞에서 케빈 킬러스(Kevin Giles)가

56) 박동현, *예언과 묵회 I*, 150.

풀이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었다. 그의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 됨과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현이란 의미였다. 여기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현이란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본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이 말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2000여 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듯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보고 그분을 듣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이 세상 앞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의미이다.⁵⁷⁾ 이러한 의미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교훈한다.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체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앞에 보이시도록 하는 것이라는 교훈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한 그것이 교회일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다.⁵⁸⁾ 이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 교인들과 사귀게 되면, 어쩐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살아 계시듯 느껴지고, 보여지고, 드러나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깨닫게 된다.

둘째는 지체들이 각각 제 몫을 다하여 한 몸(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습이다. 본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라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몸의 각 지체들이 제각기 그 기능을 다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이 제각기 맡은 지체 노릇을 잘해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도 바울은 각 지체의 역할에 대하여 “그가 혹

57) 박동현, *예언과 묵회 I*, 151.

58) 박동현은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살려주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지만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고 붙들고 계시는 한 이 사실 때문에 현재 우리의 교회가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Ibid, 152-153.

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엡 4:11-16) 라고 교훈했다. 이러한 교훈에 비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제임스 페커(J. I. Packer)는 교회의 각 지체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얼어붙은 백성의 복지부동"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부동자세는 역사적이며 조직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⁵⁹⁾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제 몫을 다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평신도를 깨워야 할 사명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열심히 받으려고만 하는 현실 속에서 헌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각기 맡은 지체 노릇을 잘 하는 교회,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임을 깨닫게 한다.

셋째는 평등한 관계에서 각 지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됨을 이루는 모습이다.⁶⁰⁾ 여기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 됨의 의미이다. 하나 됨의 참된 의미는 첫째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요 섭리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존재라는 의미이다. 둘째로 부분이 전체 속에 존재함으로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조나 조직의 획일적인 하나 됨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문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의 사명은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각기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데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 강조는 곧 하나 됨의 실천적 원리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 즉, 각 지체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인정할 때 하나 됨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각 지체 사이에는 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평등의 원리를 의미하는 말이다.⁶¹⁾ 하나 됨의 실천적 원리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것은

59)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7.

60) 더 자세한 내용은 박동현, *예언과 목회*, 159-160을 참조하라.

61)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2-16 말씀에서 하나 됨의 실천적 원리를 4가지로 말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은 사랑의 실천으로만 가능하다(2절). 둘째: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은 하나님의 일체성에서 비롯된다(3-6절). 셋째: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은 은사의 다양성으로 풍성해진다(7-12절). 넷째: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은 성숙을 필요로 한다(13-16절). Stott, *성도들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 182.

열등감과 우월감이다. 각 지체는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나 소수의 일방적인 독주와 그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의 관계로 일체성이 깨트려진 수많은 교회 속에서 상호 존중과 겸손의 정신 가운데 분담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시켜 다양성 속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넷째는 약한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기는 모습이다. 본문 22절은 우리 몸 가운데 다른 부분보다 힘없이 보이는 부분, 못나 보이는 부분이 사실에 있어서는 꼭 있어야 할 부분이요, 그 부분이 없이는 우리 몸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셨다. 약한 지체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흘러내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정신이다.⁶²⁾ 기능주의, 실적주의, 개인주의, 분파주의, 개 교회주의, 민족주의 등 적자생존의 경쟁사회 속에서 힘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도우며 귀중히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다.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교회가 생명체로서 유기적 공동체라 할 때 교회는 반드시 성장과 결실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그것은 생명체의 의미는 성장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분명 죽은 교회이다. 죽어 가는 교회나 죽은 교회의 특징은 그 속에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교회의 생명력은 곧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장의 올바른 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본문 에베소서 4:15-16절 말씀은 교회의 본질적인 개념 가운데 성장의 개념을 잘 나타내 주는 본문이다. 이 본문에서 얻게 되는 성장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다.⁶³⁾ 이 본문 속에서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리 다섯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⁶⁴⁾ 이 성장 원리를 따라 성장하는 교회가 곧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

62) 박동현, *예언과 묵회 I*, 161.

63) Ibid, 176.

64) 박동현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면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언하며,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힘을 얻어 자라는 다섯 가지 성장원리를 제시한다. 박동현, *예언과 묵회 II*, 169-170.

첫째 원리는 성장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그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13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15절).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강조는 곧 성장은 결코 소유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존재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⁶⁵⁾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될 때 가능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자의 인격이 될 때 가능한 것이다.

둘째 원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는 것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에서 ‘범사’라는 말이 곧 모든 면에서 라는 의미이다. 교회마다 그 형편에 따라 이러저러한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아 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만 커지고 그 정신과 행동이 따르지 못하거나, 매우 똑똑한데 그 몸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몸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자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라는 의미는 목적과 방향에 관련된 것이고 나아가 커리큘럼에 관계되는 것이다.⁶⁶⁾ 릭 워렌(Rick Warren)은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⁶⁷⁾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교회의 목적(전도, 예배, 교제, 제자훈련, 사역)을 뽑아낸 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목적에 균형을 맞추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⁶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도 건강한 교회에 꼭 필요한 8 가지 질적 특성⁶⁹⁾(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을 말하면서, 이 8 가지 질적 특성 중 최소치 요소에 의해 교회의 건강상태가 결정된다고 말한다.⁷⁰⁾

65) 박선희, *내게 말씀을 주소서* (서울: 계몽문화사, 1996), 247.

66) 마리아 해리스는 커리큘럼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 신앙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전체의 삶의 특징들이 커리큘럼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6.

67) 두 가지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말씀(마 22:36-40)과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의 말씀이다.

68) Rick Warren, *새들백 교회 이야기*, 김현회,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디모데, 1997), 120-173.

69)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은 6대주 32개 나라 1000교회를 1994-1996년까지 교회성장 원인을 조사 분석해 얻은 자료에 의한 것이다.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22-36.

70) 그는 최소치 원리를 통해 교회가 모든 면에서 자랄 것을 강조하고 있다. Ibid, 49-60.

셋째 원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이 말은 오직 사랑을 교회 성장의 근본전략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자란다는 의미는 내가 그 사람을 따르고 닮기를 바라며 내가 그 사람의 뜻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오직 내가 완전히 부정된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란다.⁷¹⁾ 사랑 안에서라는 의미는 곧 십자가 정신을 의미한다. 십자가 정신은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다. 사랑 안에서의 성장은 성장의 본질을 지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넷째 원리는 진리를 삶으로 증언하며 자라는 것이다.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다. 이 말은 삶으로써 진리를 증언한다, 참되게 산다는 의미를 가진 단 하나로 된 동사의 우리말 번역이다.⁷²⁾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에 바르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교회, 진리를 삶으로써 보여주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한다.⁷³⁾ 교회는 진리의 지붕이며 그 진리를 받쳐주는 기둥이다. 나는 정당한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 격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객관적인 틀의 역할을 하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 객관적인 진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다섯째 원리는 성장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본문 16절에서 “그에게서 ...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모든 면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증언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힘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밝히는 말씀이다. 사람의 온갖 수단이 판을 치는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힘을 얻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임을 깨닫게 된다.

라.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바른 교회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71) 박동현은 사랑으로, 또는 사랑을 잃지 않으며 자라는 교회로 보았다. 박동현, *예언과 묵회 I*, 186.

72) 박동현, *예언과 묵회 II*, 268.

73)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했다(약 5:19).

사십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행 1:3).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보여준다. 제자들이 민족의 회복을 꿈꾸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 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므로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처음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님이 원하셨던 증인된 삶을 살았다.⁷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절에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행 1:1)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 승천 후에도 성령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설명하고자 붓을 들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증인된 삶을 산 제자들의 삶의 보고서라기보다, 사도행전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행적과 가르침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는 말이다.⁷⁵⁾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선교) 공동체이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선교가 의미하는 것은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다.⁷⁶⁾ 이 사실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 사건(행 8:1)

74) 행 8:12; 14:22; 20:24-25; 28:23절을 참고하라.

75) Campbell G. Morgan, *사도행전 강해*, 이용복, 조계광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9), 7-13.

76) David J. Bosch, *선교신학*,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7), 287-291.

과 사마리아 선교 사역(행 8:4)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⁷⁷⁾ 선교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새로운 차원이다. 무엇보다도 이 관심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관심인 것이다.

본문 사도행전 11:19-30절 말씀은 초기 교회의 선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앞에서 고찰한 교회의 본질적 개념 중 선교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증인 공동체의 진정한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증인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교회를 깨닫게 된다.

첫 번째 모습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은 모습이다.⁷⁸⁾ 안디옥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다.⁷⁹⁾ 그런데 이 말은 안디옥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예수 도당, 예수쟁이들, 예수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붙여준 별명이다.⁸⁰⁾ 처음에는 비방의 의미로 붙여진 별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수치와 치욕의

77) 사도행전 8:4절의 “흩어진 사람들”에서 ‘흩어졌다’는 말은 단순히 산산조각이 나서 못쓰게 된 상태로 흩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 흩어졌다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동작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친히 복음의 씨앗 된 성도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뿌리셨다는 의미다. 사도행전 8:1절 말씀(…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이 이를 반영한다. 윤덕수, *성령의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9), 186.

78) 수리아 안디옥 도시 동쪽 4km 지점에는 실피우스(Mt. Silpius)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수많은 동굴이 연결되어 있다(이 산 중턱에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다). 허리를 굽히고 겨우 들어 갈 수 있는 통로의 입구와 지금도 다 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길이의 비밀 동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산 이름을 지금도 ‘하비브 나자르’라고 부르는데, 뜻은 묵수(예수)를 사랑하는 자의 산이란 의미이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바뀌었는데도 그 산의 지명을 지금도 하비브 나자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는지를 깨닫게 된다. 홍정길,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4), 58.

79)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헬라어는 Χριστιανος, 영어로는 Christian이다. 영어의 Christian은 Christ에 어미 -ian 이 붙어서 된 합성어이다. 어미 -ian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뜻은 ‘무엇 무엇에 속해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 점차 보편화 되어 2세기 초에는 신자들 측에서 받아들여 공식적 명칭이 되었다. 이상근, *신약주해 사도행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5), 179.

80) William Barclay, *사도행전*, 정혁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1), 128.

십자가를 부활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었듯이 안디옥 교회는 이 별명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성별된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소유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⁸¹⁾

두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이다(행 11:19-20).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온다.⁸²⁾ 그런데 이 세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모두 고난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항상 고난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⁸³⁾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증인된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세 번째 모습은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흉년이 들어 모두가 식량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해 부조해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함으로 복음을 삶으로 실천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나누어 가질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사회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터전이요, 사회는 교회가 자리 잡고 일해야 하는 일터이다. 지역사회 속의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책임지며 봉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네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다.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교회 지도자로 세우려 할 때, 사울의 핍박을 받아 흩어짐을 당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몹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나바의 지도력에 온전히 순종했다. 특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명령은 안디옥 교회

81)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8),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라고 말했으며,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보이심으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한다(벧전 2:20-21).

82) 행 11:19-30; 26:28; 벧전 4:16.

83)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낯선 곳으로 갔을 때 그들의 가장 우선적인 일은 그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열중했다. 이것은 곧 복음 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의미이다.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이다.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훌륭한 참된 목자를 원한다. 가장 존경하고 아끼는 위대한 목회자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다.⁸⁴⁾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같이 기쁨으로 순종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한 감격의 첫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게 된다.

마. 요약 : 건강한 교회의 개념 정의

이상과 같이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담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을 개념별로 분석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건강한 교회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교회 2)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만을 받는 교회 3)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선포하는 교회 4)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5)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여 지는 교회 6)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교회 7) 다양성 속에서 일치룰 이루는 교회 8) 언제나 약한 것을 더욱 귀히 여기는 교회 9) 그리스도를 목표로 항상 성장하는 교회 10) 어느 특징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교회 11) 무엇보다도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와 원동력이 되는 교회 12) 진리를 삶으로 증언하며 성장하는 교회 13)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 14)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증인된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교회 15) 지역사회 속의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책임지며 봉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 16)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은 모두 앞에서 고찰한 교회의 본질적 개념인 성육신 개념, 공동체 개념, 하나 됨의 개념, 성장의 개념, 그리고 선교적 개념을 모두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⁵⁾ 이런 의미로 볼 때 건강한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84) 바나바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보았다(행4:37). 그는 권위자요 위로자(행 4:36)로서 마음이 착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행 11:24)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었다(행 11:23). 특히, 그는 사람을 세우고(행 11:25) 격려하고 돕는 일에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으며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목회자로 위대한 선교사로 일생을 살았다. John Salon, *탁월한 헬퍼 바나바*, 마영례 역 (서울: 가이드포스트, 2002), 79-122.

85)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담은 의미들을 찾아 개념별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성육신 개념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적 삶,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구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적 삶에 이르도록 계발하여, 이러한 삶을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이다.”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 그리스도를 목표로 함, 사랑이 기초가 됨, 주님의 명령 등이다. 둘째로 공동체 개념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삶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함, 다양성, 약한 것을 더욱 귀히 여김,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사회를 책임지며 봉사함 등이다. 셋째로 하나 됨의 개념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공동체적으로 드러냄,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함,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룸,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람, 모든 면에서 자람 등이다. 넷째로 성장의 개념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 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 항상 자라남 등이다. 그리고 선교의 개념을 담은 것으로는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선포함, 드러내 보여 짐, 약한 것을 더욱 귀히 여김, 진리를 삶으로 증언함, 십자가의 길을 걸음, 증인된 삶을 최우선순위에 둠, 지역사회를 책임지며 봉사함,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 등이다.

제 3 장

한국교회 교육목회 현장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과 과제

본 논문의 논지는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사회를 책임질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러한 건강한 교회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바로 교육목회라는 것이며, 이 교육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건강한 교회 개념 이해의 문제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왜 교육목회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 제 1절에서는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을 분석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교육목회의 필요성을 본질적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 2절에서는 한국교회의 교육목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육목회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목회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프락시스 개념을 고찰하면서 프락시스를 중심한 교육목회의 의미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제 3절에서는 한국교회의 기존의 교육목회 패러다임을 프락시스 개념을 중심한 교육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과 과제

1.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과 문제점

이성희는 한국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을 ‘물결’이라는 용어로 4단계로 구분하였다.⁸⁶⁾ 그에 의하면 제 1의 물결은 1950년대까지 한국 기독교의 전래사와 함께 주

86)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63-170.

로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목회형태라 할 수 있다. 제 2의 물결은 1959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80년 중반까지를 잡는다. 제 2의 물결은 물질주의와 인간 우월에 그 뿌리를 두어 경쟁, 자기보존, 소비 등을 강조함으로 이로 인한 역기능으로 개교회주의, 목회자의 윤리 부재, 그리스도교 물질주의, 사회와의 유리 등을 낳게 되었으며, 이런 경쟁과 분립의 시대인 한국 교회 제2의 물결의 시대에는 분열과 경쟁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제 3의 물결은 1980년 후반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까지로 잡는다. 제 3의 물결은 균형과 연결을 강조하며 교단간의 협력과 통합의 모색이 활발해지며 연합과 일치를 위한 움직임과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 장로교회 교단간의 연합과 일치, 장로교 협의회를 통한 연합 운동, NCC를 비롯한 연합 운동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 개신교와 천주교의 대화 모색 등 연합과 일치가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다. 그리고 제 4의 물결은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제4의 물결이란 하나의 공동 창조를 기조로 한다. 이러한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구분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개신교계의 현상적 흐름으로 본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을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개신교계의 현상적 흐름으로 구분한 그는 성장학적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을 목회자의 헌신적인 수고, 구역조직과 심방목회, 교회성장이론의 확대, 사회정치적 상황, 좋은 교회와 좋은 선교사, 말씀에 대한 열정, 개신교 전래의 적절한 시기, 네비우스 선교정책과 지역분할, 대형화와 중심지향의 심리, 전통문화와의 조화(농경문화, 새벽기도), 전통신앙과의 조화(기도원운동), 그리고 한국인의 성품론(강인한 성품)을 들고 있다.⁸⁷⁾

이원규도 한국교회의 성장원인을 매우 수용적인 종교문화 요인과 1960년대 이후 크게 확산되었던 부흥운동, 성령운동, 신유운동, 교회 프로그램의 개발(성경연구, 각종 기도모임, 친교활동) 등의 교회적 요인과 정치부재의 상황과 반공, 안보, 성장 이데올로기, 인권탄압, 정치 억압 등의 정치 상황적 요인 등 공통된 의견을 말한다.⁸⁸⁾ 이러한 목회 패러다임의 구분과 성장요인들에 대한 성찰은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객관화 할 수 있는 성찰이라 여겨진다.

87)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29-47.

88) 이원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교회성장론에 대한 임상적 평가," *목회와 신학*, 1993년 5월호, 41-44.

본 연구자는 이러한 목회 패러다임 흐름을 기초로 하면서 목회자의 자녀로 50년대부터 현재까지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태어나서 교회와 함께 삶을 같이 하고 직접 목회를 해 나오면서 나름대로 보고 느낀 한국교회의 특징적인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을 목회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아울러 한국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의 문제점과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본 연구자가 느끼고 본 한국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은 1950년대까지인 제1의 물결 시대에는 주로 선교사들이 주도한 목회형태로 주로 사회봉사와 계몽적인 성격을 띠었다 하겠다. 제2의 물결은 1974년 엑스폴로 74를 전후하여 60년대는 부흥회를 중심한 목회 패러다임이 중심을 이루었고, 엑스폴로 이후에는 성령운동을, 그리고 80년대 초반에는 성경공부를 중심한 목회 패러다임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본다. 80년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찬양사역이 활기를 띠면서 찬양을 중심한 목회 패러다임이 중심을 이루다가 90년에 들어와서는 영성을 강조하는 영성목회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고, 90년 후반과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예배의 갱신과 함께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기법과 현대 문화를 접목시킨 예배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과 셀을 중심한 목회 패러다임, 그리고 최근에는 신은사 운동을 중심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⁸⁹⁾

물론 이러한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은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목회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심방목회, 주일 저녁예배, 새벽, 수요일, 금요일 밤에 이루어지는 기도회를 중심한 목회 패러다임,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목회패러다임에 비하면 미비한 것이다. 마치 거대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에 비유될 만큼 아직도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 성장의 둔화로 인한 교회성장에 갈증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소개될 때마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자신의 목회 현장에 그것을 바로 적용을 함으로써 순진한 성도들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실험용 대상이 되면서 시행착오의 아픔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육한흠은 지난 30여 년간 양적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한국교회가 자초한 후유증으로 삼허현상(三虛現象)을 말한다. 그가 말하는 삼허현상이란 허수(虛數), 허세(虛

89) 신은사 운동에 관해서는 홍인식,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교회”를 참조하라. Online: http://theology.or.kr/mal/26's/26_treatise_hong.html

勢), 허상(虛像)이다.⁹⁰⁾ 그에 의하면 허수는 통계에 정직하지 못함을 말하고, 허세는 교인 수에 비해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며, 허상은 성도가 신앙과 삶의 괴리문제로 불신자와 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가 지적한 대로 실재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기란 너무나 어렵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무엇이 없는 현실이다. 그가 이런 삼허현상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강조하는 것은 바로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평신도 제자훈련이라는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박상진은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교회교육의 침체와 무기력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양적 감소와 함께 교육의 질적인 문제로서 교회교육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교회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식 구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공동체적 관계 구조에로의 전환, 문화 접촉점 상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육신 원리를 통한 타문화권의 선교적 접근, 분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생교육의 교육구조로 전환,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지원체제 확립 등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⁹¹⁾

2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교육목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면서 그들의 삶은 온전히 '애굽화'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 시킨 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덮을 것, 거처할 곳 등 그 무엇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애굽과 철저히 단절시킨 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신 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학교는 그 무엇 하나도 없는 현실이었지만 애굽과 철저히 단절한 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던 하나님의 학교였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면 현실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는 삭막한 또 다른 광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광야학교⁹²⁾라 할 수 있다. 교회

9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26-28.

91) 박상진, "한국교회를 말한다," *기독교공보*, 2005년 1월 15일자.

92) 행 7:38절에는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온다. 광야교회는 애굽에서 나와 모세의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신약의 교회의 예표이다.

를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광야학교라 할 때, 교회에서는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철저한 그리스도적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목회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육목회라는 것이다.

고용수는 “교육목회의 필요성은 교회의 본질적인 차원과 기능적 차원(목회적 기능과 선교적 기능) 입장에서 대두되는 현실적 요청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 즉 교회의 본질면, 목회적 기능, 선교적 사명 수행의 과제 앞에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교육공동체의 성격을 띤 교육목회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야 할 것을 강조했다.⁹³⁾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 차원, 목회적 기능, 선교적 기능은 본 논문 2장에서 밝힌 교회의 다섯 가지 본질적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⁹⁴⁾ 이것은 그가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 차원은 성육신 개념, 성장의 개념⁹⁵⁾과 상응하는 것이며, 목회적 기능은 공동체의 개념, 하나 됨의 개념과 상응하고, 선교적 기능은 곧 증인(선교)의 개념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 교수가 말한 “교회의 본질면, 목회적 기능, 선교적 사명 수행의 과제”라는 말은 곧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이라는 의미와 같은 말이 된다. 결국 그가 위에서 언급한 말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교육공동체의 성격을 띤 교육목회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실로 급변하는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고용수는 교육목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수위를 높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팎의 역사적 현실을 감안할 때 교회의 우선적 사업 중 교육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여기서 실패하는 교회는 그 선교의 핵심과 사명을 등한시한 결과가 될 것이고, 교육적 기능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불가결한 요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만다.⁹⁶⁾

93) 고용수, “교육목회의 이론적 기초,” *교육교회*, 1982년 11-12월호, 448-450.

94) Ibid.

95) 고용수는 특히 교회의 본질적 개념인 ‘성장’의 개념을 ‘교육’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았다. 그가 성장의 개념을 교육의 개념으로 바라본 이유는 “생명체라면 성장을 향해 변화해 가기 마련이다. 바람직한 건강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의 배려가 필수적이라면, 생명체로서의 교회 이해는 곧 교육이 교회의 본질에 속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bid, 448.

96) Ibid, 450-451.

이처럼 교육목회는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회의 본질적 차원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목회란 무엇인가? 교육목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먼저 한국교회의 교육목회에 대한 개념 이해를 살펴보자.

제 2 절 한국교회의 교육목회 용어 사용의 문제점과 개념 정의

1. 한국교회와 교육목회

교육목회라는 용어가 한국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초반으로 여겨진다.⁹⁷⁾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도 익스플로(Explo) '74를 경험하면서 성령운동과 더불어 세계 선교사상 유래 없는 고도의 양적 성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교회가 급격한 양적 부흥을 가져오게 되자 “질적 양육의 뒷받침이 없는 양적 부흥이란 극단의 경우 교회와 그가 속한 사회를 도리어 위험 속으로 몰고 가는 암적 요소가 될 수 있다”⁹⁸⁾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교회의 우선적 사업 중 교육보다 더 긴급한 것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긴급성은 교회의 건강성, 즉 성숙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⁹⁹⁾

이러한 성숙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성인교육의 중요성의 대두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의 교육구조는 이분화 된 구조현상을 보여 왔다.¹⁰⁰⁾ 이분화 된 구조현상이란 성인은 목회의 대상이고, 어린이나 청소년은 교육의 대상이라는 구조를 말한다. 성인은 주로 담임목사나 전임 사역자에 의해 구역을 통한 예배와 교육, 성경 공부 등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을 중심한 목회 사역이 중심이 되었고, 어린이나 청

97) 교육목회라는 용어는 급격한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성숙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오인택, “교육목회의 시대를 열자,” *교육교회*, 1982년 11-12월호, 447.

98) 고용수, “교육목회의 이론적 기초,” 450.

99)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는 1983년부터 총회 교육주제를 성숙한 교회와 역사교육(83), 성숙한 교회와 도덕교육(84), 성숙한 교회와 교육목회(85), 성숙한 교회와 영성훈련(86), 성숙한 교회와 영적성장(87), 성숙한 교회와 평화교육(88), 성숙한 교회와 통일교육(89) 등 성숙한 교회 시리즈로 교육주제를 삼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성숙한 교회와 통일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9), 314.

100)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4.

소년, 청년들은 교육목사나 교육전도사,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학교(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예배와 교육, 행사 등 교육적 사역이 중심을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회의 이분화 된 구조현상 가운데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학교 중심의 교육적 사역을 기독교교육이라는 용어로 개념화 해 왔으며, 교육목회라는 용어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에 관심을 둔 목회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¹⁰¹⁾

그동안 기존에 사용되어 온 기독교교육이란 용어는 그동안 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그 개념 정의에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기독교교육을 지칭하는 용어조차도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¹⁰²⁾ 1960년 초반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러 한국교회 내에 하나의 보통명사화 하여 통용하기에 이른 교육목회라는 용어도 아직은 그 개념 정의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시도된 것들도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해 그 개념 정의가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¹⁰³⁾

이렇게 한국교회의 이분화 구조현상 속에서 기독교교육이란 용어와 교육목회란 용어가 성도들에게 통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박봉수는 기독교교육이란 용어와 교육목회란 용어는 목회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구별된다고 말하면서 현장론적 측면과 과정론적 측면에서 이 두 용어가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¹⁰⁴⁾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기독교교육과 교육목회라는 용어에서 교

101) 박봉수는 교육목회라는 용어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목회 프로그램 중의 교육적 사역을 교육목회라는 용어로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고 말한다.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4.

102) 기독교교육을 지칭하는 용어가 1960년대를 기준하여 이전에는 신학의 유형에 따라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기독교교육으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종교교육이란 용어로 사용되다가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다시 기독교교육이란 용어로 바뀌어 통일성을 이루었지만, 1960년 이후에는 이전 시기의 유형을 따른 기독교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한편, 학자들 나름대로 기존 유형 내의 용어들이 담지 못하는 의미들을 수용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기독교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더욱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러셀(Letty M. Russell)의 기독교교육, 웨스트호프(John, H. Westerhoff III)의 카테키시스(catechesis), 리의(James M. Lee) 종교교수(Religious Instruction), 그리고 그룸(Thomas H. Groom)의 기독교적 종교교육(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등이다. Ibid, 12-15.

103) Ibid, 4.

104) 현장론적 측면에서 기독교교육은 단지 교회만을 장으로 하지 않고, 피교육자가 삶의 영역으로 삼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 나아가 세계 전체를 교육의 장으로 삼게 되며 이러한 다양한 장들의 상호 협력적 보완 또는 유대관계가 강조되는 반면, 교육목회는 일차적인 관심을 교

육과 목회를 이분화 함으로써 그 어느 하나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 안의 이분화 구조현상과 교육과 목회의 이분화를 떠나 교육목회를 프락시스(praxis) 개념¹⁰⁵⁾으로 보는 것이 개념이해를 더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교육목회 개념 이해

교육목회라는 용어는 교육이란 개념과 목회란 개념 두 가지가 합하여 새로운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된 말이다. 따라서 이 용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 목회라는 용어의 의미를 각각 파악하고 나아가 교육목회라는 용어를 기독교 프락시스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교육목회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교육(Education)

‘교육’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심신의 모든 성능을 발육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미치는 영향, 곧 피교육자의 지식, 이해, 태도를 기르고 생활을 발전시키며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의 육성과정”¹⁰⁶⁾으로 되어 있다. 동양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敎育’이라는 말은 敎와 育의 합성어로서 그 의미는 “외부로부터 가르쳐 줌을 통해서, 그리고 내부로부터 내면적 가능성을 살려서 성장발달하게 함을 통해 인간이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는 작업”이라는 의미이다.¹⁰⁷⁾ 서양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Education’은 라틴어의 educatio를

회라는 신앙공동체에 두며, 이 신앙공동체의 관점에서 가정, 학교, 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정론적 측면에서 기독교교육은 인간의 변형과 형성에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기만 하면 커리큘럼, 교육방법, 교육의 과정 등에서 폭넓은 시도를 할 수 있는 반면, 교육목회는 목회가 본질상 섬김의 행위가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는 관점에서 커리큘럼, 교육방법,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6-17.

105) 프락시스(praxis)에 관한 개념은 본장 2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106)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76), 305.

107) 중국의 가장 오래된 자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敎는 孝(모방한다는 의미)와 攴(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채찍을 가해 가르친다는 의미)자의 합성문자로 어른이 채찍을 들고 강제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어른의 행동을 무조건 모방하게 하거나 가르침을 수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인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育은 자(子)와 육(肉)의 결합으로 이것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아이를 어머니가 따뜻한 젖가슴에 안을 뜻한다. 이것은 내면적인 가능성의 자연적인 성장에 대한 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을 기른다는 뜻이다.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9-20.

어원으로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양육(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일)과 훈련(가르쳐 심어주는 것)의 과정을 통하여 피교육자를 보다 나은 바람직한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작업을 의미한다.¹⁰⁸⁾ 어원적으로 볼 때, 교육은 이처럼 끌어내는 의미와 채워주는 의미의 이원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원적 관점에서 교육은 학습자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어 그것을 훈련과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작업이다.

교육에 대한 정의는 교육을 정의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의 개념 정의를 보편화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교육철학자들은 이 점에 동의하면서 교육의 개념 정의를 보편화하려는 작업 대신, 교육이라는 개념 속에 보편적인 속성을 찾는 시도를 해왔다.¹⁰⁹⁾

피터스(R. S. Peters)는 교육이라는 개념 속에 공통적인 개념적 요소로서 규범적 요소, 인지적 요소, 과정적 요소를 말한다. 즉, 규범적 요소로서 교육은 가치로운 것의 전달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지적 요소로서 교육은 지식과 이해, 지적 안목의 형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과정적 요소로서 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의지나 권리,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는 것이다.¹¹⁰⁾

밀러(Donald E. miller)는 “교육이란 경험이 많은 안내자들이나 공동체 전체에 의해 도움을 받아 진실한 것에 대해 보다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되는 자발적인 과정이다.”라고 정의한다.¹¹¹⁾ 이 정의에는 교육이 의도적이고 상호적이며, 자발적이고 계속되는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중요한 개념적 요소를 담고 있다.

박봉수는 “교육이란 채워 줌과 이끌어 냄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성향을 변화시키는 인간 행위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도성, 가치 지향성,

108) educatio의 동사형 educere는 사용되는 부정법에 따라 두 개의 완전히 대립되는 뜻으로 나뉜다. 부정법 educere에 의할 때는 educere가 ‘끌어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교육은 사람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을 끌어내도록 돕는 일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부정법 educare에 의할 때는 educare는 ‘가르쳐 머리에 들게 하다, 또는 어떤 특정한 틀에 박아 형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교육은 모범적인 인간상을 닮도록 어린이를 형성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Online: <http://100.daum.net/DIC/detail?id=1107620&sname=교육&ty=1>

109)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22.

110) R. S. Peters,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andd Unwin, 1966), 45.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22에서 재인용.

111) Donald E. miller, *기독교교육개론*, 고용수, 장종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32.

인간 변화성, 상호 작용성이라는 개념적 특성을 갖는다.”라고 말했다.¹¹²⁾

고용수는 교육을 “인간의 전인적 관심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의도적 행위”¹¹³⁾ 라고 말한다. 여기 인간의 전인적 관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방향은 곧 교육목적론의 영역으로서 가치를 의미하고, 변화는 의도적 행위의 변화를 말한다. 그리고 변화를 유도한다는 의미는 자발성과 인격적 상호 작용성, 그리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의미이다. 따라서 이 정의에서는 교육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 개념 요소가 의도성, 가치 지향성, 변화성, 인격적 상호 작용성, 그리고 과정성 등이다.¹¹⁴⁾

이상과 같이 교육이라는 개념 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개념적 요소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의도성, 가치 지향성, 변화성, 상호 작용성, 그리고 과정성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 본 어원적 차원의 교육의 의미와 함께 교육의 본질적 개념 요소를 포함하여 나름대로 교육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란 인간이 가진 성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이끌기 위한 의도적 행위의 과정이다”

나. 목회(Ministry)

목회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개신교 안에서 생겨나 주로 사용되어 온 낱말로서 현재 한국교회에서 보통명사화 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¹¹⁵⁾ 목회라는 말은 영어의 Ministry를 번역한 것으로 이 낱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사목(司牧), 교역(敎役), 사역(使役)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112) 의도성이란 곧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함을 의미하고, 가치 지향성이란 교육의 규범성과 도덕적 책임성의 논의를 의미하며, 인간 변화성이란 인간 성향(신념, 가치관, 지식, 경험 행동 성경 신앙 등을 포괄하는 말)의 의도적 행위의 변화 추구를 의미하고, 나아가 상호 작용성이란 의도성의 주체로서 교육자 또는 교육공동체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여기 상호작용이란 인격적 만남을 바탕으로 한 상호교감, 연대의식, 관심과 배려, 가치의 공유, 존경과 사랑의 느낌 등과 같은 심리적 교류가 일어나는 관계를 의미한다. 박봉수, *교육 목회의 이해*, 23-26.

113) 고용수, “기독교교육사상사” (강의, 장로회신학대학, 2학기, 1984).

114) C. Melchert는 *The Concept of Education*에서 교육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되는 6 가지 기본개념(요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an intentional activity 2) value 3) knowing and understanding in depth and breadth 4) time 5) interpersonal interaction 6) wholeness. Ibid.

115) 박동현, *예언과 목회 I*, 52.

있고 그 의미도 조금씩 다르다.¹¹⁶⁾ 이러한 사실은 목회라는 용어가 한국교회에서 보통 명사화 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목회란 무엇인가? 라는 목회의 본질적 개념 정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회란 ‘칠 목(牧)’과 ‘모일 회(會)’의 두 한자가 한 데 합쳐서 된 말로 “모임을 친다.”는 뜻이다. 여기 ‘친다’는 것은 본래 짐승을 먹이고 돌보는 것을 의미하고, ‘모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개 교회)를 의미한다.¹¹⁷⁾ 이런 의미에서 목회는 사람이 짐승을 치듯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이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회의 사전적 의미는 목회의 본질적 개념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 목회의 본질적 개념을 이해하려면 목회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본질적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목회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목회의 본질적 의미를 찾으려 할 때,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개념을 고찰함으로 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목회가 교회를 치는 일, 교인들을 먹이는 일이라 할 때 이는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개념과 상응하며, 특히 목회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요 10:10).¹¹⁸⁾

목자라는 말은 유목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말이다. 히브리 낱말에서 목자는 일단 짐승을 먹이는 사람, 즉 양치기란 뜻인데, 구약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과 임금,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로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¹⁹⁾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목자시라고 할 때는 주로 하나님은 인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116) 사목(司牧)은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목회의 사제직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교역(敎役)은 목회 실천의 가르치는 기능을 강조한 표현으로서 주로 말씀의 사역을 강조해 온 교회의 전통 속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그리고 목회자나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들과 연결시키지 않고 단지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사역(使役)이라는 용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26-27.

117) 박동현, *예언과 목회 I*, 52.

118) 성경에서 목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의 목회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나 고대 세계에서 말하는 목자는 종교지도자들이나 성직자들에 대한 호칭이라기보다 일반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호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목자였던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위정자들을 목자라고 불렀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이끄는 목회자도 목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Ibid, 53-54.

119) 박동현, *예언과 목회 I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457-458.

시며(시 23:1), 인간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임금이나 다른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할 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임금에게 백성을 잘 보살펴주고 이끌 무거운 책임을 맡길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목회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 즉, 목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목회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인간이 행하는 목회는 사람들을 친히 보살피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회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목회의 본질에 관한 교훈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요한복음 10:10-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나 말씀’(εγω ειμι 내가이다 / I am)이다. 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¹²⁰⁾ 예수님은 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이며 그 계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지식을 얻게 해서 구원 곧 생명을 얻게 하는 분임을 타나낸다.

박동현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0:10-18절 말씀 속에서 바른 목회의 원리를 뽑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바른 목회란 첫째, 예수님만을 목자로 모시는 목회다. 둘째, 예수님의 뜻을 좇아 하는 목회다. 셋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돌보는 목회다. 넷째, 모든 교회를 그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과 하나 되는 목회다. 다섯째, 교인들만 돌보는 목회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쓰는 목회다.¹²¹⁾

이상의 다섯 가지 바른 목회 원리 속에서 목회의 본질적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목회의 뿌리(근원)는 하나님의 목회, 즉 예수님의 목회이다. 둘째, 그러므로 목회는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요 주님의 목회에 참여하는 삶이다. 셋째, 목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참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난다. 넷째, 목회는 철저히 공동체성과 일치성을 띤다. 다섯째, 목회의 장(場)은 곧 세상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상 속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목회의 본질적 요소들은 앞장 2장에서 고찰한 교회의 본질적 개념들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120)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강해로 되어 있고, 그 강해들은 ‘내가 이다’라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2001), 59-61.

121) 박동현, *예언과 목회Ⅲ*, 464-465.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 자신이 곧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목회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의 목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적 삶의 양식이라는 사실이다.

목회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목회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으리라 본다. “목회란 주님의 목회에 공동체적으로 참여하여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다.”

다. 교육목회(Education Ministry)

이제 교육과 목회라는 두 용어가 한 데 어우러져 된 말인 교육목회의 개념을 살펴보자. 교육목회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들을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한 가지 예가 교육목회를 목회라는 틀에서 이해하려는 특징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 이해 방법은 결국 목회와 교육목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로 보는 경우, 또는 교육목회가 목회의 하나의 하위 기능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교육목회는 목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고, 목회를 수행해 가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보는 경우 등과 같은 목회와 교육목회와의 관계성의 생각을 낳게 한다.¹²²⁾

또 하나의 특징을 든다면 교육목회를 기독교적 교육이라는 틀에서 이해하려는 특징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교육기관으로 교육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전적인 손아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활동 자체가 곧 교육이다.”¹²³⁾라는 교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다. 오인택은 교육은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일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교육의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교육교회라는 말의 의미를 “교육의 교회, 교육하는 교회, 교육을 통하여 성장하는 교회를 의미한다.”¹²⁴⁾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교육을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마땅한 사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면서 교육교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의 기본권인 복음교육과 언제나 남을 위하여 있는 교회인 봉사교육, 항상 개혁하는 교회로서의 비판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백

122)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33-34.

123) 오인택, “교육교회라는 말의 의미,” *교육교회*, 1981년 9월호, 177.

124) Ibid.

성 전체로서의 통합교육을 중심과제로 삼고, 교회 전 구성원이(어린이, 젊은이, 어른 모두가 합하여) 개교회 전체를 교육의 대상이요 주체로 보면서 이러한 교회의 이해를 심화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교육교회이다.¹²⁵⁾

이와 같이 교육목회를 교육교회의 개념의 틀로 이해하려는 경향은 교육목회가 교육을 수행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론처럼 여기게 될 우려를 낳게 되어 교육과 교육목회와의 관계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위의 두 가지 이해 방법은 결국 교육과 목회와 교육목회와의 사이를 이분화 하는 관계적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화 된 관계적 이미지로부터 떠나 교육목회를 기독교 프락시스(christian praxis) 개념으로 보는 것이 개념이해를 더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본다.

(1) 프락시스(praxis)

기독교 프락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락시스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래 프락시스는 헬라어 동사 ‘프라쑈’(πρασσω)로부터 왔다. 이 말은 ‘내가 성취한다’, ‘내가 행한다’, ‘내가 어떤 활동을 수행한다’라는 뜻을 가졌었다.¹²⁶⁾

역사적(철학적) 관점에서 프락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의 ‘앎의 세 가지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앎의 방법, 즉 ‘테오리아’(theroia), ‘프락시스’(praxis), ‘포이에시스’(poiesis)를 말하는데¹²⁷⁾ 그는 프락시스를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목적적이고 성찰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이 행동에 의하여 앎은 사회적 상황에 참여함을 통하여 생기며, 이것은 언제나 서로 분리되지 않는 행동과 성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¹²⁸⁾ 그는 포이에시스(생산적인 삶)와 프락시스(실천적

125) 오인택, “교육교회라는 말의 의미,” *교육교회*, 1982년 3월호, 112.

126) Richard Bernstein, *Praxis and Action*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1),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69에서 재인용.

127) 테오리아는 관상적, 성찰적, 비참여적 과정에 의한 진리탐구를 의미하며, 프락시스는 실행적인 삶으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성찰적인 참여를 통한 진리탐구를 의미하고, 그리고 포이에시스는 만듦 속에서 구체화되고 그리고 만듦으로부터 얻게 되는 앎을 말한다. Aristoteles, *The Works of Aristotele Translated into English*, 145-147, T.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3), 227에서 재인용.

128)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229.

인 삶)는 테오리아(사변적인 삶)를 가능케 하며, 프락시스는 테오리아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말하면서, 포이에시스와 프락시스, 그리고 테오리아 이 세 삶 가운데 테오리아를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보았다.¹²⁹⁾ 이러한 프락시스 이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결국 프락시스와 테오리아 사이의 이분화가 심화되었고, 테오리아가 프락시스보다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프락시스 개념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¹³⁰⁾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모든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경험을 떠나서는 어떤 실재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관점을 거부하면서, 정신을 그것이 경험하는 대상과 더불어 무언가 역할을 수행하는 적극적인 실체로 보았다.¹³¹⁾ 그는 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식을 감각에 의해 주어진 경험을 이성의 능력에 의해 통일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천이성비판'에서 실천이성은 욕구 이상을 뛰어넘고 행동의 결과를 초월해서 도덕법칙을 지켜간다고 보았다.¹³²⁾ 결국 칸트는 인식을 인간의 순수이성의 능력의 결과로,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인간의 실천이성의 능력의 결과로 파악함으로써 인식과 인간 행동 모두를 인간 이성의 주관적 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칸트의 프락시스 이해는 객관성과 주관성, 이론과 실제, 과학과 윤리의 이분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계몽주의적 인간행동을 수행해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¹³³⁾

헤겔(George W. F. Hegel, 1770-1831)에게 있어서 프락시스 이해는 Geist(정신)를 기초로 한다. 그에게 있어서 프락시스는 Geist의 프락시스이다.¹³⁴⁾ 그는 프락시스

129)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232-234.

130)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프락시스는 본질에 대한 명상이나 존재의 근원과 무관한 개념이 되었고, 단지 실생활에서 생산적인 활동과 연관된 성찰이 없는 단순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70.

131)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71.

132)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71.

133)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72-73.

134) 헤겔에게 있어서 Geist는 추상적 초월적 지혜가 아니라 섭리에 의하여 세상을 인도하는 무한하고 활동적인 이성이며, 자기 자신을 세계 속에서 활성화 하는 이성을 의미한다. 그는 Geist의 자기-실현적인 활동을 설명하면서 Geist의 본질 자체는 행동이며 이 행동은 Geist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립하는 어렵고도 무한한 변증법적 투쟁의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Geist의 자기 주도적 활동에 의하여 보다 높은 활성화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Geist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섭리에 의해 인도되고 강화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결국 역사 내에서의 인간의 성찰적, 의도적 행동을 프락시스에 포함시키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243-244.

와 테오리아의 이분화를 거부하고 프락시스와 테오리아를 근본적으로 합일체로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앎을 삶의 실천에 대한 의식으로 이해하고 그 의식은 곧 Geist의 실천에 대한 의식이라고 말하면서 실천에 대한 의식이 Geist의 실천에 대한 의식 그 이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헤겔의 프락시스 이해는 결국 프락시스가 세상에서의 자기 주도적인 활동적, 성찰적 참여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테오리아적인 앎의 방법이 된다.¹³⁵⁾

마르크스(Karl H. Marx 1818-1883)는 헤겔의 Geist를 거절하고 그 자리에 인류를 대입한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프락시스는 Geist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관계 가운데 있는 인류이다. 역사 안에 있는 움직이는 힘은 신적 섭리가 아니라 인간성의 자기-구성적인 노동이다.¹³⁶⁾ 그는 프락시스를 인간 존재의 자기-주도적이고, 자기-창조적인 활동으로 보고, 이 활동은 의도적, 성찰적이며 사회적 현실을 변형시켜 인간 해방을 지향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론은 프락시스로부터 생기는 의식의 표명일 뿐이며, 그것은 장래의 프락시스에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변증법적 합일에 의해 환원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유물론적 프락시스는 인류를 자신의 노동의 생산품들에 제한시킴으로써 모든 초월성과 초월성의 원천인 하나님을 강탈해 버린다.¹³⁷⁾

매킨타이어(Alasdair McIntyre)는 프락시스를 사회적으로 형성된 협동적 인간 활동의 복잡하고 응집된 형식이라고 정의한다.¹³⁸⁾ 그의 프락시스 이해는 비판적 성찰로 영감 되어진 창조적 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의 삶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적이고 역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¹³⁹⁾

이렇게 역사적(철학적) 으로 프락시스 개념에 대한 이해의 흐름을 고찰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테오리아와 프락시스 사이의 이분화와 객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참여적이지 않은 경향에서 점점 이분화를 극복하고, 인격적이며, 공동체적이며 참여적이며 성찰적인 경향으로 프락시스의 의미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135)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243-244.

136) Ibid, 248.

137) Ibid, 250-251.

138) Alasdair McIntyre, *After Virtue* (Notre Dame : University of Norte Dame Press, 1981), 187.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73에서 재인용.

139) 협동적이라는 말은 프락시스가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며, 역사적이라는 말은 프락시스가 지속되어 온 역사적 과정 안에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기독교 프락시스(christian praxis)

기독교 프락시스는 기독교 공동체 내의 독특한 프락시스를 의미한다. 여기 기독교 공동체란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프락시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¹⁴⁰⁾ 다시 말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프락시스의 결과로 생겨났고, 하나님의 프락시스의 대행자로 부름 받았으며, 이를 대행자로서 수행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결국 기독교 프락시스란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응답이요, 이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참여를 말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프락시스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프락시스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드러내시는 존재 및 행동의 구체적인 양식을 말한다.¹⁴¹⁾ 여기서 하나님의 프락시스에서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이 하나로 통합되어 인간이 피조세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락시스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처럼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뜻을 피조세계에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프락시스이다.

우리는 앞에서 프락시스가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성찰적이고 참여적인 활동을 확인했다. 그리고 기독교 프락시스가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응답이요, 이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참여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우리 모두는 철저히 기독교 프락시스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기독교 프락시스로 응답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앞의 방법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밝혀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앎(야다 *yad*)이란 객관적인 증명의 요소보다는 경험(*experience*)에 의한 발견(*detecting*), 느낌(*feeling*) 또는 배움(*learning*)의 요소가 중시되고 있

140) James Fowler, *Weaving the New Creation* (New York : Harper Collins, 1991), 25.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73-174에서 재인용.

141) Fowler, *Weaving the New Creation*, 25.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74에서 재인용.

으며, 마음에만 관련되는 활동이 아닌 전 인격이 관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¹⁴²⁾ 다시 말하면 앎이란 활력 있는 경험 속에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참여함으로 생기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요구를 아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요구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⁴³⁾ 이스라엘의 지식의 결여는 이론적인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하며,¹⁴⁴⁾ 무지는 죄악과 동의어이다.¹⁴⁵⁾ 그러므로 히브리적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앎은 활력 있는 경험에서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이다.¹⁴⁶⁾

블트만은 공관복음에서의 여호와에 대한 앎의 의미를 고찰한 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 그 뜻의 인정, 그 뜻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⁴⁷⁾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앎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응답하는 앎은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울은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하므로 모든 일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 온갖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기를 바란다.”(골 1:12)라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아가페에 근거를 둔 동적이고 경험적이며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응답하는 앎이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요구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를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⁴⁸⁾

142) G. Kittl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 Vds, 1982 th, s.v. “γινώσκειν”, 696-701.

143)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210.

144) 렘 10:25; 31:34; 신 11:2; 사 41:20; 호 11:3

145) Kittle, “γινώσκειν”, 698.

146)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212.

147) Ibid.

148)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요일 4:8)는 확고한 생각을 품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요일 4:11; 요 13:34; 15:12)라고 말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통한 응답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복종하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요일 2:3), “범죄 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요일 3:6;


이와 같이 성경적 압의 방법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기독교 프락시스의 의미는 전인격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랑이 담긴 복종이라는 활력 있는 응답 속에서 그 표현이 발견되는 동적이고 경험적이며 관계적 활동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독교 프락시스의 의미는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히 드러난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프락시스를 가장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이 하나로 통합되어 피조세계에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러면서도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이 전혀 손상 받지 않는 방식으로 더욱 분명히,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사건이다.¹⁴⁹⁾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프락시스를 가장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이라 할 때,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기독교 프락시스는 마땅히 성육신적 응답이 되어야 한다.

성육신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철저히 인격적이며, 공동체적이며, 참여적이며, 상상적이며, 의도적이며, 지속적이고, 그리고 하나 됨과 낮아짐과 충만함과 선교적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¹⁵⁰⁾

(3) 교육목회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교육목회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과 목회라는 용어의 의미와 그 본질적 개념을 각각 살핀 후, 교육목회라는 용어를 기독교 프락시스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 일반 프락시스 개념을 역사적(철학적)으로 고찰하고, 이어서 기독교 프락시스 개념을 성경적 압의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독교 프락시스의 의미가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분명히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한

23-5)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말한다. 특히,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모두 현재로써 계속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현재부정사인 'πιστεύειν'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πιστεύειν'의 동의어로서 γινώσκειν을 56회나 사용하고 있다. γινώσκειν은 히브리어 에 해당하는 단어로 인격적인 이해와 결합을 뜻하는 단어이다. 박창환 외, *신약성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293, *I.D.B.*, 32.

149) Brian Hebblethwaite, *The Incarnation: Collected Essays in Christ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21,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237에서 재인용.

150) 성육신의 특성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5장 2절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곳을 참조하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이라는 개념 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개념적 요소들은 의도성, 가치 지향성, 변화성, 상호 작용성, 그리고 과정성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기본적 개념 요소를 포함한 교육의 의미를 정리하면 “교육이란 인간이 가진 성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이끌기 위한 의도적 행위의 과정이다.”

둘째, 목회의 본질적인 뿌리(근원)는 하나님의 목회(주님의 목회)이다. 그러므로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요, 하나님의 목회에 참여하는 것이 목회 사역이다. 주님의 목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참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며, 철저히 공동체성과 일치성을 띤다. 그리고 목회의 장(場)은 곧 세상이다. 이러한 목회의 본질적 개념 요소를 포함한 목회의 의미를 정리하면 “목회란 주님의 목회에 공동체적으로 참여하여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다.”

셋째, 프락시스는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성찰적이고 참여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기독교 프락시스는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응답이요, 이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참여이다.

넷째, 성경적 압의 방법을 통해 나타난 기독교 프락시스의 의미는 인격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랑이 담긴 복종이라는 활력 있는 응답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적이고 경험적이며 관계적인 활동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프락시스를 가장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동은 곧 성육신 사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기독교 프락시스는 마땅히 성육신적 응답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철저히 인격적이며, 공동체적이며, 참여적이며, 상상적이고, 그리고 하나 됨과 낮아짐과 충만함과 선교적, 지속적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이상과 같이 정리된 내용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 프락시스가 교회의 본질적 개념인 성육신, 하나 됨, 공동체, 성장(교육), 선교의 개념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육목회를 기독교 프락시스 개념으로 이해하려 할 때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결코 간과 할 수 없다는 중요한 인식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목회는 성육신적이어야 하고, 하나 됨이어야 하며, 공동체적이

야 하고, 교육적이어야 하며, 나아가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기독교 프락시스 개념으로 교육목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목회는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성육신적 응답의 삶이다. 따라서 교육목회는 기독교 공동체의 한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삶 자체이다.

둘째, 교육목회는 목회의 한 유형이 아니라 목회의 원형으로서 본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목회의 원형인 하나님의 목회와 주님의 목회가 본질적으로 교육목회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¹⁵¹⁾

셋째, 교육목회는 본질적으로 주님(3위 일체 하나님을 의미)의 목회이며,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향한 목회이다. 그것은 성육신적 응답의 삶으로서의 교육목회는 비움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 받고, 그것을 다시 나눔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목회의 중심은 십자가이다. 여기 십자가는 하나 됨의 완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됨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삶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일시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셨다.

다섯째, 교육목회는 공동체적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의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창조된 공동체가 깨어지고 파괴되자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다시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성육신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적 삶을 함께 하는 삶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공동체이다. 모든 삶은 공동체에 뿌리박혀 있다. 따라서 성육신적 응답으로서의 삶인 교육목회는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목회는 선교적이다. 인간성의 본질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채움에 있다면, 신성의 본질은 자신의 충만함에서 내어줌에 있다.¹⁵²⁾ 자신을 비움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로 자신을 충만케 채우신다(요 1:14). 이렇게

151) 목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회와 예수님의 목회가 본질적으로 교육목회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다음 장인 제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으므로 4장을 참고하라.

152) 김세윤, *빌립보서강해* (서울: 두란노, 2004), 99.

은혜와 진리로 자신을 가득 채우신 예수님은 다시 채우신 그 충만을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또다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다(요 1:16). 비우고 채우고 다시 비우는 순환의 반복이 성육신이 담고 있는 선교적 의미이다. 따라서 성육신적 응답으로서의 삶인 교육목회는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교육목회에 대한 이해는 목회의 원형인 하나님의 교육목회와 예수님의 교육목회를 고찰하고 나아가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심화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교육목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육목회와 예수님의 교육목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를 고찰하면서 교육목회의 원리를 찾아 교육목회의 의미를 넓혀가고자 한다.

제 3 절 기존의 교육목회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과 과제

교육 이론의 관점에서 기존의 교육목회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학교-교수형 패러다임(schooling-instructional paradigm), 제자화 패러다임(discipleship paradigm), 신앙-문화화 패러다임(faith-enculturation paradigm), 회중화 패러다임(congregation paradigm), 선교 패러다임(mission paradigm), 성육화 패러다임 등을 들 수 있다.¹⁵³⁾

1. 학교-교수형 패러다임(schooling-instructional paradigm)

학교-교수형 패러다임은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교육목회 현장을 지배해 온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은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 형태의 제한된 학교식 체계(Schooling system)를 교육목회의 장으로 하고, 수업이라는 방법을 통해 교육목회를 수행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 패러다임은 오늘날의 컨텍스트 하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¹⁵⁴⁾

웨스트호프 III(John H. Westerhoff III)는 교육목회가 이렇게 학교 형태의 컨텍스트 안에서 수업이라는 방법으로 진행될 때, 교육목회자들의 관심을 교수, 학습 진행, 자료 개발 등에만 묶어 놓게 되어서 지식 전달 외의 여러 가능성으로부터 격리시

153)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9-12.

154)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81.

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결국 교육목회는 지식전달에만 치우쳐 포괄적인 신앙교육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한다.¹⁵⁵⁾ 넬슨(C. Ellis Nelson)은 학교식 패러다임의 교육목회는 회중의 삶과 단절된 상태에서 경건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지만 결코 신앙을 가르칠 수 없다는 점과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들에 의해 전담되는 지도력의 문제를 비판한다. 그리고 로렌스 리처즈(Lawrence, O. Richards)는 학교식 패러다임이 인간의 지적인 차원에 목표를 두고 단지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인간이 지적인 차원 외에도 육체, 정서, 사회,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교육에 이런 차원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과 같이 학자들의 비판을 요약 정리하면 학교-교수형 패러다임의 교육목회는 포괄적 신앙을 갖지 못하고, 말씀과 삶의 괴리문제와 함께 신앙공동체 분리 현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¹⁵⁶⁾ 학자들이 비판한 대로 실제로 한국교회는 지적인 면에 치중됨으로써 삶으로서의 신앙의 여러 측면을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이 포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괴리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나아가 교회학교가 부별 학년별, 그리고 학급별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신앙공동체 분리 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2 제자화 패러다임(discipleship paradigm)¹⁵⁷⁾

제자화 패러다임은 개인의 성장(변화)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유기체적 성장목표에 초점을 둔다. 제자화 패러다임은 교회 바깥의 구조 변화에 관심을 언급하지 않고 개인의 변화에 일차적 초점을 두며, 교회의 의미를 신자 개인을 양육하는 기능(제자화)에 두고 있다.¹⁵⁸⁾ 그리고 '생명'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특징으

155)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81-182.

156) Ibid, 183.

157)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종래의 학교-교수형 교회학교 중심의 교육구조가 지닌 한계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공동체를 교육구조로 하는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앙공동체 중심 교육이론이 등장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학교식 교실 수업형태에 기초한 주일 교회학교 중심의 교육구조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성경적 교회론에 기초한 새로운 기독교교육이론이 소개되었는데 그 대표자가 로렌스 리처즈(Lawrence, O. Richards)다. 그는 개인의 신앙양육에 초점을 '그리스도의 몸'의 구조 안에 두고 제자화 이론을 체계화하고 있다. 교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87-88.

로 보고, 교육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화로서 최종적인 생산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¹⁵⁹⁾ 특히, 제자화 패러다임은 모델화(modeling)를 사회화 과정의 중심으로 보는데, 이 모델화는 전체 공동체의 기능이 상호적인 사역으로 확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학교식 패러다임의 교육목회를 거부한데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수는 제자화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지적한다.¹⁶⁰⁾ 첫째, 교회 바깥의 구조 변화에의 관심을 언급하지 않고 변화의 관심을 개인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사역과 관련해서 그것은 신앙과 삶을 둘러싼 상호작용적인 환경일 뿐,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¹⁶¹⁾ 둘째, 교회를 제화화를 목표로 한 기능적 교회관으로 지나치게 단순화 시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기적 공동체라는 교회 이해를 기초로 하지만, 교회의 의미를 신자 개인을 양육하는 기능(제자화)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¹⁶²⁾ 셋째, 실제적인 교육상황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안이 없다는 점이다. 제자화 패러다임이 제자화 달성을 위해 사회화 이론을 기본 틀로 하고 있지만 복음주의 입장에 근거한 제자화 패러다임의 사회화는 기존 질서의 수용과 적용, 그리고 변형을 설명하거나 가능케 하는 데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자화 패러다임에서도 성도의 신앙과 삶의 과리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남게 됨을 볼 수 있다.¹⁶³⁾

3. 신앙-문화화 패러다임(faith-enculturation paradigm)

신앙-문화화 패러다임은 '신앙공동체'를 교육목회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컨텍스트와 내용 그리고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다.¹⁶⁴⁾ 이 패러다임의 핵심은 '신앙'인데, 이

158) 리처즈(Lawrence, O. Richards)의 경우, 집단적 존재로서의 기능적 교회관은 교회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입장 표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교회의 관심은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91-92.

159) Ibid, 93-95.

160) Ibid, 117-120.

161) Ibid, 118.

162) Ibid, 118-119.

163) Ibid, 118-120.

164) 신앙-문화화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학자는 존 웨스트호프 III(John, H. Westerhoff III)이다. 그는 그동안 학교-교수형 패러다임에 의한 교회학교 중심의 교육이 기독교교육을 희생시

신앙의 내용은 곧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이다.¹⁶⁵⁾ 그리고 이 신앙(그리스도적 삶의 스타일)의 형성은 신앙공동체의 전체 삶을 통해서 가능해 진다. 따라서 이 패러다임은 개인들과 그룹을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앙공동체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¹⁶⁶⁾ 여기서 말하는 신앙공동체는 교회와 동일시된 개념이 아니다. 교회가 진정한 신앙공동체가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다.¹⁶⁷⁾ 특히, 이 패러다임은 '사회화'를 교육의 중심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란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가는 구성원으로 형성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¹⁶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어떤 내용의 전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심어주는 생활양식과 태도와 행동이다. 결국 이 패러다임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교육목회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이 초점을 삼는 것은 신앙공동체의 '역동적인 힘'이다.¹⁶⁹⁾

신앙-문화화 패러다임이 교육목회의 관심의 초점을 교회학교에 제한시키지 않고 교회의 전 생활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숨겨진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의 영향을 크게 인식한 점,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생활의 자연스런 상호 작용을 통해 기독교적

켰고, 세속 교육 안에 기독교교육을 감금시켰다고 말하면서, 기독교교육의 컨텍스트를 넓혀서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시키고, 신앙공동체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을 배우는 신앙 문화화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125-127.

165) 여기서 신앙은 인격적이고 역동적이며, 신앙공동체에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전인적인 참여 속에 전 생애에 걸쳐서 경험된 신앙, 귀속적 신앙, 탐구적 신앙, 고백적 신앙으로 연계적 단계를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이 신앙의 내용을 인류학적인 표현으로 세계관이요 가치체계라 한다. Ibid, 128-136.

166) Ibid, 128.

167) 교회는 복음의 전통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도록 부름 받은 눈에 보이는 역사적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변혁시키시는데 쓰이는 능력의 도구요 역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계속적인 계시를 증거하는 숨겨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67-68. 여기서 말하는 신앙공동체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 크기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미(목적)의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여야 하며, 최소한 3세대가 공존하며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하고, 나아가 각 세대가 지닌 다양한 역할과 기능 모두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 공동체이다.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Faith Christia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52-54.

168)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140-141

169) 신앙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활발한 교제가 개개인의 신앙을 형성시켜 주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사회학이나 문화 인류학 등의 언어로 종교사회학(Religious Socialization) 또는 신앙-문화화라고 개념화 했다.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63-64.

삶의 스타일 형성에 초점을 둔 점, 그리고 신앙공동체가 지닌 역동적인 힘의 본성을 조명해 준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문화화 패러다임도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첫째는 신앙-문화화 패러다임의 교육적 접근의 가능성 문제이다. 이 패러다임은 신앙-문화화 과정에서 공동체의 경험, 그 공동체의 경험 속에 다시 전달되는 이야기의 경험 등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의 모든 경험들을 교육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경험 자체가 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을 위해서는 경험의 재구성, 재조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앙-문화화 과정에서는 재구성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둘째는 신앙공동체 내의 문제 극복과 변형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신앙공동체 중심 패러다임이 내 세우는 사회화, 문화화 개념은 신앙공동체 내의 전통과 가치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문화 수정이나 문화 변혁의 기능을 수용하지 않은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신앙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의 문제점이다. 즉,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사회화는 제도화, 합리화, 세속화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¹⁷⁰⁾ 여기서 제도화를 무시하거나 세속화를 간과할 수 없다.

4 회중화 패러다임(congregation paradigm)¹⁷¹⁾

회중화 패러다임의 교육목회는 회중, 혹은 신앙공동체가 지닌 역동적인 힘을 강조하면서 신앙은 신앙공동체(회중)에 의해 전달이 가능하고 그 신앙이 주는 의미는 신자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전되며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의 관련 속에서 발전된다고 보면서 교육목회는 회중 중심이요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

170) 오데아(T. F. O'dea)는 신앙공동체 내에서도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의 변동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면서 이와 같은 변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크게 세 가지(제도화, 합리화, 세속화)로 설명하고 있다. 고용수, *현대 기독교 교육 사상*, 141.

171) 회중화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학자는 엘리스 넬슨(C. Ellis Nelson)이다. 이 패러다임 역시 1970년대 웨스트호프와 함께 학교-교수형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등장한 신앙공동체 중심의 교육목회 가운데 회중 중심의 교육론을 강조하는 교육목회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첫째, 기술 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교육기재의 사용과 새로운 교육과정 이론인 체제접근(경영에 있어 최대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 대중을 집단화 하고, 또 집단화된 구성원들의 활동을 하나의 조직으로 다루게 되는 원리)의 등장, 그리고 둘째는 공교육의 변화로서 당시 공교육이 주로 교실수업에만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는 현대사회가 조직화됨에 따라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인식 때문이다. Ibid, 155-156.

조한다.¹⁷²⁾ 교육목회가 회중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은 신앙공동체에서의 참여를 통해 역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신앙 형성은 공동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⁷³⁾ 회중화 패러다임의 중요한 관심은 바로 신앙 전달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¹⁷⁴⁾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이며, 이 관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재개념화 되는 비판적 견해를 포함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의미한다.¹⁷⁵⁾ 이러한 신앙은 회중을 통하여 형성되어지며 변형되어진다. 그래서 회중화 패러다임은 회중이 지닌 가치와 능력을 바로 알고, 회중 형성과 변형을 향해 회중 스스로가 지닌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과정을 발전시키는 일이 교회가 수행해야 할 교육의 과제로 본다.¹⁷⁶⁾ 특히, 회중의 전 생활이 가르치는 기능을 수용하게 되고, 회중에 속한 멤버 전체가 가르치는 책임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연령, 성별, 계층간의 차이에 구별을 두지 않고 모두 학습자로 가정한다. 따라서 회중의 삶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 되며, 이 교육은 일생 중 특정 기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일평생의 과정이다. 그리고 교육의 장소는 회중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장소가 된다.¹⁷⁷⁾

이러한 회중화 교육목회 패러다임은 성서냐? 삶이냐? 라는 이분현상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점,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교육적 사명을 일깨워 준 점과, 특히 대형화 성장 추세로 치닫고 있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회중성 상

172)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통되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들은 각기 고유한 사건 속에서의 경험과 집단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회중은 개인적 또는 공동의 삶을 가진 존재로 회중의 삶은 신앙 전달의 통로이며, 회중은 곧 신앙전달 기관이다. 회중은 신앙의 뿌리로서 자발적 단체로서 신앙을 전달하며 변형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하나의 실체를 의미한다.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164-178.

173) Ibid, 164.

174) 여기서 신앙전달은 곧 문화전달과 맥을 같이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문화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bid, 161.

175) Ibid, 163.

176) Ibid, 187.

177) Ibid, 188.

실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회중화 패러다임은 공동체 내에서의 의도적인 교육목회가 어떻게 사회화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으며 그러면서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화의 영향들을 정정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교육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불분명하다.¹⁷⁸⁾ 따라서 회중화 패러다임은 이 같은 사회화 이론 자체가 가지는 제한성으로 인해 신앙의 형성과 신앙의 변형 과정에서 더 많은 의도적 초점과 비평적 성찰이 요청된다.¹⁷⁹⁾

5. 선교 패러다임(mission paradigm)¹⁸⁰⁾

선교 패러다임은 교회가 제도화 되면서 선교는 교회확장의 수단이 된 것¹⁸¹⁾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¹⁸²⁾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인 세계와 교회생활의 새로운 구조의 필요성의 전망으로부터 시작된 선교교육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목회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은 교회를 증인공동체(선교공동체)로 이해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고 사람들에게 참 인간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증인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교회의 본질로 보고 있다. 이 패러다임의 교육 목적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

178) Groom, *기독교적 종교교육*, 195.

179) Ibid, 231.

180) 선교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학자는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이다. 러셀은 기독교교육이 교회의 소유물과 같이 되어서 교회의 제도 보존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창고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기독교교육이 교회의 사유물화가 되어 지배층에 봉사해 온 지금까지의 잘못을 변혁시키려는 것이 선교교육이라고 말한다. Letty M. Russell, *기독교교육의 새전망*,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22.

181) 1955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종교전쟁이 끝나고 아우구스부르크(Augusburg)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마다 제 종교를 가진다'는 원칙에서 선교는 두 교회들의 확장 수단이 되었다.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 교회의 우주적 권위를 대표했고 그 세계성의 상징이기에 선교가 교황의 세계적 권한 확장의 도구가 되었다. 개신교도 17세기 이후 유럽의 식민지주의와 함께 선교가 교회확장의 도구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 C. Hoekendijk, *풀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12-15.를 참조하라.

182)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논의는 1952년 독일 빌링겐(Willingen)에서 열린 국제선교대회 제 5차 총회에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논의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선교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오인택 외,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247.

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힘 있게 일해 오시는 일체의 활동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이다.¹⁸³⁾ 이 축하는 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자유의 축하잔치인 예배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대한 자유의 축하잔치인 봉사하는 삶이다. 교육목회의 장은 세계와 증인공동체이며, 교육목회의 구조는 대화이며, 방법은 참여(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코이노니아를 의미한다)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선교 패러다임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 참 인간을 회복시키는 자유의 행위, 즉 살롬을 이 땅 위에 구현해 가는 기독교 프락시스라 할 수 있다.

6. 성육화 패러다임¹⁸⁴⁾

성육화 패러다임은 '나눔의 실천'(shared praxis)을 중심으로 한 해석학적 접근(hermeneutical approach)의 교육목회 패러다임이다. 성육화 패러다임의 초점은 과거로부터 전수된 신앙의 내용을 현재와 미래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하는가? 즉, 신앙과 삶, 내용과 경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어떻게 조화 있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느냐이다.¹⁸⁵⁾

이를 위해 성육화 패러다임은 shared praxis를 기본 원리로 사용한다. 성육화 패러다임의 핵심을 이루는 shared praxis는 현재의 행동, 비판적 성찰, 대화, 기독교 이야기(text), 기독교의 비전, 그리고 현재의 변증법적 해석이라는 구성요소를 가진다.¹⁸⁶⁾ 이러한 구성요소를 가진 shared praxis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목회는 다섯 가지 행동¹⁸⁷⁾, 즉 현재의 행동에 대한 진술, 학습자들의 이야기와 비전들, 성경말씀의 이

183) Russell, *기독교교육의 새전망*, 178.

184) 성육화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이다.

185)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220.

186) Groom, *기독교적 종교교육*, 267-290.

187) 다섯 가지 행동은 첫째, 현재의 행동에 대한 진술: 이 행동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심주제에 응답하여 그들 자신의 현재 행동을 명명하도록 하기 위한 초청이다. 이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의 진술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 진술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둘째, 학습자들의 이야기와 비전들: 이것은 모든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되고 있는 중심주제와 관련 하에서 왜 그와 같이 행동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한 비평적 성찰적 행동이다. 현재의 행동에 관하여 그 행동의 기원과 원칙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성경말씀의 이야기와 비전들: 이것은 성경

이야기와 비전들, 성경말씀의 이야기와 학습자들의 이야기 사이의 변증법적인 해석, 성경말씀의 비전들(메시지)과 학습자들의 비전들 사이의 변증법적인 해석 등 다섯 가지 행동의 관현악적 순서¹⁸⁸⁾의 과정을 거쳐 결국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도록 인도한다.

이러한 성육화 패러다임은 대화적 권지에서 현재를 과거와 연결할 뿐 아니라 미래로의 보다 적극적인 개방을 위한 방법으로 비판적 성찰을 크게 중시하고 교육목회의 하나의 대화적 모델로 내놓게 된 것이다. 성육화 패러다임의 변증법적 인식론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비전에 인간을 접근시키고 인간의 이야기들과 비전들의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서 의식의 변형을 시도한다.¹⁸⁹⁾ 이렇게 해서 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육화’(成肉化)이다.¹⁹⁰⁾ 이 성육화 과정에서 전체 신앙공동체가 참여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역동적 참여자가 되고, 역사적 전통과 함께 사회적인 전통이 함께 하는 상호 작용의 경험이 강조된다. 이러한 성육화 패러다임은 결국 역사적 전통, 현재의 경험, 그리고 미래의 희망의 상

말씀의 이야기와 비전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는 행동을 말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대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적인 방법은 단순히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시된 것에 대하여 성찰하고 파악하고 질문하고 개별적으로 만나도록 초대하는 개방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특히 대화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위한 조건이요 관계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의 이야기와 소망을 제시하는 사람은 충분한 말씀의 연구와 함께 충분한 원천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대화의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이다. 넷째, 성경말씀의 이야기와 학습자들의 이야기 사이의 변증법적인 해석: 성경말씀의 이야기는 학습자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학습자들의 이야기는 성경말씀의 이야기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즉, 학습자들의 이야기에 비추어 성경말씀의 이야기를 비평하고, 성경말씀의 이야기에 비추어 학습자들의 이야기를 비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성경말씀의 이야기는 언제나 긍정과 격려, 치유와 정화의 원천으로 학습자들에게 임한다. 다섯째, 성경말씀의 비전들(메시지)과 학습자들의 비전들 사이의 변증법적인 해석: 개인 또는 그룹의 현재행동이 어떻게 하면 성경말씀의 소망(메시지)에 대하여 창조적인가? 비창조적인가? 그리고 개인 또는 그룹은 앞으로 그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를 묻는 행동이다. 즉 신앙의 응답, 신앙적인 실천을 선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신앙의 응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방관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응답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신앙의 여행에 있어서는 모두 함께 가는 순례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Groom, *기독교적 종교교육*, 298-326.

188) 여기서 말하는 ‘관현악적인 순서’란 폐쇄적인 단 하나의 순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순서를 의미한다.

189)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232.

190) Ibid.

호 작용을 통한 창조적인 신앙을 추구함에 있어 앞에서 고찰한 여러 교육목회의 패러다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대안적 교육목회 패러다임으로 평가된다.¹⁹¹⁾

7. 요약과 과제

이상과 같이 기존의 교육목회 패러다임을 교육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기존의 교육목회 패러다임들이 이론과 실천, 성서와 생활, 전통과 현재의 경험 등과 같은 이분화 된 구조의 갈등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성서(내용)만도 아니요 생활(경험)만도 아닌, 양자 곧 신앙의 내용(과거)과 삶의 경험(현재)이 서로 대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육화(기독교 프락시스)로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현 한국의 교육목회 현실은 교육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앙과 삶의 이분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아직도 양자 사이의 갈등의 계속되고 있다.¹⁹²⁾ 한국의 보수적인 풍토와 성서 중심에서 유출된 주입식, 내용(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방법과 새로운 교육이론에 의해 개발된 과정 중심의 교육방법 사이의 갈등이 현재까지 현저하게 그대로 존속해 오고 있다. 이제는 기독교 전통과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의 대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미래를 향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목회 패러다임이 정착함과 동시에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급해 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¹⁹³⁾

은준관은 실천신학의 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성령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의 형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안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구조화 하는 일임을 주장한다.¹⁹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예배, 설교, 성례전을 통해 부름(called out) 받은 공동체로 역사화 되고, 교육과 코이노니아를 통해 세움(called up)받은 공동체로 끊임없이 태어나고 지탱되며, 나아가 섬김과 선교를 통해 보냄(called into)받은 공동체로 역사 안에서 현존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 3차원의 존재 양식이 쉴 새 없이 단절되는 것이 교회의 현존 과제이며 역사를 향한 교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¹⁹⁵⁾

오랫동안 목회자 중심의 기능신학(목회신학)에 머물러 있던 구조를 이제는 목회

191)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233.

192) Ibid, 241.

193) Ibid.

194)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161.

195) Ibid, 429-430.

자 뿐 아니라 일반 신도를 포함한 공동체 중심의 유형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구조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속에 목회적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아 온 평신도 이해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참여하는 사역자로서의 평신도 이해로 전환하면서 교역의 개념도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를 일구고 가꾸어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이 되도록 구조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¹⁹⁶⁾

196)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262.

제 4 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 이해(성경적 기초)

성경은 교육목회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전형을 발견해 낼 수 있으나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목회 전형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살피고 인도하셨는가? 이것이 구약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교육목회 전형이라 할 수 있다.¹⁹⁷⁾ 성경에서 다른 교육목회 전형을 찾는다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 주님의 교육목회 전형을 들 수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은 제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¹⁹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육목회 전형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육목회 전형을 찾는다면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러한 교육목회 전형들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의 원리와 내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목회 전형과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 나타난 주님의 교육목회 전형,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를 고찰하면서 교육목회의 원리를 찾고자 한다.

제 1 절 하나님의 교육목회와 목회원리

1. 모세 5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목회

197) 박동현, *예언과 목회* III, 303-326.

198) Bill Hull, *제자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 박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28. 막 1:16-20; 마 4:18-22; 눅 5:1-11을 참고하라.

모세 5경을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 실패의 역사가 그 주제라 할 수 있다.¹⁹⁹⁾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죽음(소외, 단절)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소외당하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할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방)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라 할 수 있다.²⁰⁰⁾ 출애굽기 19:5-6절²⁰¹⁾을 ‘ 시내산 계약’(the Sinai Covenant)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 이 계약을 통해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백성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1:44 이하; 19:2; 20:7, 26)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imitatio Dei)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²⁰²⁾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곧 제사, 오늘의 예배이다. 레위기 1-7장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제사(예배)법을 제시한다. 첫째가 번제이다.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이것은 자신을 죽이는 행위로 생명 자체를 드리는 온전한 자기 위탁의 제사를 의미한다.²⁰³⁾ 두 번째는 소제이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떡을 만들어 (또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돌판에 부친 것으로,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로, 이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으로서 끊임없는 자기희생과 헌신, 성화를 위한 제사이다.²⁰⁴⁾ 세 번째는 화목제이다. 화목제란 단어 자체

199) 김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1), 32.

200) Ibid.

201)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출 19:5-6).

202) 김중은, *거룩한 길 다니리*, 33.

203) Ibid, 47. 번제의 핵심적인 의미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올려 바치는 내용에서 찾게 된다. 이것은 곧 예배자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번제의 오늘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히 13:15; 시 69:30-31)이다. 다시 말하면 번제는 사람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주님의 가신 길을 십자가를 지고 찬송하면서 따라는 원리를 가르친다.

204) Ibid, 48-51.

가 ‘희생물’, ‘화평’, ‘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목제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의 교제를 위한 제사를 의미한다.²⁰⁵⁾ 네 번째는 속죄제이다. 속죄제는 모든 제사를 드리기 전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로서 용서함과 죄사함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인데 이것은 속죄의 보상이 강조되는 제사로서 화해의 제사이다.²⁰⁶⁾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제사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²⁰⁷⁾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제사)를 만드셨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과 사귀를 갖게 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신다(요 4:23).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일이요 교회의 핵심인 일이며 신앙생활의 중심이다.²⁰⁸⁾ 레위기는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책이다. 특히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희생 제사의 피’(the sacrificial blood)를 통한 대속의 원리(레 17:11)를 강조하고 있다.²⁰⁹⁾ 이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레위기 신학을 “십자가 신학”(theology of the cross)이라 부른다.²¹⁰⁾ 이렇게 본다면 레위기는 모세 5경의 중심이요 구약성경의 중심 되는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다.²¹¹⁾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민수기다. 민수기는 반성과 훈련이 그 주제라고 볼 수 있다.²¹²⁾ 민수기부터 광야 생활이 본격화되는데, 광야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상징한다. 광야라는 현실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은 없어지고 계속적인 반성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특히 광야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덮을 것, 거처할 곳 그 어느 하나도 없는 곳이다. 다만 광야의 길을 오가

205) 김중은, *거룩한 길 다니리*, 54-57

206) Ibid, 57-63.

207) Louis H. Gunneman, *Worship: A Course Book for Adults* (Boston: United Church Press, 1966), 9; 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4), 20.

208) Paul H. Vieth, *기독교교육과 예배*, 김소영 역 (서울: 총회교육부, 1978), 9.

209) 김중은, *거룩한 길 다니리*, 35.

210) 대표적 학자는 조지 나이트(George A. Knight)가 있다. Ibid, 35.

211) Ibid, 33-34.

212) Ibid.

는 것 밖에 없다. 광야에서 40년 가까운 동안의 훈련, 이것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세속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철저히 그 세속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믿음의 훈련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광야에서 목이 곧은 1세대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고, 결국 새로운 2세대가 훈련되고 조직되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을 밟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수기 신학은 광야교회(행 7:38이하)를 통한 반성과 훈련(discipline)의 신학으로 정리할 수 있다.²¹³⁾

마지막으로 신명기인데 신명기에는 이미 선포한 계명들을 계속적으로 되풀이 하면서 “기억하라! 들으라!”(Shema)고 명령한다(신 5:15; 7:18; 8:18; 9:7; 15:15; 16:12 등). 즉, 순종을 위해서 기억할 것을 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반복하고 되풀이하여 마음 판에 새기도록 반복교육(특히 가정교육을 통해서)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신학의 특징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이다.²¹⁴⁾

그런데 모세 5경의 구속사는 모세 5경의 마지막 장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속사의 성취감을 맛볼 수 없는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 모세 5경의 구속사 신학을 완결하는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수 21:45)라는 말씀으로 구속사 신학이 완성됨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완결된 구속사 신학의 맥락을 위해 5경 신학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성취의 신학을 포함해서 6경(the Hexateuch)의 신학을 말할 수 있다.²¹⁵⁾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¹⁶⁾

<표 1> 모세 5경의 구속사 요약

213) 김중은, *거룩한 길 다니리*, 34.

214) Ibid, 35.

215) Ibid, 6경(Hexateuch)의 신학에 관해서는 Gerhard Von Rad, *구약성서신학(1):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승의 신학*, 허역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2), 137-306,을 참조하라.

216) 구속사(Helsgeschichte)에 대한 신학적 관심은 19세기 호프만(J. C. K. Von Hofmann)에 의해 형성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폰 라트(Gerhard Von Rad)에 의해 구체화 되었고,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으로 이어지고 있다. 쿨만은 구속사를 성서 본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해석학적 열쇠라고 말한다.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210.

1) 창 세 기 : 타락, 실패의 역사	————	죽음
2) 출애굽기 : 구원, 시내산 계약	————	의인
3) 레 위 기 : 기록, 예배의 책	————	성화
4) 민 수 기 : 반성과 훈련, 광야	————	
5) 신 명 기 : 순종, 쉼	————	
6) 여호수아 : 가나안	————	영화

2 하나님의 교육목회의 원리

앞에서 살펴 본 모세 5경에서의 하나님의 교육목회는 몇 가지 중요한 목회의 특징적인 원리를 보여 준다. 첫째는 하나님의 목회는 본질적으로 교육목회라는 것이다. 위의 <표 1>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롭게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예배와 반성과 훈련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가나안 땅, 즉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회 하는 목회의 전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목회에서 강조되는 것이 예배와 반성과 훈련, 그리고 순종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목회의 본질이 교육목회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회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엇 하나도 없는 광야로 몰아내어 애굽과 철저히 단절한 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광야학교²¹⁷⁾였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임을 밝혔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는 그리스도적 삶의 참된 모습을 이 세상에 삶으로써 보여주어야 하는 필연적 과제를 안게 된다. 이 과제를 가능케 하는 목회가 교육목회임을 하나님의 목회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적 삶을 삶으로써 보여주는 일은 결단과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둘째는 예배가 목회의 중심내용이라는 것이다. <표 1>의 하나님의 교육목회 과정에 나타난 중요한 기본적인 틀은 타락, 구원, 성막, 예배, 훈련, 순종으로 나타난다.

217) 정해원, *21세기 목회의 새바람 교육목회* (서울: 예루살렘, 2000), 64.

이 기본 틀에서 하나님의 목회의 중심내용이 바로 예배임을 확인하게 된다.²¹⁸⁾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죽음)을 맛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세상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예배)법을 제정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하셨다. 예배(제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행위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베어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삶의 습관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태워진다.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과 교제를 누리게 된다.

셋째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교육목회라는 것이다. 이미 모세 5경의 구속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목회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인 애굽과 완전히 단절된 채 광야학교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았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방법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즉 하나님의 교육목회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교육목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하나님의 교육목회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남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하나님 나라 구현과 관련지을 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천국의 표상이 아니라는 것이다.²¹⁹⁾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만이 기다릴 줄 알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전혀 그런 땅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했고, 수많은 유혹과 싸움,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218) 레위기가 모세 5경의 중심이요 구약의 중심 되는 진리를 기록한 책임을 앞에서 확인했다.

219)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쑤”이요, 또한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명령의 말쑤”이다. 박준서, “성서지리학,” 연신원목회자세미나 바인더, (1993): II-1-1.

것은 분명 가나안 땅이 천국의 표상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표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승리함으로 누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목회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섯째는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한 교육목회라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신앙 공동체(민족 공동체)를 이루시는 과정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교육목회는 신앙공동체와 선택된 일꾼들을 통한 목회였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목회를 계속 하고 계신다.

제 2 절 예수님의 교육목회와 목회원리

1. 제자 사역을 통한 예수님의 교육목회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을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는 선포와 함께 “나를 따라 오너라”(막 1:17)는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삶으로써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삶으로써 제자들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명령을 교회의 대헌장으로 남겨 주시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약속을 주셨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소그룹 공동체(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교육목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가. 제자로 부르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시작을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 속에 처음부터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한다.²²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

220) James Montgomery Boice, *참 제자의 길*, 지상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21.

도인이 된다는 의미 속에 이미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즉시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들은 제자를 부르신 그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²²¹⁾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세 번의 사랑 확인과 위탁의 말씀과 함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요21:22)고 다시 따를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각각 개인적인 방법대로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²²²⁾

나. 부르심에로의 응답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초청하는 ‘초청’의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한 초청의 의미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즉시 따랐다는 사실은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소유했음을 의미한다.²²³⁾

제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 첫째는 복종이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제자제로의 초청말씀 속에는 무한한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토록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성육신 사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서 우리에게 친히 삶으로써 실천적인 복종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제자제로의 부르심에는 이토록 친히 삶으로써 말씀하시기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 이 무한한 권세와 능력 앞에서 복종이 따르지 않는 제자는 없는 것이다.

둘째는 회개이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자를 부르셨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기 때문이다.²²⁴⁾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후 이를 시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221) Boice, *참 제자의 길*, 22.

222) Ibid.

223) Ibid, 22-23.

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1-32)고 말씀하셨다. 특히,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맨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막 1:14)는 말씀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의 제자제로의 부르심 속에 회개의 요청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²²⁵⁾ 그러므로 회개 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는 고백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와 보라”는 초청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실을 증거 하면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가서 보고 고백했음을 강조하고 있다.²²⁶⁾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나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예언자가 되신다는 고백의 의미이다.²²⁷⁾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넷째는 헌신이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마 19:21)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값비싼 헌신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특히,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8)는 말씀을 통하여 장차 베드로가 주님을

224) Boice, *참 제자의 길*, 23-24.

225)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눅 5:8).

226)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와 보라”는 초청으로 제자를 부르셨다(요 1:39).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두 제자(안드레와 요한)는 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한다(요 1:41). 그리고 예수님처럼 “와 보라”는 초청의 말로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고(요 1:45),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요 1:49)라고 고백한다.

227) 여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고백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이며,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예언자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예언) 자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체로 믿고 고백한다는 의미이다. 이종성,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144-195.

따르는데 순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값비싼 대가인 '헌신의 삶'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마지막으로 인내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대헌장(마 28:19)을 명령하시면서 “불편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약속하셨다. 여기 ‘세상 끝 날까지’라는 말은 제자 삼는 사역의 시간성을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제자의 삶은 일생동안 헌신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다. 주님의 제자학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학교를 세우시고 그 학교에 학생들을 친히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초청을 받았지만 모두 다 그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의 제자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제자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거운 짐을 졌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다. 이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된다. 여기 ‘무거운 짐’이란 주로 죄의 짐이란 의미를 가진다.²²⁸⁾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죄에 민감한 자들로서 죄의 짐을 풀기 위해서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선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다. 제자란 견습생이란 뜻으로 ‘배우는 사람’ 또는 ‘생도’란 의미를 갖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학교에 제자들을 부르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지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 비유가 바로 멍에 비유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의 의미이다.²²⁹⁾ 이것은 곧 주님의 제자학교에서의 생도는 종의 길을 걷는 자들임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둘째는

228) Boice, 참 제자의 길, 33.

229) 멍에는 짐승의 머리카락 어깨 부분에 채워지는 것으로 소나 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기구이며, 또한 멍에는 아치형 장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피정복민들이 정복자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그 장대 밑을 지나가도록 요구받았다. 이와 같이 멍에는 복종, 수고, 동역자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Ibid, 39-41.

함께 일한다는 동역의 의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멩에를 메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멩에를 같이 메고 함께 수고할 것을 요청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학교에 입학한 생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 고후 6:1)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어디든지 함께 다니셨고, 함께 호수 위를 항해하셨고, 함께 친구들을 방문하셨으며, 함께 회당과 성전에 들어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학교에서 생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주님의 제자학교에서 오직 한 가지 교칙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²³⁰⁾

주님의 제자학교에서 생도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게 배우라”는 말씀에서 깨닫게 된다.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첫째, 나를 배우라는 의미로 그리스도 그 자체를 알라는 의미이다.²³¹⁾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라고 기도하셨다. 둘째, 내게로부터 배우라는 의미이다.²³²⁾ 이 말은 주님의 제자학교에서 교사는 예수님이시라는 의미이다. 특히, 주님의 제자학교 선생이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제자학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가르치시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이다.

주님의 제자학교는 쉬이 있는 학교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값비싼 헌신과 끊임없는 훈련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사실에서 주님의 제자학교에서의 생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의 제자학교에서의 생도의 삶에는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말씀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안식에 대해 말씀하신다. 첫째가 ‘주어진 안식’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다. 그리고 둘째는 ‘발견하게 되는 안식’이다.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에서 ‘얻으리니’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다.²³³⁾ 이처럼 주님의 제자학교에서의 생도의 삶이 평안과 안식의 삶이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내 멩에는 쉽고 가볍기 때

230) Boice, 참 제자의 길, 41.

231) Ibid, 35.

232) Ibid, 38.

233) Ibid, 43.

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쉽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Χρηστός)인데 ‘몸에 잘 맞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부드럽다, 좋다, 은혜롭다, 평안하다, 친절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낱말이다.²³⁴⁾ 그리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벼운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짐을 지기 때문이다.

라. 제 2의 결단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제자학교에 입학해서 참된 제자로서의 배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마 16:13, 눅 9:20).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는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은 제자의 본질적 삶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이것은 자아추구의 삶을 버리라는 의미이다. 자아추구의 삶은 태초부터 죄를 이루는 본질이였다. 사단은 “내가 하리라”는 말을 반복한다.²³⁵⁾ 이 말이 바로 자아를 추구하는 말이다. 이 자아추구의 정신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사 53:6) 자아추구의 삶을 살게 되었다. 베드로는 자아추구의 삶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것”(벧후 2:10)이라고 했다. 바울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딤후 3:1)고 말하면서 점점 더 자아추구의 삶이 심해질 것을 말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자기부인의 삶을 예수님의 성육신 모습에서 찾은 후 “너희 안에 이 마음(삶의 스타일)을 품으라”고 말했다(빌 2:5-8).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참고 견디어 내는 것이 아니다. 즉 신체적 장애 등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한계상황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다.²³⁶⁾ 마태복음 8: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

234) William Barclay, *마태복음(하)*, 황장욱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1), 50.

235) 이사야는 사탄의 타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사14:13-15). 여기에 ‘내가 하리라’는 말이 반복된다.

236) Boice, *참 제자의 길*, 52.

께서는 두 제자를 향하여 제자로서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영화와 안일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하며, 나를 따르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며 결단을 촉구하셨다.²³⁷⁾ 이 두 제자에게서 자기 십자가는 그들이 어떤 것을 소유하건, 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그리고 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즉시 '예'라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는 대신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 즉 주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진다'라는 말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다는 의미이다.

셋째는 예수님을 좇는 삶이다. 여기 '좇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한다.²³⁸⁾ 히브리서 기자는 제자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이다.²³⁹⁾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기꺼이 하게 만드시고, 또 그 일을 완성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2 예수님의 교육목회의 원리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교육목회의 전형임을 확인하면서 제자 학교에로의 초청, 그 초청에로의 응답과 제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들, 주님의 제자학교의 특징, 그리고 본질적 제

237) 예수님께서서는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마 8:19)라고 말하는 서기관을 향하여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려면 집 없는 것까지 각오하라는 의미이다. 즉, 자기 만족, 자기 몰두, 자기 취미, 자신의 영화와 안일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 하옵소서."(마 8:21)라고 말하는 제자를 향하여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마 8:22)고 말씀하셨다. 여기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제자의 말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내가 자유롭게 되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무기한 연기하는 말이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시며 제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박선희, *예수의 잠언* (서울: 계몽문화사, 1993), 144-157.

238) Boice, *참 제자의 길*, 56.

239) F. F. Bruce, *히브리서*, 이장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454-456.

자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자 사역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교육목회 전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적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예수님의 목회 역시 교육목회라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함을 확인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목회의 본질이 교육목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육목회가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시켜 복종과 회개, 고백, 헌신, 그리고 인내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을 철저히 훈련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시키는 제자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주님의 제자학교의 생도(훈련생)이다. 제자(disciple)란 말과 훈련(discipline)이란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제자는 훈련된 자이다. 그러므로 제자는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²⁴⁰⁾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의 제자학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제자학교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방식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교육목회의 중심내용이라는 것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창조의 살롬이 깨어진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신다.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는 말씀으로 시작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여러 가지 성격을 규정해 주는 말씀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때가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재자시며 인도자로서 인간의 역사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치 않은 모든 인간에게 회개를 요청하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사건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운동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참다운 인간 회복 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은 행위와 삶으로

240) Walter A. Henrichsen,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한국 네비게이트 선교회, 1981), 17-21.

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²⁴¹⁾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요 14:2-3).

셋째는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목회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목회란 주님께 의한, 주님만을 위한, 주님을 향한 교육목회를 의미한다.²⁴²⁾ 예수님의 부르심에로의 응답에서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의 초청의 의미 속에는 복종과 회개, 고백, 헌신, 그리고 인내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 복종과 회개, 고백과 헌신, 그리고 인내는 주님께 대한 복종이요, 주님께로 향한 돌이킴이요, 주님에 대한 메시야 고백이며, 주님을 위한 헌신과 인내를 의미한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은 주님을 배우는 것이었고, 배우는 방법은 주님으로부터²⁴³⁾ 배우는 것이었다.

넷째는 소그룹(제자 공동체) 사역을 통한 교육목회라는 것이다. 말씀(λογος)이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소그룹 제자공동체를 만드신 후, “하나님의 자녀(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1:12-13). 이들은 혈통에 의한 가족이 아닌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하나님의 이 소그룹 가족도 육신을 입었고, 성령이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인간(눅 1:35)으로 만들었듯이, 성령은 이 모임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성육신된 공동체로 만드셨다. “말씀”이 바로 그 자신이요, 행위요,

241)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신 구체적인 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비유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나라며 용서와 화해와 공의의 나라, 원수까지도 포함한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통치하는 나라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이적과 치유사건과 죄 용서 선포를 통하여 현재 당하는 죄와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 하는 실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신 것,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스스로 겸손한 메시야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 등등이다.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건설하셨다(마 12:28; 요 20:30-31; 막 2:5, 15-17; 11:1-11).

242) 워튼(J. Wharton)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목회(ministry to God for world)이지, 결코 아버지를 위한 세상을 향한 목회(ministry to world for God)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가 인간의 반응과 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역행위이지 인간의 의도와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29.

243)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개념과 함께 사용한 동사들은 ‘온다, 당도한다, 주신다, 들어간다, 받는다.’ 등과 같은 동사들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룬다, 확장한다.’ 등의 동사는 일체 쓰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이런 언어 사용에서 두드러진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세윤, *예수와 바울*, 52.

공동체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소그룹을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드셨다.²⁴⁴⁾

다섯째는 복음 증거가 예수님의 교육목회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후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눅 6:13). 사도란 “파견된 사람”이다. 이 단어의 어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²⁴⁵⁾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에는 자신을 따르도록 소그룹을 부르셨으며, 그리고는 나가서 사역을 하라고 시키셨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두 명의 이 그룹은 제자의 신분에서 사도의 신분으로 상승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육목회의 최종 목표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 3 절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와 목회 원리

1. 예수님의 교육목회의 실천적 모범을 따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교육목회의 실천적 모범을 가장 많이 닮고 실천에 옮겼던 목회자이다.²⁴⁶⁾ 그의 교육목회와 목회 원리를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된 동일한 입장에 선 오늘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다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교훈이 되리라 본다.

가. 그리스도의 현현

바울의 교육목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 그가 받은 복음과 사도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그토록 열광적인 원수로 과격히 적대하던 바울이 그의 종, 그의 사도가 되어 그토록 모진 고난을 받는 가운데 세상을 헤매며 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체현이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고, 나아가 예수님의 교육목회의 실천적 모범을 가장 많이 닮고 실천에 옮겼던 목회자가 된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복음과 사도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244) Gareth Weldon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공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7), 142.

245) Ibid, 144.

246) 고용수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교육의 실천적 모범을 따른 사도 바울의 교육을 하나님의 교육, 예수님의 교육과 더불어 성서적 기초로 제시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부 역음, *신학함의 첫걸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250.

바울의 복음과 사도권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현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다메섹 사건은 그의 신학과 사도로서의 그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²⁴⁷⁾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아들을 복음의 내용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갈 1:11f, 16)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갈 1:1)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메섹에서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초대교회의 케리그마가 사실임이 확인되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메시아, 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계시된 사실을 통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창조 때 그의 실행자로 활동했으며, 또한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계신 모양으로 자신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현현하신 예수님을 ‘지혜’와 동일시하게 되고,²⁴⁸⁾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마지막 아담)으로 이해하게 된다.²⁴⁹⁾

247) 김세윤은 바울의 복음의 기원과 사도직은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의 현현에 근거한 것이며, 다메섹 사건은 그의 신학과 그의 사도로서의 존재의 바탕이라고 강조한다. 김세윤,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원,” *예수와 바울*, 315.

248) 지혜문학에서는 하나님의 한 속성인 ‘지혜’가 창조, 계시 그리고 구속 사업에서의 하나님의 실행자로 점차 실체화하고 인격화 했다. 유대문서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수단인 ‘토라’(모세의 율법)와 동일시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그리스도의 현현을 바로 지혜의 체현으로 이해한 것이다. Ibid, 311-312.

249) 구약과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환상들이 자주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본 것으로 기술되어 나타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출현 시 하나님의 계시의 실행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계시의 중계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도 불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식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담에 비추어 보게 하였는데 그것은 창세기 1:26절 이하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이 잃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마지막 아담’이다. 지혜 기독교론, 아담 기독교론 이것이 바울의 기독교론이다. Ibid, 313. 바울의 복음의 기원과 기독교론에 관해

나. 바울의 사도직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유대의 전통에 극도로 심취해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다.²⁵⁰⁾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하게 된다. 다메섹에서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 바울은 복음의 계시와 더불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체현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계시를 받는다.²⁵¹⁾ 바울은 이 사도직 계시를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이 비밀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²⁵²⁾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계시에 따라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된다.²⁵³⁾ 바울은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즉각 순종하여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선포한다.²⁵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자의식은 그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섬김과 고난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그려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진정한 사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 바울의 목회 내용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바울은 헬라 사회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승을 인용한다. 그러나 그의 복음 전달은 새로운 상황에

서는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6)을 참고하라.

250)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높이신 메시아로 선포했기 때문이며,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율법과 성전의 의식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세윤, *예수와 바울*, 307-308을 참고하라.

251)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체현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계시를 ‘비밀’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Ibid, 309.

252)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이방사람들이 모두 복음의 선포에 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런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시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이방인들이 모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말한다(롬 11:25-26).

253) 행 9:15; 22:21; 롬 11:13; 15:16; 갈 2:8; 엡 3:8; 딤후 4:17.

254) 김세윤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은 다메섹에서의 체험에 대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로 이방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는 해석은 잘못된 견해라고 말하고,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세윤, *예수와 바울*, 309를 참조하라.

서 문자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정신(원칙)을 전한다.²⁵⁵⁾ 결국 바울의 기독교적, 구원론적으로 공식화된 복음은 부활 이후의 구속사적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복음의 재소개였다.²⁵⁶⁾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은 예수의 정신, 생활양식 그리고 행위를 진정 대표하는 대표자다(고전 11:1).²⁵⁷⁾

라. 바울의 선교비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완전히 전파”(롬 15:19)하여 “이제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 선포할 곳이 없다”(롬 15:20)고 말하면서 자기를 잘 모르는 로마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 교회로부터 자기의 스페인 선교여행에 대한 지원을 얻고자 한다(롬 1:8-15; 15:22-23).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의 동반부에서 선교를 위해 지원해 주었던 시리아 안디옥교회와 같이 로마 교회가 이제 시작할 자기의 스페인(로마 제국의 서반부) 선교를 위해 지원하는 모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알려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바울의 선교비전이었다.²⁵⁸⁾ 그의 엄청난 선교비전은 다메섹에서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 계시된 복음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도직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며, 나아가 예수님이 높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시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예수님이 높임 받은 주라는 믿음은 곧 전세계적 선교를 요구하며, 이 선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²⁵⁹⁾

255)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 인용하지 않지만, 사도로서 바울은 변화된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의 언어로 재설명한다. 그의 재설명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에 관하여 암시하거나 상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재설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의 변화된 부활 이후의 상황이나 헬라 세계의 그의 독자들에게 더욱 복음의 효과적 선포에 필연적인 것이다. 김세운, “목회자를 위한 성경신학 I,” (강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ummer 1998).

256) Ibid. 바울의 예수 전승 사용의 예에 관해서는 김세운, “바울 서신들에 있는 예수 전승,” *예수와 바울*, 319-386을 참고하라.

257)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린도교회의 침투 자들은 바울의 자비량 선교를 사도직 결여로 비난하며 바울을 사기꾼으로 몰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비량 선교는 복음이 무료로 선포됨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삶으로써 선포하려 한 것이다. Ibid.

258) 김세운 “사도 바울의 큰 비전,” *예수와 바울*, 389-390.

마. 바울의 교육목회 실천 원리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 내게 모든 것을 배운 것과 같이 이제는 네 자신이 제자 삼는 자가 되어 새로운 제자를 길러내야 한다.”(딤후 2:1-2)고 말한 후 ‘그리스도의 군사’와 ‘경기자’와 ‘농부’ 비유를 말한다(딤후 2:3-6). 이 비유들 역시 제자의 삶은 거듭되는 훈련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면류관과 상급을 얻기까지 최선의 헌신과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교훈하는 비유들이다.

바. 바울의 교육목회 방법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한다. 그는 예수님의 성육신적 실천의 삶을 그대로 따라 본을 보이는 방법(Modeling Method)으로 목회를 이끌어 간다(고전 4:6, 16; 빌 3:17).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모든 사역을 성령에 의존하고 있다.(골 1:29; 엡 3:20)

2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 원리

이상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과 사도직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의 복음 선포의 내용과 선교비전, 교육목회 실천원리와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 전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적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목회는 본질적으로 교육목회임을 보여준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259) 김세윤, *예수와 바울*, 391-398. 사도 바울은 그의 세계선교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을 잘 알았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선교하느라 당한 고난들을 감동스럽게 네 번이나 되풀이하여 말한다. 무수히 두들겨 맞음, 돌로 쳐맞음, 감옥살이, 파선, 추위와 굶주림 등등(고전 4:9-13; 고후 4:7-12; 6:3-10; 11:23-29). 자기가 낯고 자라서 비교적 잘 알고, 그리스어도 통할 수 있는 로마제국의 동반부를 선교하는데 그렇게 혹심한 고난을 받았으면, 이제 그에게겐 완전히 낯선 로마제국의 서반부, 그리스어가 통하지 않는 라틴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혹심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는 세계선교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고난에 도전하게 하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과 소명, 그리고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라고 교훈하는 교육목회 실천적 원리는 제자 사역을 통한 철저한 교육목회의 전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아비 같은 교사로 인식하며(고전 4:14-15),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갈 4:19) 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골 1:28)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특별히 많은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적 삶을 본받아 직접적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보여준 위대한 교육목회자였다.

둘째는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의 중심내용은 십자가라는 사실이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 신학이다. 바울은 십자가를 단순히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학적 해석학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의 모든 사교의 축으로 하여 세계, 역사, 교회, 인간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²⁶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선언하면서 세상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다 미련한 것으로 판명되고(고전 1:19-20) 세상의 미련한 자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자들을 복음으로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한다(고전 1:26-31). 그는 드디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빌 3:8)라고 선언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고전 2:2)을 알기로 작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갈 6:14)고 선언한다.²⁶¹⁾

셋째는 철저히 성령 중심의 교육목회라는 것이다. 바울의 윤리의 중심개념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엔 크리스토”(ἐν χριστῷ 그리스도 안에)이다.²⁶²⁾ 바울이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전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실존이다. 바울의 엔 크리스토 사상은 그리스도의 통치아래 있는 인간과 그리스도 사이의 일치와 연합의 의미를 내포하며, 나아가 통치권의 교체사상(지금까지 죄와 죽음과 율법의 통치로

260) 김지철, “바울의 문화관,”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100-101.

261)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모든 문화에 대한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삶의 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문화적 가치란 인간의 자기 자랑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식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한에 있어서는 거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한에는 인정됨을 의미한다. Ibid, 105-106.

262)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580-582.

부터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중심적(엔 크리스토) 윤리는 곧 “엔 프뉴마티”(ἐν πνεύματι 영 안에)이다.²⁶³⁾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령의 통치와 동일시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핀대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갈 5:25)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철저히 성령에 의존하고 있다(골 1:29; 엡 3:20).

넷째는 소그룹(팀, 교회 공동체) 사역을 통한 교육목회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한 그룹과 함께 육신으로 거하시던 상태에서 벗어나 성령의 권능으로 동시에 수많은 그룹들 가운데서 임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생긴 그룹들 모두가 이 땅에 예수님의 임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새로운 성육신이다.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는 열 두 제자의 연장선에 있는 교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²⁶⁴⁾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교회의 후원을 받아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를 양육하는) 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²⁶⁵⁾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고전 12:28) 라고 말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몸이 하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4, 7, 11-12)고 말한다.

다섯째는 세계 복음화가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다. 다메섹에서의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방인의 사도직 계시에 따라,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지원을 요청한 바울의 선교열정을 앞에서 확인했다. 그는 이처럼 다메섹에서의 주님의 현현을 통해 계시된 복음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도직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높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시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엄청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육신적 교육목회의 실천적 모범을 따라 성육신적 선교로써 온전히 삶을 바쳤다.²⁶⁶⁾

263) 성종현, *신약총론*, 582-585.

264)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311.

265) Dick Iverson, *팀 목회*, 권혁재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1999), 73-74.

이상과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모세 5경을 통한 하나님의 교육목회와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통한 교육목회, 그리고 예수님의 교육목회의 실천적 모범을 따른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에 나타난 특징적 원리들을 정리해 보면 놀랍게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교육목회와 주님의 교육목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의 특징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회원리 비교

교회의 본질적 개념	하나님의 교육목회	주님의 교육목회	바울의 교육목회
성육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하나됨	예배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공동체	신앙(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일꾼	소그룹 공동체 (제자 공동체)	소그룹(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장	교육목회	교육목회	교육목회
선교	하나님의 나라 건설	복음 증거의 삶	개척을 통한 세계 복음화

<표 2>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의 특징적 원리는 앞의 2장에서 고찰한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의 교육목회의 하나님 중심과 주님의 교육목회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사울의 교육목회의 성령 중심은 교회의 본질적 개념에서의 성육신 개념과 상응하고,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는 하나 됨과 상응, 신앙(민족) 공동체와 소그룹(제자)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팀,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개념과 상응, 교육목회는 성장과 상응,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 복음증거의 삶, 개척을 통한 세계 복음화는 선교의 개념과 상응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사도 바울의 목

266)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성육신적 선교임을 볼 수 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였다(고전 9:20-23). 그리고 개척을 하여 교회를 세운 후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시 개척하는 순환을 반복한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성육신적 선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적 교육목회의 실천적 모범을 따른 것이다.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8), 134-135.

회원리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인 성육신, 하나 됨, 공동체, 성장, 그리고 선교의 개념을 포함하는 원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 개념인 성육신 개념이 하나님의 교육목회와 주님의 교육목회, 그리고 바울의 교육목회의 특징적 원리인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의 원리와 상응한 것으로 도표화 했지만, 반드시 이 세 특징적 원리하고만 상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육신 개념은 위의 <표 2>에서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신앙(민족)공동체와 소그룹(제자) 공동체, 소그룹(팀, 교회)공동체, 그리고 교육목회와 복음 증거의 삶 등 다른 여러 특징적인 원리들과도 상응하는 개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은 교회의 본질적 개념에 모두 상응하며 하나님의 교육목회와 주님의 교육목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의 모든 원리에 상응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제 5 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 패러다임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포스터모던의 다양화의 거대한 역사적 세속적 도전에 기독교 프락시스로 대응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목회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과제 앞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독교 프락시스가 바로 성육신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교육목회의 원형으로서의 성육신의 의미와 특성을 고찰하고 그것을 구조화 하여 구체적인 교육목회 패러다임으로써 ‘성육신 패러다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기독교 프락시스로서의 성육신

1. 교육목회의 전형인 성육신

성육신은 기독교의 중심교리 중 하나이다. 성육신 교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러면서도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이 전혀 손상 받지 않는 방식으로 더욱 충분히,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다.”는 것이다.²⁶⁷⁾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칼빈(J. Calvin)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신 성육신 하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육신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눈높이 맞추기’라고 말하면서 성육신은 “자신을 비어

267) Brian Hebblethwaite, *The Incarnation : Collected Essays in Christolog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21.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237에서 재인용.

인간 육체를 입으시고 중재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존재가 되신 사건”으로 설명한다.²⁶⁸⁾ 이런 의미에서 성육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로버트 마틴(Robert K. Martin)은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성육신이야말로 신학적 인식론의 기초적인 논리라고 역설한다. 즉, 성육신이란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연합의 존재론적 근거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식론적 수단이라는 것이다.²⁶⁹⁾ 성육신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은 하나님 알기를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육방법이다.²⁷⁰⁾ 이런 점에서 성육신이야말로 교육목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²⁷¹⁾

2 성육신의 특성들

요한복음 1:1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4-5절, 그리고 빌립보서 2:6-11절 말씀은 성육신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다.²⁷²⁾ 이 세 본문 말씀 속에서 성육신 사건이 지닌 중요한 특성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성육신은 하나 됨(동일시)이다. 빌립보서 2:6-11절 말씀은 유명한 그리스도

268) Dawn DeVries, *Jesus Christ in the Preaching of Calvin and Schleiermacher* (Louisville: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96), 19.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238에서 재인용.

269) Robert K. Martin, *The Incarnate Ground of Christian Faith: Toward a Christian Theological Epistemology for the Educational Ministry of the Church*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8), 281.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238-239. 재인용.

270)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239.

271) 앞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성경적 삶’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종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독교 프락시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육신이 하나님 알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육방법이라 할 때, 성육신은 분명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응답하는 기독교 프락시스이다. 따라서 성육신은 기독교 프락시스로 대응하는 구체적인 교육목회 패러다임의 원형이 되는 것이다.

272) Lawrence, O. Richards, *교회 지도자 신학*, 남철수 역 (서울: 정경사, 1983), 63. 요한복음 1:14절 말씀은 로고스의 성육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계시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다. 빌립보서 2:6-11절 말씀은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송시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과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됨을 이루라는 권면을 하는 맥락에서 사용한 말씀이다. 즉, 첫 아담적 허영과 교만으로 자기 주장하지 말고 종말의 아담인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함을 본받으라는 뜻으로 사용한 말씀이다. 김세윤, *요한복음*, 41-42. 김세윤, *빌립보서*, 80-100.

의 찬송 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과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여 공동체의 하나 됨을 이루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 사용한 말씀이다.²⁷³⁾ 특히 7-8절 말씀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이 되심을 보여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온전한 하나 됨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됨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앎은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신 사건이다.²⁷⁴⁾

둘째, 성육신은 공동체적이다. 요한복음 1: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는 성육신의 공동체적 특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성육신은 공동체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오셔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셨기 때문이다.²⁷⁵⁾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공동체의 근본이 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공동체와 상호 연관된 언약적 관계로써 존재하신다.²⁷⁶⁾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가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다. 신앙은 한 개인 안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닌 것이다.²⁷⁷⁾

셋째, 성육신은 참여적이다. “자기를 비워”에서 ‘비웠다’는 말은 신성의 존재가 인간과 같이 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심, 인간의 가난한 처지에 참여하심을 뜻하는 말이다.²⁷⁸⁾ 어떻게 스스로를 비우셨는가?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체를 취하여 ‘인간이 되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비우셨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참여하신’ 사건이다. 칼 바르트(K. Barth)는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in-breaking’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 말은 굳게 닫힌 문을 깨어 부수고 친히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적극적인 참여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이다.²⁷⁹⁾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는 곧 하나님을 아는 교육에로의 강한 초청을 의미한다.

273) 김세운, 빌립보서, 82.

274)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241-242.

275) Ibid, 242.

276)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23.

277) H. Richard Niebuhr, *Faith on Earth*, 109.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243. 재인용.

278) 김세운, 빌립보서, 89-90.

279) 곽선희, *하나님의 얼굴* (서울: 계몽사, 1995), 164-165.

넷째, 성육신은 낮아짐이다. 이 낮아짐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에서 보듯이 종에로의 낮아짐이다. 이것은 모든 생명권 소유권과 결정권의 포기를 의미한다(롬 14:8; 창 39:1-6; 엡 6:6-7). 이 낮아짐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갈 4:4)에서 보듯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한 인간이 주는 살과 하얀 피를 먹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가장 가난하고 굶주린 하나님에로의 낮아짐이다.²⁸⁰⁾ 또한 이 낮아짐은 모든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잔을 모조리 마시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살과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철저한 비움의 낮아짐이다.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극치,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가장 처참한 상황까지 낮아짐의 의미이다.²⁸¹⁾ 이 낮아짐은 나눔과 섬김의 영성으로 현실화 된다.

다섯째, 성육신은 충만함이다. 요한복음 1: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다.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의 성육신은 그의 신적 충만함(pleroma)의 계시이며 그 충만함을 덧입게 하는 은혜의 사건이다.²⁸²⁾ 신적 충만에서 오는 은혜에 힘입어 비로소 인간에게 그 신적 충만(곧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성이나 결핍성 속에서 죽음에 처한 인간에게 실로 “기쁜소식”(복음)이 아닐 수 없다.²⁸³⁾

여섯째, 성육신은 선교적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4-16절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비웠다가(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고(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가득 채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로 나누어 주는(우리가 그의

280)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있는 아기를 상상해 보라.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주는 살(젖꼭지)과 피(하얀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하고 굶주린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281) 김세운, *빌립보서*, 90-91.

282) 인간성의 특징은 결핍인 반면, 신성의 특징은 초월적 충만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를 채울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인간성의 본질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채움에 있다면, 신성의 본질은 자신의 충만함에서 내어 줌에 있다. 곧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아가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의 존재였기에, 자신을 스스로 비워 인간의 상황에 오시고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셨다.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높이시고 자신의 이름과 주권을 주셔서 만물이 그를 예배하고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그의 아가페적 주권 행사(은혜)에 의지하여 신적 충만(곧 구원)을 얻게 되었다. Ibid, 99.

283) Ibid.

충만한 데서 받으니) 순환을 계속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 한다. 비움은 채움을 위함이고, 채움은 비움을 위함인 순환의 반복이 성육신이 담고 있는 선교적 의미이다.

일곱째, 성육신은 상상적이다. 요한복음 1:14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라는 말씀은 성육신이 상상적 특성을 지님을 의미한다.²⁸⁴⁾ 여기서 말하는 상상은 곧 믿음을 의미한다.²⁸⁵⁾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다(고후 4:4). 골로새서 1:15절이 증언하는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자신을 계시하신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볼 수 없었다. 오직 믿음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있어서 인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상상(믿음)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덟째, 성육신은 의도적이다. 여기 의도적이라는 말은 동기와 목적, 적합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율적, 의지적 판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인 인간을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 여기에 사랑이시기에 인간을 벌하실 수 없고 공의로우시기에 인간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다. 즉, 어떻게 죄인인 인간에게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실 수 있는가? 하는 딜레마이다.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성육신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이다. 사랑이 동기이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다.²⁸⁶⁾

아홉째, 성육신은 지금도 계속된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 외에는 그 어떤 성육신도 다시 있을 수 없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요, 그는 성경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성육신은 유일무이한 사실이고,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육신은 계속되고 있다.²⁸⁷⁾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써 끝나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

284) 박상진,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243.

28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기독교 교육과정론*, 194.

286)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5).

287) Richards, *교회 지도자 신학*, 64-65.

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시고 승천하셨다.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삶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를 지체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적 공동체인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성육신의 특성을 살피면서 확인되는 중요한 사실은 성육신이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교육목회와 예수님의 교육목회,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 원리를 모두 다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성육신은 하나님의 프락시스의 본질인 동시에,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독교 프락시스의 본질임을 확인하게 된다.

제 2 절 성육신적 삶의 내용(성육신 교육과정)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였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초대였고, 그 의도는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려는 것이었다.²⁸⁸⁾ 공생애 사역 시작과 함께 12 제자를 뽑아 세우신 것은 12 지파로 구성된 옛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상응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 즉 '새 이스라엘'로서, 이는 곧 종말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설립하고자 한 것이다(마 16:18).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미 출범한 하나님 나라이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선행(先取)이다.²⁸⁹⁾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약속하고 의도했던 것의 제의적(祭儀的)으로 성취하는 사건이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여 그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재가 되게 한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수단이였다.²⁹⁰⁾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행위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건설하셨다.

고용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중심주제

288) 김세운, *예수와 바울*, 63.

289) Ibid, 61.

290) Ibid, 63.

였고, 그의 가르침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육이었으며,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의 중심 주제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한다.²⁹¹⁾ 1)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중심주제이다. 2)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3)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현존하는 실재로 이해된다. 4)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인간의 결단과 응답을 요구한다. 5)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다.

이상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결국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아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한 준비와 기다림을 내포하는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실존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²⁹²⁾

세계 교회협의회 1990년 문서 '교회의 일치와 인류 공동체의 갱신'은 다음과 같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도래를 향하여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미리 맛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 최종적인 성취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여기 그 성취를 기다린

291) 고용수, *현대 기독교 교육 사상*, 302-313.

292)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이 세상의 '나라' 또는 '정치'로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주장 하려는 의지가 바로 죄의 본질이다. 정치란 인간의 자기주장 하려는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치는 구원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일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프로그램이나 사회 참여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산상수훈은 이 세상에서의 정치 강령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의 정치의 종결을 제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적 정치의 원칙인 인간의 자기주장 하려는 의지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인간의 자기주장 하려는 의지가 청산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계속 자기주장 하려는 의지가 삶의 원칙인 이 세상에 실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의 삶 속에 나타내어야 하느냐?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는 자기주장 하는 대신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로 주실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미 출범하여 성령의 역사로 역사 속에서 실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종말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격파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편 불의와 포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화, 의와 사랑을 바라며 이 세상에서 자기주장을 버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써 고난을 감수하며 인내해야 한다. 김세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실존," *예수와 바울*, 67-88.

다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적극적인 성취의 기다림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현존하게 만드는 기독교 프락시스의 실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선포하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공동체인 것이다.²⁹³⁾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그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이해할 때 한 가지 물음이 제기 된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일이다.

마리아 해리스(Maris Harris)는 사도행전의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삶의 형태 속에서 교육목회를 위한 커리큘럼의 원형을 찾아서 다섯 가지 형태로 구조화했는데²⁹⁴⁾ 그것은 곧 케리그마(말씀 선포와 전도), 레이트루기아(예배와 예전), 코이노니아(교제와 친교), 디다케(가르침과 훈련), 디아코니아(봉사와 섬김)이다. 그런데 그녀가 구조화한 다섯 가지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교회의 본질적 개념 다섯 가지와 상응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형태는 곧 성육신적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교회의 다섯 가지 본질적 개념과 마리아 해리스가 구조화 한 다섯 가지 커리큘럼 형태가 어떻게 상응하는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면서 성육신적 삶의 내용(성육신 교육과정)을 정리하려고 한다.²⁹⁵⁾

1. 케리그마(Κήρυγμα)(말씀 선포와 전도) 교육과정²⁹⁶⁾

케리그마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에는 선포하는 행위(고전 2:4)와 선포된 내용(롬 16:25; 고전 1:21)이 모두 포함된다.²⁹⁷⁾ 신약에 있어서 이 말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1년 세계교회협의

293)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313.

294)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49-52.

2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통합)는 2001년도에 마리아 해리스가 구조화 한 다섯 가지 커리큘럼 형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296) 케리그마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에는 선포하는 행위(고전 2:4)와 선포된 내용(롬 16:25; 고전 1:21)이 모두 포함된다. 신약에 있어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행위,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297)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154.

회 문서는 케리그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케리그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즉 그의 삶과 가르침, 그의 죽음, 부활, 다시오심,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주신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이다.”²⁹⁸⁾ 초대교회의 신앙고백과 케리그마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고전 15:3-5; 롬 4:25; 8:3; 갈 3:13; 고후 5:21)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치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우리를 위해 발생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종말론적 구원의 사업을 이룬 ‘메시아’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대권자로 높임 받는 ‘주’시라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온 인류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포에 담긴 구원의 약속이 이렇게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그의 죽음과 부활을 구원의 사건의 핵심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실현시킨 분으로 선포되는 분(선포의 대상)이 되었고, 더 이상 그의 구원의 약속을 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실현한 그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케리그마의 중심이 된 것이다.²⁹⁹⁾ 결국 케리그마의 핵심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케리그마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 가운데 성육신 개념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케리그마(말씀 선포와 전도)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은 복음화로서 말씀의 선포와 듣기를 통한 복음 이해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다. 이를 위해 기대되는 학습 경험은 복음에 대한 확신, 회개와 회심의 체험, 신앙고백, 말씀묵상의 생활화, 전도 지향적 생활, 전도에의 헌신 등이다.³⁰⁰⁾ 케리그마 교육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는 주님과와의 만남 사건과 바른 성경관과 말씀의 생활화, 그리고 교회를 전도 지향적인 관점에서 재인식하고 일터를 복음의 접촉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2.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예배와 예전) 교육과정³⁰¹⁾

298) 세계교회협의회 보고서(1990), 고용수, *현대 기독교 교육 사상*, 314, 재인용.

299) 김세운, *예수와 바울*, 65-67.

30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 교육과정 이론지침서(Ⅱ)(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3-17.

301) 레이투르기아는 본래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시대로

레이투르기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과 섬김의 의미로서 특히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했다.³⁰²⁾ 이는 곧 예배와 성례전을 의미한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³⁰³⁾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응답하는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만남이요 사귄(대화)이다. 그리고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이다.³⁰⁴⁾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행위로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적인 생각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습관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태워진다.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과 교제를 누리게 된다.³⁰⁵⁾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을 의미한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나아가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

접어들면서 레이투르기아는 신에 대한 봉사로서 교회에서의 예배(liturgy)를 의미하게 되었다. “레이투르기아” Online: <http://100.daum.net/DIC/detail?id=1298690&sname=레이투르기아>

302) Frank Segler, *Christian Worship*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5.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93, 재인용

303)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315.

304)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응답하는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만남이요 사귄(대화)이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실재와 만난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곧 경배이다. 구약 성경에서 ‘경배’를 뜻하는 단어에 속하는 어휘로서 ‘샤하’(שָׁחָ)라는 단어는 ‘굴복하는 것’ 또는 ‘자신을 엎드리는 것’의 의미로 순교, 순종,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에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로 번역되는 ‘프로스큐네오’(προσκυνέω)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 사용하셨던 말씀으로, 원래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입 맞추다, 경의를 표하다” 따라서 예배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서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관심은 하나님의 인격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인격보다는 상황에 대한 관심, 사귄보다는 일에 대한 관심, 즉 주님보다는 주님의 일에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다. 예배는 바로 주님의 인격에 대한 관심이 우선임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라는 말은 영어의 worship 에서 번역된 것이다. worship 이라는 말은 ‘가치’(worth)라는 말과 ‘신분’(ship)이라는 말의 뜻을 가진 합성어이다. 이 말의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란 뜻이다. 박정관, *예배와 찬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9.

305) 앞장 4장의 예수님의 교육목회 원리 두 번째를 참조하라.

체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됨을 의미한다.³⁰⁶⁾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의 표식으로,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 가운데 모든 지체가 하나 됨을 경험하고, 나아가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나눔의 사역에 함께 동참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레이투르기아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 가운데 하나 됨의 개념과 상응하다고 할 수 있다.³⁰⁷⁾

레이투르기아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은 신앙화로서 예배와 성례전(세례와 성만찬), 기도, 절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다. 이를 위해 기대되는 학습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감사의 응답, 축제로서의 예배 의미와 가치경험, 삶으로서의 예배의 의미와 가치경험, 영성의 이해와 경험, 성만찬 예전(세례와 성찬)을 통한 의미와 가치경험, 예배와 예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삶의 스타일) 형성 등이다.³⁰⁸⁾

3. 디다케(Διδαχή)(가르침과 훈련) 교육과정

디다케는 가르침이란 의미의 헬라어이다. 칼빈(John Calvin)은 교회를 ‘모든 경건한 자의 진정한 어머니’라고 말한다.³⁰⁹⁾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그의 품 안으로 모으시고, 그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어린 아이와 같으므로 어머니 같은 보살핌으로 다스리고 양육하고 이를 통하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끌어 가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칼빈은 교회의 모든 행위와 삶의 표현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디다케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 가운데 성장(교육)의 개념과 상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 나타난 디다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하며 동시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였고,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 과정에서 보듯이 가르침의 과정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평생교육 과정이었고, 그 영역 또

306)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195-196.

307)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315.

30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 38-44.

309) Calvin, *기독교 강요(IV)*, 7.

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교회생활과 더불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일터 등) 것이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디다케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은 제자화로서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대되는 학습경험은 성경말씀의 역동적 이해와 경험, 구원의 복음이해와 경험, 기독교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기독교적인 세계관(가치관)의 형성,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 형성, 하나님 나라의 비전 형성 등이다.³¹⁰⁾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내용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급변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을 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코이노니아(Koinonia)(교제와 친교) 교육과정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보통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 말 성경에 매우 많은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참여, 동업, 통용, 공급, 함께 받는 것, 동정, 나누어 줌, 사귄, 동무, 연보, 교통, 함께 함, 간섭, 동참, 서로 나누어 주기 등이다.³¹¹⁾

창세기 1: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되 교제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창세기 3: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우리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숨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결국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일한 언어와 관습과 생활의 영역 속으로 들어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게 됨으로써 다시 코이노니아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코이노니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니라”(요일 4:9)고 말한다. 구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이고 신약의 주

31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 76-79.

311) 대천덕,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서울: 신앙계, 1983), 27.

제가 오신 메시아로서 성경의 총주제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즉 성육신 사건이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을 때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성경인 것이다. 따라서 코이노니아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된다.³¹²⁾

사도 바울은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십자가' 사건에서 찾는다.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며, 서로 나누어진 인간과 인간들이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자리가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다운 코이노니아를 가지게 된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못 박힌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며, 장사 지낸 바 된 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일으킴 받고, 기업을 얻고, 영광을 받고, 왕노릇 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참다운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성도들은 이제 성도들 서로간의 참다운 코이노니아를 나누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 서로 간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함께 참여한 자들, 마음을 같이한 자들, 함께 싸울 자들, 함께 기뻐할 자들, 동역자요, 서로 격려하는 자들이요, 함께 휴식하는 자들이요, 함께 갇힌 자들이요, 함께 지체된 자들이요, 같은 시민, 함께 상속된 자들이란 말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코이노니아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코이노니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성을 뜻함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일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³¹³⁾ 이런 의미로 볼 때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 가운데 공동체 개념과 상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코이노니아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은 문화화로서 교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경험이다. 이를 위해 기대되는 학습경험은 교제의 기초로서 관계 회복의 경험, 교제의 장으로서 공동체 경험, 교제의 실존적인 하나님 나라의 문화경험 등이다.³¹⁴⁾

312) 대천덕,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28.

313)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317.

31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 110-113.

5.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봉사와 섬김) 교육과정

디아코니아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로서 섬김과 봉사를 뜻한다.³¹⁵⁾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작은 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요, 과부와 고아,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 그리고 나그네 된 이들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를 섬김의 종으로 세상에 파송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디아코니아적 존재’라 할 수 있다.³¹⁶⁾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디아코니아적 삶을 온전히 사셨다. 예수님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고 친히 말씀하시며, 실제로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대속의 길을 걸으셨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로 섬기고 계신다.

세계교회 협의회 1983년 보고서에서는 디아코니아를 ‘예배 후의 예배’라고 정의하며 나눔, 치유, 그리고 화해의 사역을 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1990년 보고서에는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신비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의 표징이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³¹⁷⁾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이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³¹⁸⁾ 12 제자로 선택되어 사도로 칭함을 받은 제자들은(눅 6:13)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예수님의 섬김 사역을 이어갔다. 특히 사도들은 자신들이 섬김의 종으로 부름 받고 파송된 것으로 이해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 가운데 선교의 개념과 상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아코니아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은 역사화로서 섬김과 봉사, 치유와 화해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경험과 확장이다. 이를 위해 기대되는 학습 경험은 헌신과 봉사와 선교로써 청지기의 정신 함양,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 창조질서의 보전과 생명존중, 직업과 소명의식의 형성, 정의와 평화의 통일, 살림을 향한 실천 등이다.³¹⁹⁾

315) 디아코니아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식탁에서 시종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섬김’이란 단어로 번역된다.

316) 홍주민, “야훼 하나님은 디아코니아적 존재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회보, 2004년 6월호.

317) 고용수,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316.

318) 성종현, *신약총론*, 463.

이상과 같이 마리아 해리스가 구분한 교육목회를 위한 다섯 가지 커리큘럼의 원형이 어떻게 교회의 본질적 개념(성육신 커리큘럼)과 상응한가를 확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성육신적 삶의 내용(성육신 교육과정)

성육신 교육과정 영역	교회의 본질적 개념	핵심내용	기대되는 학습경험
케리그마 (말씀선포와 전도)	성육신	복음화 (말씀의 선포와 듣기를 통한 복음 이해와 하나 님 나라의 경험)	복음에 대한 확신, 회개와 회심의 체험, 신앙고백, 말씀묵상의 생활화, 전도 지향 적인 생활 등
레이투르기아 (예배와 예전)	하나 됨	신앙화 (예배와 성례전, 기도, 절기를 통한 하나님 나 라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감사의 응답, 축 제로서의 예배 의미와 가치경험, 삶으로 서의 예배(예배가 삶으로 확대되는)의 의미와 가치경험, 영성의 이해와 경험, 성만찬 예전(세례와 성찬)을 통한 의미 와 가치경험, 예배와 예전을 통한 하나 님 나라의 문화(삶의 스타일) 형성 등
디다케 (가르침과 훈련)	성장(교육)	제자화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 라를 경험)	성경말씀의 역동적 이해와 경험, 구원의 복음이해와 경험, 기독교교리에 대한 체 계적인 이해, 기독교적인 세계관(가치관) 의 형성,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 형성, 하나님 나라의 비전 형성 등
코이노니아 (교제와 친교)	공동체	문화화 (교제를 통한 하나님 나 라의 문화 경험)	교제의 기초로서 관계 회복의 경험, 교 제의 장으로서 공동체 경험, 교제의 실 존적인 하나님 나라의 문화경험 등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선교	역사화 (섬김과 봉사, 치유와 화해와 선교를 통한 하 나님 나라 경험과 확장)	헌신과 봉사와 선교로써 청지기 정신 함양,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 창조질 서의 보전과 생명존중, 직업과 소명의식 의 형성, 정의와 평화의 통일, 살롬을 향 한 실천 등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을 통해 구체화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완성을 향
해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31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 130-135.

에 함께 참여하며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그 미래로 삼고 구체적인 성육신 커리큘럼에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육신적 삶으로써 응답해야 한다.

제 3 절 성육신적 삶의 과정과 원리

1. 성육신적 삶의 과정(process)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4-16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세 단계의 모습으로 증거한다. 첫째는 비움의 모습(말씀이 육신이 되어)이요, 둘째는 충만하게 채우는 모습(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이며, 셋째는 채운 것을 다시 나누어 주는 모습(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8-11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증거하고 있다. 첫째: 근본 하나님의 형체이신 예수님, 둘째: 스스로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 셋째: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넷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다섯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여섯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일곱째: 높이 들리시고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예수님, 여덟째: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아홉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이다.

이러한 성육신적 삶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는 비움의 삶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채움의 삶이요, ‘나를 좇으라’는 채운 것을 나누어 주는 삶과 상응하는 말이다.

성육신적 삶을 구약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시작된다. 떠남을 통해서 비움을 실천했던 아브라함 그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삶의 전부로서 곧 충만하게 채워진 삶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받은 후 온통 그의 삶이 이삭에게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신다. 이 명령은 은혜로 채움 받은 것을 나누지 않을 때,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창 12:1; 22:1-14). 그가 이 명령을 받고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2000년 후 하나님 자신의 품에 있는 독생자를 비우셔서 십자가에 희생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요 8:56).³²⁰⁾

성육신적 삶은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종교 전통과 헬라적 철학전통이라는 상이한 두 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양육 받은 사람이다. 그는 율법을 범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린 자라고 여겼던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영광의 주로 현현되었을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빌 3:8)라고 선언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고전 2:2)을 알기로 작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갈 6:14)고 선언한다. 그리고 일생을 채움과 비움과 나눔이라는 순환적인 성육신적인 삶을 산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육신적 삶은 모두가 비움과 채움, 그리고 나눔이라는 순환적 과정을 그려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 성육신적 삶의 원리

가. 순환의 원리³²¹⁾

320)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정에서 그 순종의 절정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임을 보게 된다. 요한복음 8:56절(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하여 알고 기뻐했음을 뜻하는 말씀이다. 이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이삭이 장작을 등에 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달려서 죽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순종 속에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다.

321) 몰트만은 이 순환의 개념을 삼위일체에서 찾고 있다. 순환(*περιχώρησις*)은 영원한 신적인 삶의 순환을 의미한다.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의 과정이 능력들의 교환을 통하여 일어난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존재하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존재한다. 이들은 너무도 깊이 서로 상대방 안에서 살며 영원한 사랑의 힘으로 거하기 때문에 하나이다. 그것은 안전하고 가장 강렬한 공허(*empathie*)의 과정이다. 그들은 서로 구분하는 개체적 특성, 바로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상대방 안에서 살며 영원한 삶을 나눈다. 그들을 구분하는 바로

순환의 원리란 곧 비움과 채움, 그리고 채운 것을 다시 나누어 주는 삶의 순환 원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비움은 채움을 위한 것이요, 채움은 비움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움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며, 채움을 절대화해서도 안 된다. 비움 없이 채움만 있을 때 거기에는 썩음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순환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학교에서 만나를 내려 주실 때 구체적으로 교훈하셨다. 즉, “...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출 16:19)는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첫 곡식을 얻을 때까지 매일 매일 새롭게 거두어 먹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흐르는 물이 비유하여 말씀하신다(사 32:2). 예수님께서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자신이 직접 영생의 물임을 말씀하셨다(요 4:13-14). 영생의 물은 살아있는 물이다.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되려면 반드시 흘러야 한다.³²²⁾

성육신 교육과정은 이 순환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현실화 된다. 케리그마,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의 각각의 교육과정들은 그 안에 순환적 원리로 연결되어 진다. 다시 말하면 케리그마 교육과정은 그 안에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레이투르기아 교육과정은 그 안에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형태의 각각의 성육신 교육과정들은 비움과 채움, 그리고 다시 나눔이라는 순환의 원리를 따른다.

나. 성령 충만의 원리

성령 충만의 원리란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원리를 의미한다.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성령을 내 속에 가득 채워서 내가 성령을 더 가지는 그런 의미가 아

그것은 순환 가운데서 그들을 영원히 결합하는 것이 된다. 영원히 신적인 삶의 ‘순환’은 영원한 사랑 속에 있는 세 가지 다른 인격들의 사귄과 단일성을 통하여 완전해 진다. Jürgen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김군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211.
 322) 흐르는 물은 비움은 채움을 위함이요 채움은 비움을 위함이라는 순환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 본 논문의 제 6장 제 1절을 참고하라.

나라 성령이 나를 완전히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 충만에서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찼다는 것인데, 이 말은 완전히 지배한다는 의미이다. 성육신적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³²³⁾

다. 기도의 원리

성령 충만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임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광야의 지도자 모세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최대의 특권은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에 있다. 기도는 성육신적 응답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육신적 응답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다.

라. 성육화 원리³²⁴⁾

성육화 원리는 위에서 살펴 본 성육신의 특성 아홉 가지(동일시, 공동체적, 참여적, 낮아짐, 충만한, 선교적, 상상적, 의도적, 지속적)를 모두 포함한다. 이 성육화의 원리는 위의 세 가지 원리인 순환의 원리와 성령 충만의 원리, 그리고 기도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가능한 원리이다.

제 4 절 성육신적 삶의 장과 참가자

1. 성육신적 삶의 장(場)

323)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당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동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인간이 하는 행위는 주로 ‘들어간다’ ‘받는다’는 동사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언어 사용은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투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절대 주권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김세운, *예수와 바울*, 52.

324) 토마스 그룹은 성육화 원리를 shared praxis(나눔의 실천)라고 말한다. 본 논문 3장 3절(58쪽) 성육화 패러다임을 참고하라.

성육신적 삶의 장은 한 마디로 삶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제단이라는 의미이다.³²⁵⁾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 모두가 성육신적 삶의 장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육신적 삶의 장은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일터로 ‘보내시는’ 종말론적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육신적 삶의 결정적인 장이다.³²⁶⁾

2 성육신적 삶의 참가자

성육신적 삶의 참가자는 광의적 의미로 볼 때 성령, 하나님의 백성들, 교재, 그리고 교육적 상황(방법, 환경, 시간)을 들 수 있다. 특히, 성령은 성육신적 삶의 참가자 중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은 앞장의 하나님, 예수님,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 원리에서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³²⁷⁾ 중요한 것은 성육신적 삶에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참가자로서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이 논문의 한계로 새로운 주제에 속하는 것이다.³²⁸⁾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말하자면 성령님은 성육신적 삶(인격적, 공동체적, 참여적 등)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일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성육신적 삶의 참가자는 하나님의 백성(성도) 모두이다. 즉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육신적 삶의 참가자라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를 그

325) 성경에서 향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이 제물의 향기를 뜻한다. 이 제물의 향기는 하나님 앞, 즉 제단에서 드러지는 향기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구원 얻는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제단에 드러지는 제물의 향기라는 의미이다. 이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제단이라는 의미이다.

326)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장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비중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327) 앞의 각주 323번을 참고하라.

328) 이 문제는 교육목회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 없는 것이 이 논문의 한계이다.

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 제 몫을 다함으로써 건강한 한 몸(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이해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 성도들은 모두가 성육신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각 지체들이 각각 제 기능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공동체성 회복). 둘째, 성도들은 모두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자들이다(하나 됨). 셋째, 성도들은 모두 각각 다른 기능의 소그룹 공동체 형태들로 구성된다(소그룹 공동체). 넷째, 성도들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 의존 관계에 있다(성도들의 역동성).

이와 같은 성육신적 삶의 참가자에 대한 이해는 성육신적 삶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의 적극적인 '회중성'(공동체성) 회복과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 여기 회중성(공동체성) 회복이란 성육신적 삶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현존을 함께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그룹'은 삶의 공동체로서 조직체가 아닌 유기적 생명체를 의미하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개별적 인간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한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항상 성장하며 또 다른 소그룹을 낳게 된다.

소그룹 사역은 교회는 공동체적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에 기초한다. 성경적으로 소그룹의 협의적 의미로는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삶을 함께 하는 3명에서 12명의 삶의 공동체"³²⁹⁾로서 가정이 포함된다. 그리고 광의적 의미로는 교회 공동체(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의 의미로서 '개척교회'가 여기에 포함된다.

329) 개러스 아이스노글(Gareth Icenogle)은 기독교 소그룹의 정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발견하고 성숙시켜간다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3-12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밀한 집단"이라고 말한다. 그는 성경적 소그룹의 인원을 3-12명으로 말하고 있다. Gareth W. Icenogle, "소그룹 목회," (강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ummer 1999).

각 소그룹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공동체이며,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그리스도적 삶을 계속 훈련하는 훈련 공동체이고, 섬김과 봉사으로써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섬김 공동체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예배공동체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에 통해 새로운 소그룹 공동체를 건설하는 증인공동체이다.

제 6 장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육목회 실제

(살롬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교육목회 현장을 프락시스 개념을 중심한 교육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급격한 컨텍스트 변화의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제시된 과제는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교회로써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적합한 새로운 교육목회 패러다임의 요청이었다. 이를 위해 교육목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구약 모세 오경과 복음서와 서신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육목회,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를 고찰하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심 개념인 성육신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목회 패러다임의 모델로 성육신 패러다임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성육신 패러다임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제시된 성육신 패러다임 모델을 교육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본 연구자의 지금까지의 교육목회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 1 절 흐르는 물처럼

1.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신앙과 삶의 괴리현상을 넘어서 이제는 그 능력을 상실해,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본 연구자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적 삶을 능력 있게 살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했다. 그동안 이러한 비전속에서 꾸준히 프락시스(praxis)에 관심을 기울이며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경주를 해본다. 이 일을 진행하

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간 살면서 온전히 '애굽화'가 된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의식세계의 가치 기준이 '비그리스도화' 된 상태에서 너무 오래도록 굳어져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육목회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학교'를 통하여 그 무엇 하나도 없는 곳에서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광야학교인 교회에서 성도들은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철저한 그리스도적 삶의 방식을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적 삶을 훈련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목회자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교회를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삶의 공동체로 규정할 때, 목회자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적 삶의 참된 모습을 삶으로써 보여주어야 하는 필연적 과제를 안게 된다.

2 흐르는 물처럼

목회를 하다보면 시 63편의 기자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는 심정이 되곤 한다. 이럴 때 성육신 하신 주님은 친히 찾아주셔서 목말라 갈하는 심령을 생명수로 축축이 적셔주신다. 이사가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흐르는 물에 비유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영생의 물임을 말씀하셨다.³³⁰⁾ 영생의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그러므로 영생의 물은 물 자체가 살아있는 물이며 신선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이다.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되려면 고여 있으면 안 된다. 물은 언제나 흐름으로써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있는 물이 된다. 이 사실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첫째, 흐르는 물은 한 순간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이 교훈은 내가 끊임없이 새로워 져서 다시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닌,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된 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은 고여 있으면 곧 썩어버린다. 그러므로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 이처럼 아무도 나를 보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로 인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는 교훈이다. 둘째, 흐르는 물은 언제나

330) 사 32:2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곧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음 순간 뒤에 오는 이를 위해 그 자리를 비워준다는 교훈이다. 물은 한 순간을 채운다. 그리고는 곧이어 그 자리를 비워 다른 물이 그 자리를 채우도록 한다. 여기서 비움의 교훈을 깨닫게 된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유, 명예, 행복을 오래도록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가진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흐르는 물의 교훈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과감하게 남에게 내어주고 나는 또다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흐르는 물은 그 다음 밀려오는 물결이 작은 물결이요 혹시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오게 하고 깨끗이 자리를 비워준다. 그리고 자신을 계속 흐르게 함으로써 다시 메꾸는 자리는 항상 신선하고 살아있는 생명수로 가득 채운다. 셋째, 흐르는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교훈이다. 이것은 바로 낮아짐의 삶의 교훈이다. 그리고 넷째는 흐르는 물은 환경에 순응하듯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교훈이다. 예수님은 흐르는 물처럼 사셨다. 경쟁하지 않으시고 싸우지도 않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냥 말없이 흘러가셨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 구원의 승리를 이루셨다. 흐르는 물의 교훈은 비우고 채우고 다시 나누는 순환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의 실체인 것이다.

본 연구자의 지난 목회의 과정은 이렇게 생명수로 축축이 적심을 받으며 지낸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한다.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계속 소유하여 누리고 싶은 욕망과 계속 오르려고만 하는 교만한 삶의 모습들을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씩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이것이 성육신적 삶을 위한 목회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 영성이다.

제 2 절 비움으로 시작되는 성육신적 삶

성육신적 삶의 시작은 비움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삶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비움으로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작을 갈데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했듯이 성육신적 삶을 위한 교육목회 실천자는 반드시 비움으로 삶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비움의 의미³³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

331) 사도 바울은 비움의 의미를 빌립보서 3:7-9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모든 것을

시는 것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비움의 의미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으신 주님은 인간이 주는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하나님이 되셨다. 중요한 것은 이 비움은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 비움이라는 사실이다. 이 비움의 동기는 사랑이요, 목적은 채움을 위한 비움이다. 이 채움의 내용은 곧 하나님 나라이다. 본 연구자는 이 비움의 시작에서 실패하여 많은 고생을 겪어야 했다. 본 2절에서는 성육신적 삶을 위한 비움의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잘못된 시작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동기와 목적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다. 본 연구자에게서 실패의 원인은 지금까지 훈련받고 쌓은 것으로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려 한 것이었다. 비움으로 시작하는 것과 비우기 위해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주님은 완전히 자신을 비운 후 시작하셨다. 비움의 실패는 여기서 출발된다. 그러면 먼저 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비워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은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 들어있는 반드시 뽑아 버려야 할 썩은 뿌리 4 가지를 말씀하신다. 그것은 곧 크고자 하는 마음, 보상심리, 자만심, 내적 자아가 그것이다.³³²⁾

가. 크고자 하는 마음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 밑에는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인가? 라는 뿌리 깊은 경쟁심이 도사리고 있었다(마 20:20-24).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교훈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잃어버렸다는 말의 헬라어는 희생을 지불하면서 버린다는 의미이다. 둘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한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다시는 가까이서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도록 아주 멀리 내어버린다는 의미이다. 셋째,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한다. 여기 ‘해’라는 말은 손실이라는 뜻이다. 광선희, *자유와 종* (서울: 계몽사, 1993), 62-63.

332) Fred C. Renich, *끝과 돌이 만날 때*,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99-138.

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6-28)고 교훈하셨다. 그리고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가르치셨다. 주님은 발 씻음을 통해서 진정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교훈하신다.

나. 보상심리

“믿음을 더하여 달라”(눅 17:5)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 말씀으로 답변하신다. 세 가지 비유는 곧 겨자씨 비유, 뽕나무 비유, 무익한 종의 비유(눅 17:7-10)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하여 믿음 없는 자의 믿음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다. 여기서 특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눅 17:10)는 말씀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 비유임을 깨닫게 된다. ‘보상 심리’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다. 자만심

베드로는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을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요 13:36)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으며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요 13:37)라고 헌신을 다짐한다. 그러자 주님은 “그렇게 장담하지 마라. 죽기는커녕 네가 오늘 밤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요 13:38)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것을 스스로 뽐내며 자랑하여 거만하게 구는 마음을 말한다. 자만심의 본질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교만이다.

자만심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시고 제 칠 일에는 안식하셨다. 아담은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으므로 제 7일, 즉 안식일은 아담에게는 사실상 첫날이다. 따라서 아담은 그의 삶을 안식일에 시작하게 된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기 전에 이미 모든 일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인

간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 즉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준다. 여기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안식을 먼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자기가 해 보려고 하는 잘못을 쉽게 범한다. 온유와 겸손, 용서와 사랑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스스로가 행하는 것을 그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신다. 내 힘과 의지로 하려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나를 통해 흘러 보내시기 시작하신다.

라. 내적 자아

무리 앞에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의 행위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요 13:37)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마 26:35)라고 장담한 대로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려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은 “베드로야, 나는 네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만약 내가 도움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여 내게 열 두 영 더 되는 천군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고 말씀하신다. 오히려 베드로의 헌신이 주님의 일에 방해요소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 이 사실은 주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려면 실제로 내가 주님께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자만심’과 ‘자기 의뢰’에 빠지기 쉽다.

마. 경험들

위에 언급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비워야 할 썩 뿌리들은 사실상 타락한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육신적 삶을 실천하는데 결정적 방해 요소들이 이것들 뿐만은 아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야망, 조급성, 불평과 원망, 의심,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 등은 성육신 삶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꼭 비워야 할 항목들이다. 헬몬산 아래의 아홉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

치지 못한 이유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 하셨다(막 9: 29).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도 파송을 받고 엄청난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상태였다. 자신의 이런 경험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삼킨 것이다. 야망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꿈을 말한다. 바라서는 안 될 분에 넘치는 희망이 곧 야망이다. 야망은 참된 목적을 상실하게 만든다. 조급성, 불평, 원망, 의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결과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은 성육신적 삶을 실천하는데 실질적인 방해 요소로서, 하는 모든 일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갈고리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비워야 할 내용들은 성육신적 삶을 실천하는데 치명적인 방해 요소들로 자신의 존재 이해 부족에서 오는 소치들이다.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했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완전 붕괴되고 말았다. 자만심과 교만, 그의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이 박살이 났으며, 희망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자신의 내적 자아의 쓰라린 붕괴를 철저히 맛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움에 실패한 사람들이 겪어야 할 필수과목이다.

본 연구자는 비움의 문제 앞에 만신창이가 된 사람임을 고백한다. 안타깝게도 베드로처럼 완전붕괴를 경험하게 되었다. 아직도 본 연구자에게 비움의 훈련은 멀고 험한 길이지만 늦게나마 목회자 비움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신 것만으로도 지금은 감사를 드린다. 여기서 한 가지 비움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성육신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에 몇 가지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2 비움을 위한 실제적인 훈련들

완전 붕괴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다. 완전 붕괴가 있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셨기에(눅 22:31-32) 주님은 다시 그를 찾으셨고 만나셨다. 베드로는 실패한 자신을 부활하여 승리하신 몸으로 찾아주신 주님을 보고 비로소 자신 속에 믿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성취는 능력 있는 행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써 시작됨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비움의 훈련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³³³⁾

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인 비움의 훈련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카지로(Peter Scazzero)는 그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란 책에서 중요한 비움의 훈련 방법을 다음과 같이 6 가지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³³⁴⁾ 첫째; 이면을 들여다보라. 둘째;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라. 셋째;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살라. 넷째; ‘한계’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라. 다섯째; 슬픔과 상실감을 받아들이라. 여섯째; 성육신적 삶의 본을 보이라.

교육목회 현장에서 비움의 훈련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목회자 자신의 비움 훈련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비움 훈련이다. 본 연구자의 목회 경험에서 가장 힘들었던 비움 훈련은 목회자 자신의 경우에는 자만심(교만)의 비움 훈련이었고, 성도들의 경우에는 ‘기득권’(높아지려는 마음)의 비움 훈련이라 여겨진다. 특히 비움의 훈련에서 가장 최근까지 힘들었던 부분은 성육신적 삶의 실천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가졌던 주님을 향한 개인적 열정과 헌신이었던.³³⁵⁾ 공동체성을 상실한 개인적 열정과 헌신은 오히려 고통과 상처의 열매로 나타난다.

앞에서 비움은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 비움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비움의 동기는 사랑이요, 목적은 채움을 위한 비움이며, 이 채움의 내용은 곧 하나님의 나라(세상 구원)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육신적 교육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은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최근까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를 특징으로 하는 새들백교회의 경우가 대표적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육신적 삶의 실천을 위한 목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3. 목적을 세움

333)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사역하신다. 공동체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시며 인간을 통하여 인간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은 결코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334)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최종훈 역 (서울: 이레서원, 2004), 111-314.

335) 스카지로(Peter Scazzero)는 밥 피어스와 월드비전의 예를 들고 있다. “겉모습만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열정이 한없이 샘솟는 듯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이런 태도는 가족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밥 피어스는 자신의 가족을 버리다시피 했다. 시종일관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 제쳐 둔 채, 사역을 확대하고 더 큰 영향을 끼칠 기회만 쫓았다. ... 그가 예순넷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모든 직계 가족에게 외면당했다.” Ibid, 64-65.

성육신적 삶의 실천을 위해 목적을 세우는 일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회철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고 본다. 본 연구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것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을 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목적이 이끌어 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³³⁶⁾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앞장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성육신 교육목회 패러다임에 의하여 세워질 건강한 교회의 실체를 ‘살롬교회’³³⁷⁾로 정하고, 성육신적 삶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교회의 정의, 교회의 목적, 목회철학, 그리고 목회원리와 목회원칙 등을 세워보고자 한다.³³⁸⁾

가. 살롬교회 교회론

본 논문의 제 2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회의 의미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볼 때, 교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다섯 가지 개념, 즉 성육신, 공동체, 하나 됨, 성장, 선교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교회의 정의는 이 다섯 가지 본질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롬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함축한 교회 정의를 <표 4>와 같이 정의한다.

<표 4> 살롬교회 교회론

336) 본 연구자의 경우 처음 담임 목사로 개척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는 교육목회라는 분명한 목회 패러다임과 목회철학과 목회방침을 가지고 임했으나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 이것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체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번번이 바쁜 목회 일정에 밀려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해야만 했다.

337) 살롬(shalom)은 연합, 즉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신체로 말하자면 건강한 상태를 말하고 농사로 말하자면 풍년을 의미하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자면 사랑과 우애와 화평의 관계를 말한다. 일에 있어서는 성공을 의미하고, 전쟁에 있어서는 승리를 의미하며,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평화의 관계를 말한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살롬은 인간의 최고선을 만들어 주는 모든 것, 인간을 인간답게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살롬의 최종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성육신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의 관점에서 살롬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338)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본 연구자가 지금까지 개척하여 섬긴 교육목회 현장의 반영임을 밝히며 중소도시에 위치한 교회임을 밝혀둔다.

교회란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이다.

이 정의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적 삶'은 주님의 성육신적 삶으로써 성육신 개념을 함축하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 됨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는 선교의 개념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은 성장(교육)의 개념을, 그리고 '삶의 공동체이다'는 공동체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 정의를 근거로 교회의 목적을 세울 수 있다.

나. 살롬교회 목적

살롬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다. 이 목적은 성육신 교육과정의 내용인 케리그마, 레이트루기아, 코이노니아, 디다케, 디아코니아를 모두 포함한다. 즉 말씀선포와 전도(케리그마)를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성육신 된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고, 예배와 예전(레이투르기아)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며, 가르침과 훈련(디다케)을 통하여 성숙한 성육신적 삶에 이르도록 계발하고, 교제와 친교(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성육신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살며, 나아가 봉사과 섬김(디아코니아)을 통하여 성육신적 삶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은 목적 진술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표 5> 살롬교회 목적 진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적 삶에 이르도록 계발하여, 이러한 삶을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다. 살롬교회 5대 목표

이상과 같은 살롬교회 목적 진술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살롬교회의 다섯 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1)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 여기서 사역자란 성육신적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꾼'과 '청지기'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각 지체들이 제각기 맡은 자기의 몫을 다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가 있다. 따라서 살롬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을 모두 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사역자를 세우는 원리는 철저히 성육신 원리에 의존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개념 중 하나 됨의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2) 숲을 이루는 교회 : 교회가 생명체라고 할 때 그 생명체의 의미는 성장에 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한 그루의 나무는 계속 자라지 않고 새로운 나무를 낳고, 또 그 나무는 다른 많은 나무를 낳는다. 이와 같이 생명체의 진정한 성장은 자생적 방법인 '번식'에 있다. 숲을 이루는 교회라 함은 한 그루의 고목나무의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사역과 분립개척을 통하여 숲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개념 중 성육신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3) 가정을 세우는 교회 :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친히 제정하신 공동체다. 가정은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초적 사회집단이며 행복의 원천이다. 가정이라는 사회 환경을 통하여 인간은 인격이 형성되며 가장 친밀한 인간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가정은 타락하여 완전히 파탄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파괴된 가정을 다시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행하신 이적이 어려움에 처한 가나 혼인잔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일이었다. 그리고 인간 역사의 마지막인 주님 오시는 때에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다. 특히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선포하고(호 2:19-20),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라고 말하며(사 54:5), 예레미야 선지자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고 선포하는 말씀들을 읽

게 된다(렘 3:14).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파괴된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다. 살롬교회는 가정을 교회로, 교회를 가정으로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개념 중 공동체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4)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 '변화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삶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생명체의 의미는 성장에 있고 성장은 곧 변화를 의미한다. 변화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따라서 생명체인 교회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는 교회 역시 죽은 교회임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변화는 곧 생존이라 말할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란 미래 현상인 가속적 사회변동(예를 들면 통일 한국 등)에 능력 있게 대응하는 다양한 목회 형태의 개발과 함께 계속 개혁하는 교회로서 21세기 사회와 문화를 선도해 가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개념 중 성장의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5)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 : 사회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터전이요, 사회는 교회가 자리 잡고 일해야 하는 일터이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사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 이렇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음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다. 여기 '형제자매'는 모든 사람, 즉 세상과 사회를 뜻한다.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음을 말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미래의 사회적 변동에 따라 야기되는 심각한 사회의 위기적 문제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는 필연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사회 속의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책임지며 봉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개념 중 선교의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라. 살롬교회 성육신적 목회원리

이상과 같은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회 원리와 원칙이 필요하다. 앞장 제 2장에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경적 바른 교회상을 살펴보면서 확인하였다. 성경적 바른 교회상은 그 속에 성경적 목회 원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살롬교회는 성경적 바른 교회상을 통해 발견되는 <표 6>의 목회원리를 살롬 교회의 목회원리로 삼는다.

<표 6> 살롬교회 성육신적 목회원리

- 1)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공동체 목회원리'
- 2)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만을 받는 '주님의 목회원리'
- 3)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선포하는 '말씀 목회원리'
- 4) 항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이는 '생명 목회원리'
- 5)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평신도 목회원리'
- 6) 다양성 속에서 일치룰 이루는 '소그룹 목회원리'
- 7) 언제나 악한 것을 더욱 귀히 여기는 '금홀 목회원리'
- 8) 그리스도를 목표로 항상 성장하는 '개혁 목회원리'
- 9) 원칙적으로 어느 특징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는 '전인적 목회원리'
- 10)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 기초가 되는 '사랑의 목회원리'
- 11) 실천적 삶의 훈련을 강조하는 '교육 목회원리'
- 12) 숲을 이루는 교회를 선교 비전으로 하는 '분립 목회원리'
- 13) 가정을 세우고 책임지는 '가정 목회원리'
- 14) 지역사회를 선도하며 인도하는 '증인 목회원리'

마. 살롬교회 목회철학

이상과 같은 성경적 바른 교회상을 통하여 나타난 성육신 목회원리를 좀 더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살롬교회 목회철학이다. 성육신적 목회원리를 함축한 살롬교회 목회 철학은 첫째; 주님의 목회, 둘째; 교육목회, 셋째; 분립목회철학이다.

(1) 주님의 목회철학 : '주님의 목회'란 목회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개념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20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고 말한다. 이 말씀

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를 자신이 거하는 집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성도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여 어느 정도 큰 교회를 이룬 목사를 향하여 주님은 두 번째 개척을 명령하셨다. 깜짝 놀란 목사는 ‘주님, 이 교회를 그만 두고 나더러 다시 개척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성장시켰는데요’라고 말했다. 이 때 주님은 “이 교회 목회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목사는 다시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요’라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내가 책임져!”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개척하여 이만큼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회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셨으며, 단지 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만으로 감격하는 목회가 주님의 목회이다. 주님의 목회, 말씀목회, 생명목회, 금홍목회, 사랑의 목회 원리들이 모두 주님의 목회철학에 속하는 원리들이다.

(2) 교육목회철학 : 살롬교회 교회 정의를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라 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교회 구성원인 성도는 그리스도적 삶의 참된 모습을 이 세상에 삶으로써 보여주어야 하는 필연적 과제를 안게 된다. 이 과제를 가능케 하는 목회가 바로 교육목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적 삶의 참된 모습을 삶으로써 보여주는 일은 결단과 다짐만으로는 안 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교육목회의 원형인 하나님, 예수님,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확인되었던 중요한 사실은 교육목회가 기독교 공동체의 한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삶 자체라는 사실과, 특히 교육목회가 목회의 한 종류가 아니라 모든 목회의 원형으로서 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교육목회, 공동체 목회, 평신도 목회, 개혁목회, 전인적 목회원리가 교육목회철학에 속하는 원리들이다.

(3) 분립목회철학 :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요 생명체임이 분명하다. 교회를 생명체로 바라볼 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인식이다. 생명체의 의미는 성장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성장과 결실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회가 생명체라고 할 때 올바르게 시작된 교회라면

교회 성장도 이 성장 법칙에 예외일 수는 없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마련이다. 그리고 생명체의 진정한 성장은 생명을 낳는 '번식'에 있다. 한 그루의 나무는 계속 자라지 않고 새로운 생명체인 나무를 낳고, 또 그 나무는 또 다른 생명체인 나무를 낳는다. 이것이 성육신적 패러다임이 갖는 교회 성장과 선교의 원리이다.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한 그루의 고목나무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숲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목회원리가 바로 분립목회, 소그룹목회, 가정목회, 증인목회 원리들이다.

마. 살롬교회 10대 목회원칙

이상의 목회원리와 목회철학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회 원칙을 세울 수 있다. 다음은 살롬교회의 10대 목회 원칙을 적은 것이다.³³⁹⁾

(1) 영감 있는 예배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와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영감 있는 예배란 이러한 예배의 의미와 원리에 의해 드러지는 예배를 의미한다. 영감 있는 예배는 살롬교회를 살롬교회 되게 하는 가장 고귀한 일이고, 핵심인 일이며, 성육신적 삶의 중심이다.

(2) 새벽기도의 일상화 : 새벽기도의 일상화는 성육신 원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절대적 생활규범으로서 그것이 일상생활화 되고 체질화되어야 함을 뜻하는 말이다. 새벽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자체이다. 사람은 누구나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며 쉬거나, 숨을 쉬기 위해서 노력이나 힘을 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런 생활임을 뜻하는 교훈이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 할 때, 이는 기도가 일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의미이다.

(3) 은사 중심적 사역 : 모든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

339)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박선희 목사의 10대 목회원칙을 보면, 1) 경건한 예배, 2) 주일의 안식일화, 3) 새벽기도의 일상화, 4) 가정의 교회화, 5) 종말론적 가치관, 6) 비귀족화, 7) 행정의 민주화, 8) 익명적 헌신, 9) 자원적 봉사, 10) 복음 안에 행복한 교인 등이다. 임운택, *소망교회 이야기* (서울: 베드로서원, 2001), 46-51.

었다. 하나님은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 그 영적 능력이 곧 '은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를 각자 찾아 그것을 잘 계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교회와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섬기며 봉사해야 한다. 은사 중심적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영적 은사와 개인스타일을 발견하고 잘 계발하여 가장 합당한 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기능적 조직 :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는 진흙을 빚어서 거기에 하나님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과 형태가 동시에 생겨나 생령이 되었다(창 2:7).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부어지면 교회에 조직과 형태가 생겨나게 된다. 기능적 조직이란 생명력이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 샬롬교회 기능적 조직이란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이루어지는 활력 있는 소그룹 조직들을 의미한다.

(5) 비귀족화 :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은 모두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함으로 제각기 제몫을 다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의 사명은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각기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데 있지 않다. 교회의 모든 직책과 직분은 철저하게 비귀족화 되어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

(6) 민주적 행정 : 기술세계에서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외부적 힘이 필요하지만, 생명 세계에서 유기체는 '자생적'으로 자란다. 민주적 행정이란 순환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을 의미한다.

(7) 익명적 헌신 : 익명적 헌신은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헌신과 봉사를 할 때는 이름 없이 빛없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익명적 헌신은 비움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 도구이다.

(8) 자원적 봉사 : 자원적 봉이란 봉사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함을 뜻하는 말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하듯 하는 섬김과 봉사를 의미한다.

(9) 사랑의 관계 : 진실하고 실제적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석과도 같은 능력을 갖는다. 사랑의 관계는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받는 관계를 말하며 깊은 관심과 나눔, 일치와 마음을 갖는 관계를 의미한다.

(10) 복음적 기쁨의 삶 : 복음적 기쁨의 삶은 살롬교회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다. 살롬교회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음적 기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혀 가게 된다.

지금까지 성육신 교육목회 패러다임에 의하여 세워질 건강한 교회의 실체를 ‘살롬교회’로 정하고 성육신적 삶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살롬교회의 목적(교회의 정의, 교회 목적, 교회 목표, 목회원리, 목회철학, 목회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규정한 교회의 목적은 이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전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을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설계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한 번 하고 잊어버려도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일이야말로 목회자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다.³⁴⁰⁾

제 3 절 처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육신적 삶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은 비움으로 시작되었지만 비움에서 끝나지 않고 충만하게 채우는 삶으로 나아가셨다. 사도 요한은 충만하게 채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사도 바울도 충만하게 채워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빌 2:3)고 증거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채움의 역사는 자신의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이다.³⁴¹⁾ 예수님의 충만은 결코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다. 특히, 이 채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기도의 원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³⁴²⁾ 따라서 성육신적 삶의 실천을 위한 참가자들은

340) 본 연구자의 경우는 이것을 ‘살롬교회를 아십니까?’라는 살롬교회 소개 책자로 발간하여 개인 소유화 하도록 했으며, 살롬교회 훈련 커리큘럼 교재 속에 포함시켜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고, 매년 제직 서약을 통해 반복교육 하도록 하고 있다.

341) 골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342)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중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기도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채움의 삶을 위해 철저히 주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여기서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다. 이 과제에 관해서는 앞 장인 제 5장에서 성육신적 삶의 내용(성육신 커리큘럼)과 성육신적 삶의 원리를 고찰하면서 이 과제를 풀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채워야 할 내용과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롬교회의 교육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살롬교회 성육신 교육과정

앞장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삶은 한 마디로 하나님 나라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그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에 동참하는 공동체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봉사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 해리스가 구조화 한 다섯 가지 교육목회 커리큘럼이 교회의 본질적 개념들과 상응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성육신적 커리큘럼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다섯 가지 커리큘럼의 의미와 내용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앞장에서 살펴 본 다섯 가지 성육신 교육과정을 살롬교회 교육과정의 기본 틀로 잡았다.

가. 케리그마(말씀 선포와 전도) 교육과정 : 복음화

앞장에서 살펴본 케리그마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은 복음화로서 말씀의 선포와 듣기를 통한 복음 이해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었고, 이를 위해 기대되는 학습 경험은 복음에 대한 확신, 회개와 회심의 체험, 신앙고백, 말씀묵상의 생활화, 전도 지향적인 생활, 전도에의 헌신 등이었으며, 특히, 케리그마 교육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는 주님과와의 만남 사건, 바른 성경관, 말씀의 생활화, 그리고 교회를 전도 지향적인 관점에서 재인식하고 일터를 복음의 접촉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1)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설교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말씀 선포(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의 말씀 선포(전도)이다. 교회 안에서의 말씀 선포인 설교는 케리그마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

에서 생기고 성장하기 때문이다(롬 10:17).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되게 설교해야 한다.³⁴³⁾ 이러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³⁴⁴⁾ 그리고 청중들 역할 또한 중요하다. 클라이드 리이드(Clyde Reid)는 '설교의 위기'라는 그의 책에서 "설교에는 근본적으로 잘못이 없다 그러나 회중들이 진심으로 경청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³⁴⁵⁾ 마틴 루터는 "설교란 설교자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에 의해 이룩된다."고 말을 했다. 따라서 청중의 말씀 '듣기'와 관련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⁴⁶⁾

다양한 형태의 성경 읽기 및 묵상자료집을 제공하여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지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복음은 매우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러나 시대별, 연령별, 지역별로 복음과의 접촉점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이다.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2) 복음의 접촉점으로서의 삶의 현장

말씀 선포의 또 하나의 형태는 전도이다.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확신을 갖게

343)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로서의 말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 인격으로 오신 말씀(예수 그리스도), 증거된 말씀(케리그마), 그리고 기록된 말씀(성경말씀) 등 여러 가지 개념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설교란 이 다섯 가지 개념이 합쳐져서 역사하는 것이 설교이다. 박선희, "현대 설교학," (강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nter 1997).

344) 설교자의 성품(정체성, 진실, 겸손, 충성, 자유의식 등) 성서적 바른 설교자상(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자, 시대의 변화와 방향에 관심, 진리의 구체화 능력을 가진 자, 절대 진리를 식별하는 능력, 전문성, 감정지수가 높은 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 창의적 용기, 신학화 능력, 효과적인 언어구사, 건강한 마음과 몸, 성령 충만, 기도, 사랑의 열정, 말씀의 계시자, 생명을 낳는 예술가, 권세 있는 해방자 등), 다양한 형태의 설교(이야기로서의 설교, 철학으로서의 설교, 계율적인 설교, 선포로서의 설교, 강해설교, 예배로서의 설교, 대화로서의 설교, 치유능력으로서의 설교, 연출로서의 설교 등), 그리고 설교의 방법(서론의 중요성, 단순한 복음, 성경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적 설교, 구원적 동참, 종말 지향적 설교 등)을 갖추기 위해 뼈를 깎는 진통을 겪어야 한다. Ibid.

345) Clyde Reid, 설교의 위기,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38.

346) '듣기'와 관련된 학습 경험에는 설교 경청, 성경 읽기, 사경회, 가족과 함께 하는 말씀 묵상 등이 있고, 살롬교회 훈련 과정으로는 '영생의 삶' 과정이 있다.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갖는다.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더욱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과 학교와 삶의 현장(일터)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평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천막을 만드는 일상 노동의 작업장이 복음 증거의 현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일과 직장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 주일만의 모임이 아닌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연장되어지는 말씀의 생활화 훈련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각종 신우회, 혹은 기독교 학생회에 목회자를 파견할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인근의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와 성경공부의 장을 제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속에서 직업과 일터, 자신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³⁴⁷⁾

나. 레이투르기아(예배와 예전) 교육과정 : 신앙화

앞장에서 살펴 본 레이투르기아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은 신앙화로 예배와 성례전, 기도, 절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대되는 학습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감사의 응답, 축제로서의 예배 의미와 가치경험, 삶으로서의 예배 의미와 가치경험, 영성의 이해와 경험, 성만찬 예전(세례와 성찬)을 통한 의미와 가치경험, 예배와 예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삶의 스타일) 형성 등이었다. 살롬교회의 레이투르기아 교육과정(예배와 예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주일성수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과 기독교적인 예배의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실천들,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의 절기의식에 관한 것들이다.

(1) 주일 성수 의미의 회복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주일은 노동을 위한 휴식의 날로 이해되어지거나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하게 지내는 날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에 있다. 이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

347) '전도 폭발 훈련'은 삶의 현장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는 좋은 훈련과정이다.

게 창조하시고, 인간의 첫날을 노동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날이 주일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삶의 현실적인 위협들, 더 큰 부름 얻을 수 있는 유혹, 더 큰 즐거움이 있는 듯한 현실 앞에서, 인간의 모든 일들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실존적인 신앙고백이 되는 것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 안식일의 의미는 주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었다.

교회는 이런 주일 성수의 의미를 진정한 안식의 의미에서 강조하고, 주일을 기독교 정체성을 찾는 날로서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에서 주일 성수의 의미를 강조하게 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나 일용직 노동자 등 주일 예배에서 소외되는 분들을 위한 이해와 역할 문제이다. 복음화 차원에서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주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 기독교적 예배의 회복

예배가 교회 공동체의 가장 고귀한 일이요 핵심인 일이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특히 성장 세대들)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은 교육지도자들을 매우 당혹하게 한다. 이것은 기독교적 예배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 성장 세대들(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을 위해 그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 분위기를 가꾸어 가고, 언어와 형식에 변화를 주어 그들과 호흡을 함께 해 갈 수 있어야 한다.³⁴⁸⁾ 둘째, 참석자들이 참여자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⁴⁹⁾ 셋째, 잃어버린 성만찬을 예배 예전의 자리에서 회복하는 일이다.

348) 전통적인 교실 스타일을 벗어나 설교대와 조명, 바닥과 장식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간 배치의 변화를 주거나, 기독교적 의미들을 제공할 수 있는 상징들을 장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홍명희, “교회학교 예배 갱신의 과제,” *교육교회*, 1996년 1월호, 4-5.

349) 살롬교회에서는 자연에서 드리는 예배(봄, 가을), 창작 찬양 예배(창작 복음성가 찬양예배, 찬양콘서트), 성가대 음악예배(년 3회), 교회학교의 밤(여름 및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발표회), 교회력에 따른 특별예배(성탄감사예배, 창립감사예배, 부활절 감사예배, 추수감사예배),

성만찬 예전은 바로 성육신 된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다. 성만찬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동참하므로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는 소망과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넷째, 간 세대 예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간세대 예배는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고에 편향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지니게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³⁵⁰⁾ 간세대 예배란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간세대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의 공통된 기억과 전승들을 함께 나누게 된다. 최소한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주일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공동예배로 바꾸어보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마지막 다섯째, 예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배 순서들의 성서적 의미와 역사적 변화, 예배하는 자의 자세, 예배의 본질과 목적, 예배의 원리, 삶과의 연관성 등 예배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거나, 다른 시대에 행해졌던 예배를 재연해 보고, 다른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을 갖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³⁵¹⁾

(3) 절기의식을 통한 신앙교육

교회 절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교회가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기념 절기의 두 종류이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해를 이등분하여 첫 번째 부분을 탄생주기로, 두 번째를 부활주기로 구분하였다.³⁵²⁾ 탄생주기란 강림(대림)절-성탄절-주현절로 이어지는 절기이며, 부활주기란 사순절-부활절-오순절로 이어지는 절기이다. 여기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감사의 절기를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기념 절기에는 종교개혁주일, 교회 창립기념주일, 총회제정 기념주일이나 특별주일, 그리고 국가가 제정한 각종 기념주일(3.1, 6.25, 8.15)이 있다. 이러한 절기들은 특히 성장 세대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는 시각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중요한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며, 신앙교육의 중요한 교육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절기 교육은 추상적인 복음의 진리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기념주일 특별예배(3.1절, 6.25, 8.15), 매월 1일 가정별 새벽 예배, 드라마 예배(년 3회), 영상예배(오후 예배 시 수시로) 등을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예배로 드린다.

350) 오인택 외 4인 편,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6), 310.

351) 살롬교회 예배 훈련 과정으로는 '거듭난 삶' 과정이 있다.

352) Westerhoff III, *교회의 의식과 교육*, 박종석 역 (서울: 베드로서원, 1992), 96.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절기의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하거나, 교회의 전통 속에서 훌륭한 절기 예식들을 찾아내어 활용하고, 각 절기의 의미에 알맞은 효과적인 절기 프로그램들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기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조성하며, 세대를 뛰어넘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들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디다케(가르침과 훈련) : 제자화

앞장에서 살펴 본 디다케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은 제자화로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기대되는 학습 경험은 성경말씀의 역동적 이해와 경험, 구원의 복음이해와 경험, 기독교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기독교적인 세계관(가치관)의 형성,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 형성, 하나님 나라의 비전 형성 등이었다. 살롬교회의 디다케 교육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은 실천적 훈련 커리큘럼을 통한 성육신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의 훈련이다. 살롬교회는 청장년을 위한 실천적 훈련 커리큘럼을 <표 7> 과 같이 개설하여 성육신 원리 가운데 순환의 원리를 따라 훈련을 실시한다.³⁵³⁾

<표 7> 살롬교회 실천적 훈련 커리큘럼

과 정	반 명	교 재 명	훈련 과정 소개	비고
신앙 고백반	새가족반	살롬의 삶	처음교회에 등록한 자	◎
	확신반	영생의 삶	구원의 확신	●
	중생반	거듭난 삶	성화의 삶 훈련과 예배	●
	청지기반	청지기 삶	청지기 삶의 원리	●
	사역자반	성육신적 삶	성육신적 삶의 원리와 실재	●
신앙 훈련반	제자학교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 사역 과정	▲
	사랑의학교	사랑하는 삶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한 14가지 사랑훈련	●
	윤리학교(1,2)	어떻게 살 것인가	사상수훈을 통한 크리스천 윤리훈련	●
	찬양학교(1,2)	경배와 찬양	깊은 찬양의 영성 속으로	◎
	전도학교	전도폭발훈련	국제 전도폭발훈련	◎

353) <표7>의 살롬교회의 실천적 훈련 커리큘럼은 본 연구자가 지금까지 목회현장에서 실천해 온 것임을 밝힌다. (비고란의 기호는 ◎ 표는 외부에서 사용된 교재, ● 표는 본 연구자가 직접 만들어 이미 책으로 발간된 교재거나 책으로 발간은 안 되었지만 완성된 교재, ▲ 표는 완성단계에 있는 교재, 그리고 △ 표는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1/2정도 완성된 교재이다.)

신앙 훈련반	기도학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중보 기도학교	▲
	믿음학교	믿음을 더하소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한 믿음 훈련	●
	순종학교	순종학교	순종을 통한 체험적 신앙	▲
	봉사(섬김)학교	이웃을 내 몸 같이	봉사와 섬김의 실제 훈련	△
	직업학교	크리스천 직업학교	직업의 영성을 갖기 위해	△
	환경학교	환경 지킴이	경건, 절제, 생명운동	△
	가정학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
	문화학교 등...	문화 공동체	기독교 문화 창달	△
신앙 생활반	구약개론	복음의 삶	총회 교육자원부	◎
	신약개론	복음의 삶	총회 교육자원부	◎
	모세오경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속사 신학	●
	창세기		창조, 족보, 족장들의 역사	▲
	시편	복 있는 삶	시편을 통한 삶의 묵상	△
	마가복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
	요한복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
	사도행전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위한 훈련	▲
	골로새서	새 사람을 덧입는 삶	충만한 삶을 위하여	▲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유하는 삶을 위하여	▲
	에베소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성도들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 (교회 공동체)	●
	빌립보서	늘 기뻐하면서	복음적 기쁨의 삶을 위하여	●
	야고보서 ...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실천적 행함을 위하여	●
	교사대학	교사대학 교재	총회 교육자원부	◎
세미나	각종 세미나...			

위의 <표 7>과 같은 살롬교회의 실천적 훈련 커리큘럼과 훈련 방법들은 그 교회가 처한 삶의 정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계속 새롭게 개발해 나가야 할 작업이다.³⁵⁴⁾ 어린 영아부에서 대학부까지는 본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 교

354) <표 7>의 살롬교회 실천적 훈련과정은 신앙 고백반, 신앙 훈련반, 신앙 생활반, 그리고 각종 세미나 등 4단계로 나누어지고 신앙 고백반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과목이며, 신앙 훈련반과 세미나는 선택과목이다. 그리고 신앙 생활반은 장년부 교회학교 교육과정으로 평생교육과정이며, 훈련교사가 많아질 경우는 소그룹화 해서 선택과목으로 운영된다. 신앙 고백반은 필수 과목으로 살롬교회 성도이면 누구나 꼭 거쳐야 할 교육과정이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직분(장로, 권사, 안수집사, 구역교사, 훈련교사, 기타 말씀 사역자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롬의 삶'은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 '영생의 삶'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거듭난 삶'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인 성화의 삶의 원리와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인 예배를 다룬다. '청지기 삶'은 성서적 바른 교회상을 통해 살롬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목적(교회의 정의, 목적, 목표, 목회원리, 목회철학, 목회원칙, 교육과정, 소그룹개발 등)을 다루고 나아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청지기론을 다룬다. 신앙기초반의 마지막 훈련과정인 '사역자 반'은 살롬교

육자원부에서 개발한 ‘하나님 나라: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다.

라. 코이노니아(교제와 친교) 교육과정 : 문화화

앞장에서 살펴 본 코이노니아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은 문화화로 교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경험이었고, 이를 위해 기대되는 학습 경험은 교제의 기초로서 관계 회복의 경험, 교제의 장으로서 공동체 경험, 교제의 실존적인 하나님 나라의 문화경험 등이었다. 살롬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들은 가정의 회복, 청소년 문화에 대한 교회의 관심,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와 건전한 놀이문화, 그리고 통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대한 것이다.

(1) 그리스도인 가정의 회복

급속한 사회변동은 부부관계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상호의존적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독립성 증가로 이혼율 증가, 탈핵가족화, 전자 의사소통의 발달로 부부간의 대화 단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문화 이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모는 문자세대, 자녀는 영상세대이다. 그동

회의 말씀 사역자 훈련과정으로 성육신적 삶의 원리와 실재를 다룬다. 이러한 신앙 기초반의 모든 훈련과목들은 일대일 또는 소그룹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대일 양육 리더와 소그룹 리더들은 신앙 고백반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로 교회가 임명한 자에 한한다. 신앙 훈련반은 13개의 학교(제자학교, 사랑의학교, 윤리학교, 찬양학교, 전도학교, 기도학교, 믿음학교, 순종학교, 봉사(섬김)학교, 직업학교, 환경학교, 가정학교, 문화학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문 소그룹 리더들에 의해 진행되며, 성도 개인의 달란트대로 훈련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해당 분야 소그룹으로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일하게 된다. 신앙 훈련반의 각 반에는 실천적 장이 하나씩 있다. 예를 들면 사랑의 학교를 수료하면 ‘살롬 사랑회’라는 실천적 장에 서약하고 가입할 수 있다. 살롬 사랑회는 ①장기 기증 ②사랑의 헌혈 ③입양 아동 갖기 ④사랑의 빵(생명의 빵) 나누기 ⑤사랑의 불씨 나누기 ⑥사랑의 쌀 나누기 ⑦일인 일 사랑의 현장 갖기 ⑧기득권 포기 전개 등과 같은 일을 실천하는 소그룹이다. 개척 초기의 경우는 매년마다 가능한 훈련과목을 개설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앙 고백반과 신앙 훈련반은 주일반과 주간반으로 나누어 소그룹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일반은 예배를 드리기 전이든지 예배를 드린 후든지 전교인이 교육과정 한 과목 이상 수강하도록 하고, 평일반에는 훈련생들의 시간과 환경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신앙 생활반은 신앙 고백반을 거쳐 신앙 훈련반에서 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봉사를 하면서 계속되는 말씀의 공급을 얻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평생교육 과정’이다. 이 훈련과정은 전교인을 대상으로 구역예배 시간을 교회학교로 개설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나는 전문 사역자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필요시마다 개설하여 실시하게 된다.

안 부모가 자녀에게로 향했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체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배워야 하는 쌍방적 커뮤니케이션 체제로 변화되었다. 현실은 권위주의(부모), 합리주의(자녀), 감성주의(손자)가 공존하는 세대다.³⁵⁵⁾ 특히 주 5일 근무시대의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가족과 함께 할 여가시간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 변동의 결과 지금 한국은 이혼, 낙태와 사생아, 가출 청소년, 배우자 구타, 중년의 위기와 노인의 학대, 심지어는 동성연애 등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⁵⁶⁾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 가정교육을 일차적 관심에 두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 가정교육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지닌다. 하나는 '가정에서의 기독교 가정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의 가정을 위한 기독교 가정교육'이다.³⁵⁷⁾ 교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가정 사역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³⁵⁸⁾

(2) 청소년 문화

요즘 청소년들은 두 개의 세계를 살고 있다. 현실과 가상공간이 그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 학생들의 컴퓨터 이용률은 88.7%에 이른다.³⁵⁹⁾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의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속도와 즐거움을 추구하며, 전자 메일과 채팅이 일상화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들만의 문화의 특징과 삶의 양식이 형성되어가고 있다.³⁶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자유의사 표현공간이다. 청소년들은 놀이를 통하여 사회의 가치관을 배우고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삶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청소년들의 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놀이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념적 차원에서 볼 때 다원주의 문화³⁶¹⁾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

355) 박상진, "가정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교육자료 24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82-397.

356) 오인택, "현대사회의 가정진단," Ibid, 218-224.

357) 박상진, "가정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목적," 384.

358) 구체적인 기독교 가정교육으로는 주말 가족캠프, 가족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 가족 축제,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세미나, 아버지 학교, 남편 사랑학교, 부부 성장학교, 결혼 예비학교, 고부학교, 행복 습관 워크숍, 갈등관리 워크숍, 가족중심 성가합창단, 가족 상담소 운영, 자녀와 함께하는 야간 기차여행, 청소년 순결프로그램, 청소년 성교육, 노인복지대학 등을 들 수 있다.

359) 정민승, "청소년과 사이버문화," *교육개발*, 2001년도 8월호, 57.

360)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게임(28.9%), 정보검색(24.3%), 이메일교환(23.5%), 채팅(14%) 순이다. 윤철경, "사이버 세계와 청소년 문화," *교육개발*, 2001년도 8월호, 49.

361) 다원주의 세계관은 반문화적 성격을 띠고, 인간의 육체와 감각의 영역을 중시하며 직접 상

게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교회와 가정은 청소년들 스스로 삶의 현실을 바르게 반영하는 창조적인 문화 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적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을 조직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문화매체들과 컴퓨터를 통한 가상의 공간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대안들을 개발해야 한다.³⁶²⁾

(3) 여가와 건전한 놀이문화

일찍이 우리의 삶은 노동과 여가가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 집안의 마당은 콩 타작을 하는 노동판이면서 동시에 노래 부르는 놀이판이었으며 계절의 변화에 따른 여가 문화도 다양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에 이어 밀려들어온 서구의 물질문명, 개발지상주의, 사회구조의 산업화 등으로 인해 생명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그나마 충분치 않은 여가마저 과소비, 퇴폐, 향락, 범죄, 이기주의로 점철되었다.³⁶³⁾ 특히, 조기 은퇴로 일터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공허감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여가 문화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회 안에서 잘못된 여가로 인해 황폐해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장을 마련해 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³⁶⁴⁾

호작용의 체험에서 생성되는 의미성(signification)을 주장한다. 그리고 종래의 거대이론들(methatheories)이 지니고 있는 허구성을 폐기하고 다원적 현상 속에 내재하는 여러 작은 이론들을 중요시하며 진리의 다원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획일주의적 사고가 통하지 않는다. 모든 분야에서 독자성과 자율성이 이루어지며, 절대적 가치관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다원종교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신적 내면세계에 가치관의 혼동을 안겨주고, 종교집단들에게는 무절제한 자기 팽창주의를 갖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무원칙한 종교문화 정책을 낳게 한다. 특히 종교적 배타주의로 인한 종교 간의 심한 대립과 갈등, 종교적 우월주의로 인한 편견과 차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2001), 11-261.

362)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문화공간으로는 음악 감상실, 북 카페, 쉼터, 운동시설(농구대, 탁구대) 등, 놀이문화 집단으로는 연극반, 사진반, 중창반, 영상반, 만화반, 기타반, 드럼반, 영화 감상반, 각종 스포츠 반, 인터넷 대화방 등, 청소년 문화 사역으로는 문화축제, 문화강좌, 작은 음악회, 영화상영, 교회중심 참여형 체험여행, 생태관광, 선교유적지 탐방여행, 청소년 순결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실 운영, 도서관 운영(도서대여, 독서지도, 영어 동화 읽기) 등을 들 수 있다.

363) 김재일, “주5일 근무제와 생태적 여가문화,” *환경과 생명*, 2002년 가을호, 157-58.

364) 문화 강좌나 취미, 스포츠 동아리 활동, 작은 음악회, 영화 상영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웃을 초대하는 주말캠프 프로그램 등, 교회 공간 안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좋은 책들을 대여해 줄 뿐 아니라 도서실 운영 등 다양한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4) 통일 사회로의 대비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다. 통일사회는 우리민족이 가지는 특별한 사회상황이라 하겠다. 하나의 역사, 하나의 전통, 하나의 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긴장 가운데 대치된 삶을 각각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우리 민족이기에 통일은 우리의 지상 과제이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분단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원죄'와도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악과 부정적인 문제들이 분단 자체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분단은 한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근원적인 악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민족이 참된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험난한 고비를 겪어야 될 것이 분명하다. 양극화 현상의 문제, 사회체제의 이질화 문제, 민족의 동질성 회복문제, 통일에 따르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문제, 통일에 관한 국민적인 의식의 합의점 도출문제, 등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통일사회를 대비하여 교회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며 통일 문화를 훈련해야만 한다.³⁶⁵⁾

마. 디아코니아(봉사와 섬김) 교육과정 : 역사화

앞장에서 살펴 본 디아코니아 교육과정에서의 핵심개념은 역사화로 섬김과 봉사, 치유와 화해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경험과 확장이었고, 이를 위해 기대되는 학습 경험은 헌신과 봉사와 선교로써 청지기의 정신 함양,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 청조질서의 보전과 생명존중, 직업과 소명의식의 형성, 정의와 평화의 통일, 살롬을 향한 실천 등이었다. 살롬교회의 디아코니아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소비문화와 관련한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 직업과 소명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해, 봉사와 섬김의 장 확대, 평화와 생명 보존을 위한 실천 등에 관한 것이다.

(1) 소비문화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황상민은 “젊은 층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어른들이 이를 지

365) 통일준비헌금, 북한선교헌금을 통하여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통일을 위한 기도와 구체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원해 주는 형국이다”며 “현재 청소년들의 소비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독립적인 주류문화의 하나로까지 자리 잡았다”고 진단하고 있다.³⁶⁶⁾ 이처럼 197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나 자라온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를 자기표현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흔하고 풍요롭지만, 젊은 층은 함께 나누어 쓰거나 빌려주는 일에는 지극히 인색하다. 이런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삶은 성서가 가르치는 가치관과는 상치된다. 따라서 교회는 각 개인이 하나님나라의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³⁶⁷⁾

(2) 직업과 소명

성경은 소명을 어떤 직업이나 일자리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정과 개인적인 인간관계,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일을 포괄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소명을 뜻한다.³⁶⁸⁾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므로 피조물도 그의 모범을 따라 일해야 한다는 분명한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다.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학교로서 인생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며,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수단인 동시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교의 연결점으로 직업을 재인식해야 한다.³⁶⁹⁾

(3) 봉사과 섬김

사회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터전이요, 사회는 교회가 자리 잡고 일해야 하는

366) 황상민, “원하는 건 꼭 사서 나를 알린다: 1020 P세대,” 동아일보 2003년 6월, 10일자, 27.

367) 살롬교회에서는 ‘청지기 학교’를 통하여 ‘바른 삶 살기’를 전개하고 있다. 바른 삶 실천 원리로서 경건운동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여 실천하며, 절제운동은 집안 살림살이, 생활습관(습관, 물 사용, 전기 사용, 시간 사용, 가정의례, 기타) 등으로 나누어 세부항목을 지키도록 하고 생명운동으로는 공해문제, 물 살리기, 땅 보호(쓰레기, 식생활 개선), 사랑의 현장 갖기 등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368) David Kruger,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임성빈 역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68.

369) 살롬교회에서는 실천적 훈련과정으로 ‘직업학교’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과 소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훈련과정이다. 이랜드 가족 홍보실 편, *직업의 의미* (서울: 이랜드가족홍보실), 6-16.

일터이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사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음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다(요일 4:11). 여기 ‘형제자매’는 모든 사람, 즉 세상과 사회를 뜻한다. 특히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음을 말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말한다(고후 5:20).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는 필수과목이다. 교회가 섬겨야 할 대상은 지역사회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다. 이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재난이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현장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연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교회는 먼저 봉사 훈련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및 사회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봉사현장을 개발해 나가고, 교회에서 모집하고 운영하는 봉사활동을 학교나 구청에서 인정하도록 하여 교회가 직접 봉사현장을 개척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³⁷⁰⁾

370) 살롬교회에서는 실천적 훈련과정으로 ‘봉사와 섬김학교’가 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봉사와 섬김으로 지역사회를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사회봉사의 실천방향을 정신적 영역, 내용적 영역, 실천적 영역으로 나누어 세웠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는 교회 건물을 이용한 사회봉사와 교회 밖 현장 활동으로 크게 나누고, 각각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에 옮기도록 교육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건물을 이용한 사회봉사에서 교육활동으로는 1)야간학교 개설 2)노인학교 3)가정교육(예비부부 교실, 임산부 교실, 부부교실, 고부교실, 부자교실, 형제교실 등) 4)성인교육 5)부녀교육 6)통일교육 7)여가선용 교육 8)독서실 9)상담실 운영 10)생명의 전화 개설 등이며, 교회건물을 이용한 봉사활동으로는 1)건물대여 2)탁아소운영 3)직업 소개소 4)중고 가구, 의류수집 5)지역사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6)일일 의료 진료소 7)지역사회 일꾼들 위로회 8)경로대회 9)체육대회 등이다. 교회 밖 현장 활동으로서 교육활동에는 1)가족계획 계몽지도 2)보건위생 계몽지도 3)의생활 개선 계몽지도 4)식생활 개선 계몽지도 5)의식구조 개선 계몽지도 6)미신타파 계몽지도 7)유기영농법 계몽지도 8)가축사육법, 농사기술, 농가부업 지도(전문가 초청) 9)자연보호 운동 전개 10)교양강좌 및 어린이 정서교육 지도 11)문화진흥 12)건강한 레크리에이션 보급 지도 등이 있고, 봉사활동으로는 1)의료봉사 2)노동봉사 3)농어촌 생산물 직거래 실시 4)복지시설 건립 5)불우이웃 방문 6)복지사업에 인적 자원 제공 7)소년소녀 가장과 결연 맺기 8)외국인 노동자들 권

(4) 창조의 보존과 생명 존중³⁷¹⁾

성경의 창조기사는 자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 준다.³⁷²⁾ 첫째; 창조기사는 세계가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로 있게 되었음을 말한다. 둘째; 창조기사는 자연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한다. 셋째; 창조기사는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임을 말한다. 넷째; 창조기사는 모든 생명은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가짐을 말한다. 다섯째; 창조기사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말한다. 여섯째; 창조기사는 모든 인간이 역사의 주체임을 말한다. 일곱째; 창조기사는 인간이 자연의 운명에 참여해야 할 것을 말한다. 여덟째; 창조기사는 개방된 역사에로의 세계를 말한다. 아홉째; 창조기사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한다.³⁷³⁾ 열 번째; 창조기사는 성령을 새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한다.

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는 결국 인간의 소외 내지 불순종과 교만, 즉 하나님 없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에 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파괴의 해결과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진정한 길은 창조계시의 문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³⁷⁴⁾

익 보호 9)일선장병 위문 활동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회가 사회봉사의 실천방향에 따라 지역사회에 상황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172-174.

371) 1972년 스톡홀름에서 발표된 유엔의 ‘인간 환경 선언문’은 인간이 환경을 변혁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경고하면서, 개발을 위해 인간 능력을 그릇되게 사용하면 인간 존재와 인간환경에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선언문은 “이제 인류는 역사상의 전환기에 도달하였다. 우리 인류는 세계 어디서나 환경의 영향에 가일층 깊은 사려와 주의를 하면서 행동할 때가 왔다”고 결론 내렸다. 이 문제는 이제 ‘생태계의 위기’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 즉, ‘생존의 문제’로서 전 세계, 전 인류가 저야할 공통된 문제가 되었다. “인간환경선언문” 다음 넷, 4월 인용. Online: <http://user.chollian.net/~moosoon/env/suneon.htm>.

372)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을 참고하라.

373) ‘다스림’과 ‘정복’(창126-28)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는 인간중심적 세계관 비판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 ‘다스린다’라는 말은 억압하다, 파괴하다, 없애버리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장려하다’ ‘돌보다’ ‘가꾸다’ ‘보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섬김의 다른 형식인 것이다. 또한 ‘정복하다’라는 말은 착취와 파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인간이 자연을 가꾸어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을 뜻한다.

374) 살롬교회에서는 실천적 훈련과정으로 ‘환경학교’가 있다. 환경학교는 창조기사에 나타난 창조질서를 통해 자연도 구원의 대상임을 가르치고 구체적인 실천적 삶으로는 ‘생명운동’으로 환경 가꾸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생명운동은 크게 공해문제, 물 살리기, 땅 보호(쓰레기, 식

위의 살롬교회 성육신 교육과정을 정리하면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살롬교회 성육신 교육과정

성육신 교육과정 영역	핵심내용	기대되는 학습경험	실천적 훈련과정과 실천내용
케리그마 (말씀선포와 전도)	복음화 (말씀의 선포와 듣기를 통한 복음 이해와 하나님 나 라의 경험)	복음에 대한 확신, 회개와 회심의 체험, 신앙고백, 말 씀묵상의 생활화, 전도 지 향적인 생활 등	새가족반, 확신반, 중생반, 전도 폭발훈련, 신앙생활반, 말씀을 말 씀되게 하는 설교, 설교경청훈련, 성경통독반운영, 사경회,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묵상, 신우회 지원, 직장성경공부, 기독학생회, 대학 생선교회, 직장선교회 등
레이투르기아 (예배와 예전)	신앙화 (예배와 성례전, 기도, 절기를 통 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감 사의 응답, 축제로서의 예 배 의미와 가치경험, 삶으 로서의 예배(예배가 삶으 로 확대되는)의 의미와 가 치경험, 영성의 이해와 경 험, 성만찬 예전(세례와 성찬)을 통한 의미와 가치 경험, 예배와 예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삶의 스타일) 형성 등	중생반, 찬양학교, 기도학교, 믿 음학교, 예배와 예전 세미나, 신 앙생활반, 주일 성수의미의 회 복, 예배실 공간의 변화, 참여적 예배로의 전환, 성만찬예배의 회복, 간세대 예배의 확대, 가정 예배, 야외예배, 창작 찬양예배, 성가대 음악예배, 교회학교의 밤, 특별새벽예배, 가정별 새벽 예배, 창립감사예배, 부활절감사 예배, 성령강림절예배, 추수 감 사예배, 성탄감사예배, 기념주일 예배, 특별예배, 드라마예배, 영 상예배 등
디다케 (가르침과 훈련)	제자화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 험)	성경말씀의 역동적 이해와 경험, 구원의 복음이해와 경 험, 기독교교리에 대한 체계 적인 이해, 기독교적인 세계 관(가치관)의 형성,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 형성, 하 나님 나라의 비전 형성 등	어린 탁아부에서 대학부까지는 총회교육자원부(통합)의 교육과정 을 따르며, 청장년은 살롬교회 실 천적 훈련 커리큘럼(표7)을 따른 다. <표7>과 각주 353번을 참조 하라.

생활 개선), 사랑의 현장 갖기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코이노니아 (교제와 친교)	문화화 (교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경험)	교제의 기초로서 관계 회복의 경험, 교제의 장으로서 공동체 경험, 교제의 실존적인 하나님 나라의 문화경험 등	실천적 훈련과정으로는 청지기반, 사역자반, 제자학교, 윤리학교, 가정학교, 문화학교, 각종 세미나가 있다. 실천내용으로는 주말 가족 캠프, 가족을 위한 영성의 삶, 가족 축제,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세미나, 아버지 학교, 남편 사랑 학교, 부부 성장학교, 결혼 예비 학교, 고부학교, 행복 습관 워크숍, 갈등관리 워크숍, 가족중심 성가합창단, 가족 상담소 운영, 자녀와 함께하는 야간 기차여행, 청소년 순결예식, 청소년 성교육, 노인복지대학, 음악 감상실, 북 카페, 쉼터, 운동시설(농구대, 탁구대) 등, 놀이문화 집단으로는 연극반, 사진반, 중창반, 영상반, 만화반, 기타반, 드럼반, 영화 감상반, 각종 스포츠 반, 인터넷 대화방 등, 청소년 문화 사역으로는 문화축제, 문화강좌, 작은 음악회, 영화상영, 교회중심 참여형 체험여행, 생태관광, 선교유적지 탐방여행, 청소년 상담실 운영, 도서관 운영(도서대여, 독서지도, 영어 동화 읽기)문화 강좌나 취미, 스포츠 동아리 활동, 작은 음악회, 영화 상영, 통일준비헌금, 북한선교헌금, 통일을 위한기도회 등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역사화 (섬김과 봉사, 치유와 화해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경험과 확장)	헌신과 봉사와 선교로써 청지기의 정신 함양,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 창조질서의 보전과 생명존중, 직업과 소명의식의 형성, 정의와 평화의 통일, 살롬을 향한 실천 등	실천적 훈련과정으로는 청지기반, 사역자반, 사랑의 학교, 봉사(섬김)학교, 직업학교, 환경학교, 각종세미나가 있다. 실천내용으로는 바른 삶 살기(경건운동, 절제운동, 생명운동, 각주 366을 참조하라), 사회봉사실천으로는 건물을 이용한 사회봉사와 교회 밖 현장 활동으로 나눔(각주 369를 참조하라), 살롬 사랑회(장기 기증, 사랑의 헌혈, 입양 아동 갖기, 사랑의 빵(생명의 빵) 나누기, 사랑의 불씨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 일인 일 사랑의 현장 갖기, 기득권 포기 전개 등,

			선교활동으로는 병원선교, 의료선교, 찬양선교, 방송선교, 문서선교, 교도소선교, 농어촌선교, 빈민선교, 학원선교, 군선교, 해외선교, 외향선교, 공산권선교, 체육인선교, 장애인선교, 직장선교, 회교권선교, 미종족선교, 인터넷선교, 분립개척선교 등
--	--	--	---

2. 살롬교회 소그룹 개발계획

이상과 같은 살롬교회 성육신 교육과정은 처음으로 총만하게 되는 성육신적 삶에서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채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채움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할 단계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가 목회 현장에서 실천해 왔고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채움의 방법은 바로 소그룹 사역을 통한 채움의 방법이었다. 소그룹 사역은 교회가 공동체적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에 기초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육신적 삶을 위한 채움의 구체적인 방법인 소그룹 사역의 원리를 살롬교회 교육목회 현장에 적용하려고 한다.

가. 살롬교회 소그룹의 개념

살롬교회 소그룹은 성령의 도우심과 잘 준비된 리더십을 따라, 기도와 친교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안전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세 사람 이상 십이 명 이하의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³⁷⁵⁾ 여기에는 가정과 광의적 의미의 개척교회를 포함한다.

나. 살롬교회 소그룹의 목적

살롬교회 소그룹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고백공

375) 아이스노겔(G. W. Icenogle)은 기독교 소그룹의 정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발견하고 성숙시켜간다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3명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친밀한 집단”이라고 말한다.

동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여 서로를 인정하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적 삶을 훈련하여(훈련공동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로 통해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줌으로써(섬김공동체)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로운 소그룹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증인공동체)을 목적으로 한다.³⁷⁶⁾

다. 살롬교회 소그룹 서약

소그룹 서약은 이상적인 그룹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그룹 구성원들을 성숙시키고 세워주기 위해 또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그룹 구성원이 기꺼이 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³⁷⁷⁾ 소그룹 서약을 하는 이유는 그룹의 의도, 책임소재,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해 주고, 그룹의 방향과 경계선을 설정해 주며, 헌신을 강화시켜 주고,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 준다. 그리고 그룹의 일치와 하나 됨을 개발시켜 주고, 그룹의 평가 기준을 제시해 준다. 소그룹 서약은 그룹을 형성하기 전, 그룹을 형성하고 첫 번 모임에서, 새로운 회원이 가입할 경우, 그룹 멤버가 그룹을 떠날 때, 그룹에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서약 기간이 끝날 때 건강한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³⁷⁸⁾ 살롬교회의 소그룹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을 한다.³⁷⁹⁾

1) 책임성 서약 2) 신앙고백 서약 3) 준비성 서약 4) 비밀유지 서약 5) 정직성 서약 6) 개방성 서약 7) 기도 서약 8) 민감성 서약이다.

라. 살롬교회 소그룹 영역³⁸⁰⁾

376) 이 목적 진술에서 네 종류의 소그룹 영역을 볼 수 있다. 즉 고백공동체 영역, 훈련공동체 영역, 섬김공동체 영역, 증인공동체 영역이다.

377) Gareth Icenogle, "소그룹 목회," (강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ummer 1999).

378) Ibid.

379) 이 여덟 가지 서약은 에반스(J. Louis Evans)가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소그룹 서약에 포함될 내용으로 보고, 살롬교회 소그룹 서약문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모든 모임에 참석할 것(책임성 서약), 시간을 잘 지켜 열심히 참여할 것(준비성 서약) 그룹의 비밀을 유지할 것(비밀유지 서약), 그룹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할 것(기도 서약) 등과 같은 것이다. 정직성 및 개방성 서약이란 서로 방문하며 물질적, 정서적, 영적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지도록 삶을 열어놓은 것을 의미한다. 민감성 서약이란 그룹의 분위기를 읽어내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룹을 돌보는 일에 민첩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Ibid. Roberta Hestenes, 소그룹을 위한 성경연구 지침서, 김이원, 조남수 공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1), 28-30을 참고하라.

살롬교회 모든 소그룹은 유기적 생명체로서 성육신의 원리인 순환의 원리를 따라 만들어진 다. 살롬교회 소그룹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소그룹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적 삶으로 섬기는 소그룹이다. 살롬교회는 다음의 네 종류의 소그룹 영역을 갖는다. 첫째; 고백공동체 영역(고백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기 위한 제반 모든 활동의 소그룹들이다) 둘째; 훈련공동체 영역(훈련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은 그리스도적 삶의 원리를 훈련하는 훈련 그룹으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반 모든 훈련 소그룹들이다) 셋째; 섬김공동체 영역(섬김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은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실제적인 삶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사역 소그룹들을 의미한다.³⁸¹⁾ 넷째; 증인공동체 영역(증인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은 살롬교회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선교에 헌신하는 소그룹들이다.³⁸²⁾)이 그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소그룹들로는 고백공동체 영역과 훈련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이 속하고, 그리스도적 삶으로 섬기는 소그룹들은 섬김 공동체, 증인 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이 속한다.

마. 살롬교회 소그룹 훈련 커리큘럼

살롬교회의 모든 소그룹 구성원들은 다이나믹한 소그룹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실천적 훈련 커리큘럼에 참여하여야 한다. 실천적 훈련 커리큘럼 중 '신앙 고백반'은 고백 공동체 영역의 소그룹을 위한 것이며, 신앙 훈련반은 훈련 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신앙 생활반과 각종 세미나는 섬김 공동체와 증인 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평생 교육과정이다.

아이스노겔(G. W. Icenogle)은 '소그룹의 믿음의 6단계'³⁸³⁾ 가운데 4단계 내면적

380) 소그룹의 선택은 1년 단위로 하며 본인의 자원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는 그 소그룹에서 매년 선출하여 뽑으며,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혹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임할 수 있으나 2년은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81) 섬김공동체 소그룹들은 1)가르치는 사역, 2)전파하는 사역, 3)치료하는 사역, 그리고 4)목회지원 사역 등으로 세분화 되어 구체적인 전문화로 나아간다.

382)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선교의 다양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선교, 의료선교, 찬양선교, 방송선교, 문서선교, 교도소선교, 농어촌선교, 빈민선교, 학원선교, 군선교, 해외선교, 외향선교, 공산권선교, 체육인선교, 장애인선교, 직장선교, 회교권선교, 미종족선교, 인터넷선교, 분립개척선교 등

383) 믿음의 6단계는 1)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Recognition) 2)제자화 단계(Discipleship) 3)생

여정(Journey Inward)과 5단계 외면적 여정(Journey Outward) 사이에 ‘믿음의 벽’(The Wall of Faith)이 있음을 말하면서 내면적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많은 소그룹들이 탈진상태에 빠져 일할 의욕과 능력을 상실하고 감격이 사라진 채 무너지는 이유가 외면적 여정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내면적 여정을 멈추어버리기 때문이다. 살롬교회의 섬김 공동체와 증인 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을 위한 커리큘럼인 신앙생활반 및 세미나가 ‘평생 교육과정’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³⁸⁴⁾ 이러한 소그룹 사역을 정리하여 하나의 표로 만들 경우 다음의 <표 9>와 같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표 9> 살롬교회 소그룹 훈련 및 사역 구조

성육신과정 (process)	소그룹 특징	소그룹 형태	실천적 훈련 커리큘럼
비움	배우는 소그룹	고백공동체 (고백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기 위한 제반 모든 활동의 소그룹들이다)	각종 예배 참석, 신앙고백반 (새가족반, 확신반, 중생반, 청지기반, 사역자반) 필수과정 이수

산적 삶의 단계(Productive Life) 4)내면적 여정 단계(Journey Inward) ‘The Wall of Faith’(믿음의 벽) 5)외면적 여정 단계(선교, 봉사)(Journey Outward) 6)사랑의 삶의 단계(Life of Love)이다. Icenogle, “소그룹 목회,”

384)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실천적 훈련 커리큘럼 중 신앙기초반 교재들의 요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생의 삶 : 1)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예수님은 그리스도 이십니까 3)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4)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가장 중요한 질문 6)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당신은 누구입니까? 8)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9)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10)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1)네가 이것을 믿느냐? 12)영생의 삶 13)문답과 간증 (2) 거듭난 삶 : 1)구원, 구원, 구원 2)너희 구원을 이루라 3)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4)인격이신 성령 5)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6)성령의 은사 7)성령 충만의 삶 8)예배하는 생활 9)예배의 원리와 과정 10)예배와 찬양 11)예배와 기도 12)예배와 말씀 13)예배와 봉헌 14)문답과 간증 (3) 청지기 삶 : 1)삶의 공동체인 교회 2)주님의 몸된 교회 3)성장하는 교회 4)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5)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6)몸의 청지기 7)재물의 청지기 8)시간의 청지기 9)가정의 청지기 10)교회의 청지기 11)사회의 청지기 12)환경의 청지기 13)문화의 청지기 14)복음의 청지기 15)문답과 간증 (4) 성육신적 삶 : 1)제자의 삶 2)믿음으로 사는 삶 3)은혜를 구하는 삶 4)감사하는 삶 5)기뻐하는 삶 6)고백하는 삶 7)순종하는 삶 8)영적 전쟁의 삶 9)의를 구하는 삶 10)임마누엘의 삶 11)겸손의 삶 12)창조적인 삶 13)자족하는 삶 14)단순한 삶 15)인내하는 삶 16)종말론적인 삶 17)섬김의 삶 18)용서하는 삶 19)일치하는 삶 20)교제하는 삶 21)격려하는 삶 22)화평하는 삶 23)구제하는 삶 24)증거하는 삶 등이다. 살롬교회가 자체적으로 책으로 출판하여 훈련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목회 사역에서 소그룹 훈련 사역은 교회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채움	배우는 소그룹	훈련공동체 (훈련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은 그리스도적 삶의 원리를 훈련하는 훈련 그룹으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반 모든 훈련 소그룹들이다)	각종 예배 참석, 신앙훈련반 (제자학교, 사랑의학교, 윤리학교, 찬양학교, 전도학교, 기도학교, 믿음학교, 순종학교, 봉사(섬김)학교, 직업학교, 환경학교, 가정학교, 문화학교 등) 선택과정 이수
나눔	섬기는 소그룹	섬김공동체 (섬김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은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실제적인 삶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사역 소그룹들을 의미한다)	각종 예배 참석, 신앙고백반 필수과정 이수, 신앙훈련반의 선택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에서 봉사, 신앙생활반 (성경대학) 및 각종 세미나 등 평생 교육과정 계속 훈련
		증인공동체 (증인공동체 영역의 소그룹들은 살롬교회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선교에 헌신하는 소그룹들이다)	각종 예배 참석, 신앙고백반 필수과정 이수, 신앙훈련반의 선택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에서 봉사, 신앙생활반 (성경대학) 및 각종 세미나 등 평생 교육과정 계속 훈련

바. 살롬교회 평신도 소그룹 사역자 훈련

살롬교회 소그룹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단 기간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살롬교회 소그룹 지도자는 살롬교회의 실천적 교육과정 중 신앙고백반과 신앙 훈련반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발굴하여 세운다. 훈련과정에서 소그룹 지도자로 선정되면 살롬교회의 전문 사역자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역자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소그룹 지도자로 섬길 수 있다. 이 평신도 사역자 훈련과정은 매주 두 시간씩 담임 목사가 직접 준비하고 이끌어 가야할 가장 중요한 모임으로 살롬교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불을 붙이고 또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사. 소그룹 사역의 적용 원리

소그룹 사역 원리는 철저히 성육신적 삶의 원리 중 순환의 원리와 성육화 원리를 따른다. 순환의 원리는 비움과 채움, 그리고 채운 것을 다시 나누는 삶의 순환 원리를 말한다. 그리고 성육화의 원리는 성육신의 특성 아홉 가지, 즉 동일시, 공동체적, 참여적, 낮아짐, 충만한, 선교적, 상상적, 의도적, 지속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하며 성령 충만과 기도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만이 가능한 원리임을 앞에서 밝혔다.³⁸⁵⁾

이상과 같이 소개한 소그룹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은 이미 제도화 되고 전통이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 적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좋은 패러다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심각한 혼란을 만들어 내고 건강한 교회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심각한 혼란을 만들어 내는 몇 가지 요소들을 소개하면, 1) 교회 전체의 구조를 동시에 바꾸려는 시도 2)교회를 활동 가능한 회중 단위로 나누는 것에 실패 3)구역은 기존의 모든 프로그램의 부속물로 사용하는 것 4)교회 지도자들이 구역 활동의 지도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 5)적용 결과에 대한 조급한 기대 6)기본적인 단계를 무시하고 직접 활동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 7)그룹들로 하여금 물질적 자원, 기술, 장려, 동기부여 등을 통해 활동하게 하는 것 8)현실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경우 9) 가치의 변화 없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 등이다.³⁸⁵⁾

제 4 절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성육신적 삶

3절 처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육신적 삶에서 살롬교회 성육신 교육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소그룹 사역을 통해 어떻게 채울 것인가?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예수님의 성육신적 삶은 처음으로 끝나지 않고 채운 것을 다시 나누어 줌으로써 성육신적 삶의 목적을 완성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인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1. 성만찬

성육신 하셔서 충만하게 채우셨던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후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385) 소그룹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에 관한 고찰은 새로운 논문 주제로 이 논문의 한계에 속하는 것으로 새로운 과제라 여겨진다.

386)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시한폭탄과 같은 암적인 요소들도 있다. 1)지역에 따른 그룹 조직 2)순간적인 지도력 3) 그룹에 가입한 후 강제적인 회원제 4)너무 크게 시작하는 것 5)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 6)통제가 되지 않는 지도력 7)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8)융통성이 없는 경우 9)눈에 띄거나 감추어진 적대감 10)비전, 방향성, 감독의 부족 11)지나친 관료주의 12)기금을 모으기 위해 그룹을 시작하는 경우 13)프로그램을 완전히 사는 것 14)자립하는 그룹들 15)강요된 임무, 또는 사역 등이 그것이다. Icenogle, “소그룹 목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6, 28). 이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25)고 명령을 하셨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는 성만찬에 중요한 상징적 교훈이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만찬과 관계된 예수님과 서신서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만찬의 중요한 상징적 교훈을 얻게 된다. 첫째는 죄사함이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둘째는 영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요 6:54). 셋째는 십자가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넷째는 부활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요 6:54).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요 6:57). 다섯째는 그리스도와와의 하나 됨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요 6:56). 여섯째는 성도들과 하나 됨이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7). 일곱째는 선교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여덟째는 종말론적 삶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고전 11:26). 아홉째는 나눔과 섬김이다. “떡을 ... 떼어... 주시며, 잔을 ... 주시며”(마 26:26-27). 그리고 열째는 감사이다. “축사(감사)하시교”(고전 11:24).

성만찬은 그 자체가 케리그마이다(고전 11:26). 바로 성찬식의 생생한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이 그림으로 제시되며,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만찬의 상징적 교훈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나눔의 모습과, 그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나눔의 삶은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진리를 부활하심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명령으로 교훈하고 계신다.

2 생명을 낳는 성육신 사역

중요한 것은 이 나눔의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는 성육신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이다. 살롬교회는 나눔의 삶을 통한

성육신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샬롬’(shalom)이라는 용어에 담았다. 샬롬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적 용어이다.

샬롬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구현의 실천적 원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한다.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얻는 원리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먼 곳으로, 먼저는 동질 문화권에서, 그 다음에는 유사 문화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타 문화권으로 선교의 장을 점점 확장해 간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샬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자신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점점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진적 선교 방법을 따른다.

특히 나눔을 통한 성육신적 삶의 구체적인 사역 원리는 생명을 생명을 낳는다는 ‘번식’의 원리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한 알의 밀알 비유(요 12:24)로 말씀하셨다. 밀알 비유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밀이되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내어줌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이며, 동시에 내가 이토록 귀한 존재인가? 라는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발견이 곧 하나님 나라 경험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적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생명을 낳는 성육신 사역에서 중요한 교훈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개척하여 섬겼던 첫 번째 교회³⁸⁷⁾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생력을 갖게 된 교회로 성장했을 때, 본 연구자에게 지난 개척 10년을 돌아볼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주어졌다. 주님의 목회, 교육목회, 그리고 분립목회를 가슴에 품고 섬긴 10년의 자신의 모습은 놀랍게도 그 반대의 모습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포기하고 싶었고 약으로 지탱하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을 때, 위기 때마다 20일 30일 40일 깊은 기도를 통해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셨다. 교회가 성장된 것은 실로 주님의 은혜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비움으로 시작하지 못한 목회였기에 예견된 가시밭길이었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서 돌아본 10년의 섬김은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된 모습 그 자체였다. 자신의 발견은 곧 하나님 나라 경험

387) 본 연구자는 길된교회를 만 10년 간 섬겼고(1990년 9월 9일(창립)~2000년 9월 24일), 샬롬교회를 약 4년을 섬겼다(2001년 3월 18일(창립)~2004년 12월 26일). 뿌려진 씨앗이 나무가 되어 자라고 있다.

이다. 깊은 기도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성육신 모습이었다. 비움으로써 시작된 성육신 사역이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님의 것으로 섬겨야 한다는 교훈이 가슴에 박혔다. 완전봉괴를 경험한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셨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다. 본 연구자에게 이런 경험은 새로운 결단을 낳게 했다. 그것은 바로 비움의 실천에 대한 결단으로, 인생의 황금기라 부르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의 젊음과 열정을 쏟아 부어 맺은 목회의 열매를 비우는 것이었다. 본 연구자가 이것을 마음에 둔 것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만심과 교만을 비우기 위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목회와 분립목회의 비전 때문이었다.³⁸⁸⁾ 결국 이 비움의 결단은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실천에 옮겨졌다.

그러나 비움의 과정은 결코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비우겠다는 결단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비움이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데 있다. 우선적으로 이 비움은 목회자 혼자의 결단이 아니라 목회자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이 결단을 받아주어야 한다.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 파송처럼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성육신적 삶을 이해하려고도, 허락하려고도 하지 않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뉘으로써 성육신적 삶을 완성하려 하실 때, 그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의 개척을 통해 비움을 실천하려 해 보지만 본 연구자에게는 비움과 채움의 순환적 삶의 훈련은 여전히 멀고 험한 길임을 깨닫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었드린다.

388) 여기서 말하는 분립목회 비전은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한다는 비전을 말한다. 10년 동안 성도들의 귀가 따갑도록 설명하고 외친 비전이었다. 10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자생력을 가진 길된교회가 생명을 낳지 못한 것은 목회자 자신이 한 알의 밀로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길된교회가 맺은 열매의 한 씨앗으로서 먼 곳에 떨어져 다시 교회를 낳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제 7 장

결 론

본 논문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회의 목회 형태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문화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성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다극화(다양화)된 컨텍스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요청을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과제 수행을 위해 기독교 프락시스인 성육신을 중심한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델 제시와 이에 따른 현장 적용에 관한 일연구이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개념 이해를 위해 교회라는 말의 변천 과정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개념을 정리하고, 성서가 제시하는 바른 교회상을 고찰하면서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교회는 성육신, 공동체적, 하나 됨, 성장, 선교라는 본질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 개념을 모두 포함한 교회의 정의를 “교회란 그리스도적 삶을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의 삶의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교회상으로 보고 이에 따른 성경적 고찰을 통해 내린 정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적 삶에 이르도록 계발하여, 이러한 삶을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로 규정하였다.

제 3장에서는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흐름을 분석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교육목회의 필요성을 본질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교육목회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해를 정리한 후 한국교회의 기존의 교육목회 패러다임을 프락시스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얻은 결론

은 기독교 프락시스가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모두 다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교회목회를 기독교 프락시스 개념으로 이해하려 할 때, 교육목회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회목회는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회의 본질적 차원에서 필연적인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목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이론적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교육목회 패러다임의 분석을 통해서 본 문제점은 신앙과 삶의 이분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아직도 양자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삶의 괴리현상의 원인이 본질적으로 여기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따르는 과제로는 이분화 구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독교 프락시스로 응답하는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청이다.

4장에서는 기독교 프락시스로 응답하는 교육목회의 원형을 찾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교육목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를 고찰하면서 교육목회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본장에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 예수님,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의 특징적 원리가 모두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특히 앞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볼 때,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독교 프락시스가 성육신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5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 본 내용들을 기초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새로운 교육목회 패러다임으로써 ‘성육신 교육목회 패러다임’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성육신은 교육목회의 전형이라는 사실과 성육신이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육목회 원리를 다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결국 성육신은 하나님의 프락시스의 본질인 동시에,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독교 프락시스의 본질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의 확인에 따라 성육신 교육과정, 성육신적 삶의 과정과 원리, 성육신적 삶의 장과 참가자 등을 구체적인 성육신 교육목회 패러다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6장은 5장에서 살펴본 성육신 교육목회 패러다임 모델을 어떻게 목회현장에 적용할 것인지 ‘성육신적 삶의 과정’ (process)의 특징인 비움과 채움, 나눔의 순환 과정을 기본 틀로 잡고, 본 연구자의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교육목회는 목회의 한 유형이 아니라 목회의 원형

으로서 본질적인 것이며, 결코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응답의 삶으로써 비록 힘들고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가 따르는 길이지만 성육신 원리를 따라 실천함으로써 살롬(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이 시사해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질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종일관 본질적인 것을 찾아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따라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변화된 존재를 의미하며 한 번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 가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교회의 본질적 개념, 교육목회의 본질적 의미, 본질과 문화의 관계 등 본질에 관심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본질은 모든 삶의 원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목회 패러다임의 변혁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교회의 목회 형태의 변화는 본질적 차원에서 필연적이며 한국교회의 침체와 무기력현상, 말씀과 삶의 괴리문제가 바로 이분화 구조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됨을 확인하였다. 셋째는 기독교 프락시스에 의한 교육목회 이해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프락시스는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대한 기독교공동체의 응답이며 교회의 본질적 요소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목회는 기독교 공동체의 기능적 한 측면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삶이며, 목회의 한 종류가 아니라 모든 목회의 원형으로서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프로그램 목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당위성이다. 넷째는 교회 목적의 공유의 중요성이다.³⁸⁹⁾ 그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가 각각 제몹을 다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온 교회 구성원들을 깨워야 한다. 다섯째는 전인적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성이다. 교육과정은 교회의 궁극적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교회의 본질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만 커지고 그 정신과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자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삶의 정황과 환경에 따라서 복

389)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교회의 정의, 목적, 목표, 목회원리, 목회철학, 목회원칙, 과정, 방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음 안에서 계속 새롭게 개발하여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섯째 기도의 중요성이다. 모세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기도였으며,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의 비결도 기도에 있었다. 주님의 것으로만,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목회비결은 기도에 있다. 일곱째는 성육신적 삶의 과정(process)의 중요성이다. 비움과 채움, 그리고 나눔이라는 순환적 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닐 것이다. 여덟째는 소그룹 사역의 강조이다. 소그룹 사역은 교회가 공동체적이라는 본질적 개념에 기초하는 것이다. 성경에 제시된 교육목회의 원형들이 모두 소그룹 사역이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성장 원리의 재발견이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자생적 방법의 원리인 '번식'의 원리를 따라 한 그루의 고목나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소그룹 사역과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개척 사역을 통해 숲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육신 패러다임에 의한 교육목회는 분명 본(本)을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³⁹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에 실로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사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기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언제나 비전속에 거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비전 : 생명은 생명을 낳기에 / 한 그루의 고목나무가 되려하기 보다 /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줌으로 / 숲을 이루려 한다. // 한 알의 썩는 밀알이듯이 /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 30배 60배 100배의 / 성장의 신비를 베풀는 교회여! // 생명이기에 / 나눌 때 / 어찌 아픔 없으랴마는 / 그것이 주어진 십자가이기에 / 오늘도 침묵으로 자신을 찢고, / 내가 친히 가리라! / 주께서 하신 / 이 한 마디 말을 얻기 위해 / 너는 또 다시 / 성육신의 아픔을 겪는구나 // 비움은 채움을 위한 것이요 / 채움은 비움을 위한 것이기에 / 저 낮은 곳을 향하여 / 계속해서 / 생명수로 흘러야 한다. / 주님의 목회를 위해... / 성육신적 교육목회를 위해...

390) 고용수, "기독교교육학 입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부 역음, *신학함의 첫걸음*, 249-251.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고용수 외, *기독교교육개론 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고용수,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 *기독교 교육과정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_____, “교육목회의 이론적 기초,” *교육교회*, 1982년 11-12월호, 448-450.
- _____, *기독교교육 사상사*. 강의안.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2학기 1984.
- _____, *만남의 기독교교육 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사, 1994.
- _____, *현대 기독교교육 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사, 2003.
- 곽선희, *영성신학*. 서울: 계몽문화사, 1999.
- _____, *현대 설교학*.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nter 1997.
- _____, *내게 말씀을 주소서*. 서울: 계몽문화사, 1996.
- _____, *생명으로의 길*. 서울: 계몽문화사, 2000.
- _____, *예수의 잠언*. 서울: 계몽문화사, 1993.
- _____, *자유의 종*. 서울: 계몽사, 1993.
- _____, *하나님의 얼굴*. 서울: 계몽사, 1995.
- 김균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김명용,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8.
- 김세윤, *목회자를 위한 성경신학 1*.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ummer, 1998.
- _____, *바울 복음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6.
- _____, *바울신학의 새관점*. 서울: 두란노, 2002.
- _____, *빌립보서강해*. 서울: 두란노, 2004.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_____,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2001.
- 김재은, *교육목회*. 서울: 성서연구사, 1998.

- 김재일, "주5일 근무제와 생태적 여가문화," *환경과 생명*, 2002년 가을호, 157-158.
- 김정준, *구약신학의 주제와 방법*, 만수 김정준 전집 4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김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서울: 한국성서학 연구소, 2001.
- 김지철, "바울의 문화관,"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100-101.
- 김형태, *목회적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대천덕,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서울: 신앙계, 1983.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 교육과정 이론지침서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_____, *성숙한 교회와 통일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9.
- 박동현, *예언과 목회 1*,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_____, *예언과 목회 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_____, *예언과 목회 Ⅲ*,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박봉수, *교육목회의 이해*, 서울: 에듀민, 2004.
- _____, *교회의 성인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박상진, "가정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교육자료 2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82-397.
- _____, "한국교회를 말한다," *기독교공보*, 2005년 1월 15일자.
- _____,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박정관, *예배와 찬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 박준서, "성서 지리학" 연신원목회자세미나 바인더, 1993, Ⅱ-1-1.
- 박창환 외, *신약성서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 서정운, *교회와 선교*, 서울: 두란노서원, 1988.
-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 손승희, *기독교교육학*, 서울: 기독교방송, 1983.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 신현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서울: 민영사, 1997.
- 심상태, *익명의 그리스도인*,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5.

- 안교성,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서울: 홍성사, 2003.
- 오인택 외,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 오인택, *기독교교육*. 서울: 종로서적, 1987.
- _____, "교육교회라는 말의 의미," *교육교회*, 1981년 9월호, 177.
- _____, "교육교회라는 말의 의미," *교육교회*, 1982년 3월호, 112.
- _____, "교육목회의 시대를 열자," *교육교회*, 1982년 11-12월호, 447.
-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 윤덕수, *성령의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9.
- 은준관,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_____, *실천적 교회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 이랜드 가족 홍보실 편, *직업의 의미*. 서울: 이랜드가족홍보실.
- 이상근, *신약주해 사도행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5.
-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 _____,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이원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친 교회성장론에 대한 임상적 평가," *목회와 신학*, 1993년 5월호, 41-44.
- _____,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 이정석, "문화와 목회,"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inter 2002.
- _____, *세속화시대의 기독교*. 서울: 이레서원, 2000.
- 이재철, *회복의 목회*. 서울: 홍성사, 1998.
- 이종성,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이훈구, *예수님의 교육목회*. 서울: 은혜출판사, 2000.
-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76.
- 임성빈,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 임운택, *소망교회 이야기*. 서울: 베드로서원, 2001.
-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부 엮음, *신학함의 첫결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5.
- 정민승, "청소년과 사이버문화," *교육개발*, 2001년 8월호, 57.
- 정일웅, *교육목회학: 한국교회와 신앙교육*. 서울: 그리심, 2003.

- 정해원, *21세기 목회의 새바람 교육목회*, 서울: 예루살렘, 2000.
-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8.
- 통합윤리학회 편, *21세기의 도전과 기독교문화*,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 헌법개정위원회 편,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4.
- 현요한, "갈병의 교회론," 장로회신학대학원, 1986.
- 홍명희, "교회학교 예배 경신의 과제," *교육교회*, 1996년 1월호, 4-5.
- 홍인식,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의 교회," Online:
http://theology.or.kr/mal/26's/26_treatise_hong.html
- 홍정길,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4.
- 홍주민, "야훼 하나님은 디아코니아적 존재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회보*, 2004년 6월호.
- 황상민, "원하는 건 꼭 사서 나를 알린다: 1020 P세대," *동아일보*, 2003년 6월 10일자.
- 황영복, "교회성장을 위한 교육목회,"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4.

2 번역서적

- Barclay, William, *마태복음(하)*, 황장욱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1.
- _____, *사도행전*, 정혁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1.
- Beckham, William A, *제 2의 종교개혁: 21세기를 위한 교회경신 (The Second Reformation)*,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Bevere, John, *순종 (Under Cover)*,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101 (Community 101)*,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 Boice, James M, *참 제자의 길 (Christ's Call to Discipleship)*, 지상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 Bosch, David J, *선교신학 (Witness to the World)*,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7.
- Bruce, F. F, *히브리서 (Hebrews)*, 이장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하)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 외 공

-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Coleman, Robert E. *주님의 마음 (The Mind of the Master)*. 노병욱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8.
- _____. *주님의 제자훈련 계획 (The Master Plan of Discipleship)*. 김영헌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5.
- Cully, Iris V.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 오성춘, 이기문, 류영모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6.
- _____. *커리큘럼의 계획과 선택 (Planning and Selecting Curriculum for Christian Education)*.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Poster, Charles R. *신앙공동체를 위한 교육 (Teaching in the Community of Faith)*. 고용수, 문전섭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Poster, Richard J. *생수의 강 (Streams of Living Water)*. 박조앤 역, 서울: 두란노, 2000.
- Fowler, James W. *신앙의 발달단계 (Stages of Faith)*. 사미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7.
- Giles, Kevin. *신약성경의 교회론 (What on Earth Is the Church?)*. 홍성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Groome, T. H. *기독교적 종교교육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3.
- Harris, Maria. *교육목회 커리큘럼 (Fashion Me A People : Curriculum in the Church)*.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Henrichsen, Walter A. *훈련으로 되는 제자 (Disciples are Made)*.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편, 서울: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1981.
- Hestenes, Roberta. *소그룹을 위한 성경연구 지침서*. 김이원, 조남수 공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1.
- Hoekendijk, J. C. *풀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 Hull, Bill. *제자 삼는 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Disciple Maker)*. 박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Icenogle, W. G. *소그룹 목회*.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ummer 1999.
- _____.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An Integrational Approach)*. 안경근 외 역. 서울: 옥토, 1997.
- Iverson, Dick. *팀 목회 (Team Ministry)*. 권혁재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1999.
- Jay, Eric G. *교회론의 역사 (The Church)*.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7.
- Miller, Donald E. *기독교교육 개론 (Story and Context)*. 고용수, 장종철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89.
- Miller, Handolph C. *기독교교육 개론 (Theologies of religious education)*. 고용수,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Moltmann, Jürge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Trinität und Reich Gottes)*. 김군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Morgan, Campbell G. *사도행전 강해*. 이용복, 조계광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9.
- Neighbour, Ralph W. *셀교회 지침서 (Where Do We Go from Here?)*.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Nipkow, Karl Ernst. *기독교교육과 신앙 (Christliche Erziehung und Glaube)*. 오인택 역. 서울: 홍성사, 1984.
- Nygren, Anders T.S. *아가페와 에로스 (Eros och Agape)*. 고구경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 Ortiz, Juan Carlos. *제자임니까 (Disciple)*. 김성웅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 Osmer, Richard R. *교육목회의 회복 (A Teachable Spirit: Recovering the Teaching Office in the Church)*. 박봉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Reid, Clyde. *셀교의 위기 (The Empty Pulpit)*.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Renich, Fred C. *끌과 돌이 만날 때 (When the Chisel Hits The Rock)*.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2.

- Richards, Lawrence, O. *교회 지도자 신학 (A Theology of Church Leadership)*. 남철수 역, 서울: 정경사, 1983.
- Russell, Letty M. *기독교교육의 새전망*. 정응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Salon, John. *탁월한 헬퍼 바나바 (The Barnabas Way)*. 마영례 역, 서울: 가이트포스트, 2002.
- Sapp, Horger. *다가오는 사도시대 (The Last Apostles on Earth)*. 고세증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8.
- Scazzero, Peter.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The Emotionally Healthy Church)*. 최종훈 역, 서울: 이레서원, 2004.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 Smart, J. D. *교회의 교육적 사명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장문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2.
- Stevens, R.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The Equipper's Guide to Every-Member Ministry)*. 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 Stoott, John R.W.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Issues Facing Christian Today)*.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Taylor, M. J. *기독교교육의 새 방향 (Changing Patterns of Religious Education)*.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5.
- Vieth, Paul H. *기독교교육과 예배 (Worship in Christian Education)*. 김소영 역, 서울: 총회교육부, 1978.
- Volz, Carl A. *초대교회와 목회 (Pastoral Life and Practice in the Early Church)*. 박일영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7.
- Von Rad, Gerhard. *구약성서 신학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Vol. 1.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승의 신학*. 허혁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3.
- Warren, Rick.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고성삼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3.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erch)*. 김현희 외 역, 서

을: 도서출판 디모데, 1997.

Watson, David, *제자도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4

Westerhoff III, John H. *교회의 의식과 교육*. 박종석 역. 서울: 베드로서원, 1992

Williamson, G. I. *웨스트민스트 신양고백서 강해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신학협회, 1997.

3. 외국서적

Burgess, Harold W. *An Invitation to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Press, 1975.

Groom, Thomas H.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0.

Gunneman, Louis H. *Worship: A Course Book for Adults*. Boston: United Church Press, 1966.

Kittle, G. "ekklesia."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 Vds, 1982.

Nelson, C. E. *Where Faith Begins*. Atlanta: John Knox Press, 1967.

Seymour, J. L. and Miller, D. E. *Contemporary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2.

Westerhoff III, J. H. *A Colloquy on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United Church Press, 1972.

_____. *Will Our Christian Have Faith?* Minneapolis: The Seaburg Press, 1976.

Vita of
Myung Ha Par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Shalom Church, Gyeyang-gu Incheon,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May 23, 1956
Marital Status:	Married to HyeRi Yoon in December 27, 1985
Home Address:	Hyundai 2-1 Apt, #204-106, 580 Jakjeon sam-dong Gyeyang-gu, Incheon, Kyungkido, Korea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onghap)
Ordained:	Apr. 23, 1991

Education:

B. A.: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1986
M. Div.: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1989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5

Personal Experience:

2001 to 2004:	Shalom Presbyterian Church, Senior Pastor
1990 to 2000:	Gildoen Presbyterian Church, Senior Pastor

Professional Membership/Academic Honors:

2004 to present:	Daejeon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Lecturer
------------------	--